

OECD 국가들의 예산 제도 비교 I

-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 SURVEY -

2014.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승현 연구위원

윤성주 부연구위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한종석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민채 연구원

김선미 연구원

김은숙 연구원

김진아 연구원

박신아 연구원

서주영 연구원

이정은 연구원

이정인 연구원

장준희 연구원

하에스더 연구원

한혜란 연구원

황보경 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예산 제도를 비교하는 설문조사인 『Budget Practices & Procedures』의 자료를 4~5년마다 업데이트하며, 본 보고서는 2012년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함

OECD의 2003년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의 정책분석보고서(정책분석 04-03) 『OECD/WB 예산집행 및 절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를 참고 바람

OECD의 2007년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의 정책분석보고서(정책분석 09-05) 『OECD국가들의 예산제도 비교: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를 참고 바람

목 차

Chapter 1.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1
1. 장기재정전망의 범위(Coverage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Q.14-16)	1
2. 신중한 거시경제 추정치(Prudent macroeconomic estimates)(Q.12-16)	5
3. 민감도 및 재정위험 분석(Sensitivity and fiscal risk analysis)(Q.51,15)	8
4. 예산을 제약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 that limit the budget)(Q.18-24)	11
Chapter 2.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Q. 25-30)	26
1.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적인 특징(Basic characteristics of medium-term frameworks (Q.25~30)	28
2. 포괄성과 한도 수준(Comprehensiveness and level of ceilings)(Q.27a)	32
3. 한도 기간과 한도 개정의 빈도(Length of ceilings and frequency of revisions of the ceilings)(Q.27b)	34
Chapter 3.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Q.34-35, 40-47)	38
1. 자본예산과 다년도 사업계획(Capital budgets and multi-year funding practices) (Q.34-35)	38
2.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Q.40-42)	40
3. 적격성 평가(Value-for-money assessment)(Q.43-45)	42
Chapter 4.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 budgeting techniques)(Q.3, 31-33)	45
1. 중앙예산당국의 역할(Role of the CBA)(Q.1-3)	48
2. 예산편성지침(Budget Circular)(Q.32)	50
3. 일선 부처 예산요구서의 상한 수준(Level of ceilings for the line ministries initial budget request)(Q.31)	52
4. 예산 논쟁(Budgetary Disputes)(Q.33)	54

Chapter 5. 중앙집권적 투입 통제의 완화(Relaxing central input controls)(Q.50, 70-84)	56
1. 예산 항목의 수(Number of line-items)(Q.50a)	57
2. 총괄예산(Lump-sum appropriation)(Q.70a)	60
3. 세출예산의 재배정(Reallocation of appropriations)(Q.72)	62
4. 예산안 의회 승인 후 세출예산 삭감/증액에 대한 권한(Authority to increase or cut appropriations after the budget is approved by the legislature)(Q.74-83)	66
5. 미사용 세출예산의 이월(Carry-over of unused appropriations)(Q.78, 81, 84)	71
6. 미래 세출예산에서 차입(Borrowing against future appropriations)(Q.73)	75
Chapter 6.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77
Chapter 7. 예산의 투명성(Budget transparency)(Q.6, 39, 51, 60-67)	82
1. OECD 회원국의 이용 가능한 예산정보 및 보고서 예시(Examples of available budget information and reporting in OECD countries)(Q.6, 39, 51, 61)	83
2. 의회의 효과적 역할 확립(Ensuring an effective role for the legislature)(Q.6, 60, 64-67)	90
3. 독립적 재정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99
참고문헌	104
부표(Statistical Annex)	107

표목차

〈표 4.1〉 Top-down budgeting vs. Bottom-up budgeting	46
〈표 5.1〉 이월제도 사용 찬반 논쟁	72
〈표 6.1〉 성과측정	80
〈표 A1.1〉 Actor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107
〈표 A1.2〉 Time span and revisions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107
〈표 A1.3〉 Links between the annual budget and th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109
〈표 A1.4〉 Which of the following actors develop the macroeconomic estimates used in the budget?	109
〈표 A1.5〉 Time span of long-term macroeconomic estimates	110
〈표 A1.6〉 Elements considered in long-term fiscal projections and link to the annual budget	111
〈표 A1.7〉 Are sensitivity analysis and independent reviews of the economic assumptions publicly available?	114
〈표 A1.8〉 Risk taken into account for entitlement spending	115
〈표 A1.9〉 Are there any fiscal rules that place limits on fiscal policy?	116
〈표 A1.10〉 Fiscal rules adopted in OECD countries - a comprehensive overview	118
〈표 A2.1〉 Levels of ceilings of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	140
〈표 A2.2〉 Legal basis, coverage and monitoring of MTEF	141
〈표 A2.3〉 Length of medium-term expenditure ceilings	143
〈표 A3.1〉 Capital and operating budgets within central government	144
〈표 A3.2〉 Existence of a dedicated uni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145
〈표 A3.3〉 CBA approval of capital/infrastructure projects of line ministries	146

〈丑 A3.4〉 Use of an absolute value-for-money analysis(CBA/CEA) of capital/infrastructure projects	147
〈丑 A3.5〉 Use of an relative value-for-money analysis (comparators) of capital/infrastructure projects	148
〈丑 A3.6〉 Use of specific tools in value-for-money analysis	149
〈丑 A4.1〉 Central Budget Authority	150
〈丑 A4.2〉 Content of the annual budget memorandum / circular / instruction ..	154
〈丑 A4.3〉 Expenditure ceilings accompanying ministry's initial spending request ...	155
〈丑 A4.4〉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ministries in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156
〈丑 A5.1〉 Number of line item appropriations contained in the budget	157
〈丑 A5.2〉 Do agencies receive lump-sum appropriations for operating expenditure? ...	158
〈丑 A5.3〉 Which sub-limits are set for lump-sum appropriations for operating expenditure?	159
〈丑 A5.4〉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reallocate funds within their responsibility ·	160
〈丑 A5.5〉 Restrictions for the executive to increase spending after the budget has been approved by the legislature(Q74/76/79/82)	162
〈丑 A5.6〉 Restrictions for the executive to cut spending after the budget has been approved by the legislature(Q75/77/80/83)	165
〈丑 A5.7〉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within their responsibility(Q78/81/84)	168
〈丑 A5.8〉 Is it possible for ministries/agencies to borrow against future appropriations?	172
〈丑 A7.1〉 Are the economic assumptions underlying the budget and the methodology used to establish them published/publicly available?	173
〈丑 A7.2〉 Public available budget documents	174

〈A7.3〉 Elements included in budget documents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175
〈A7.4〉 Expenditure items considered as contingent liabilities and included in the budget(Q39a-b)	178
〈A7.5〉 OECD countries that issue a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mid-year report(Q6)	179
〈A7.6〉 What are the formal powers of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budget proposed by the executive?	180
〈A7.7〉 Is a vote on the budget considered a vote of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182
〈A7.8〉 Time available for legislative debate of the government's budget proposal(Q6)	183
〈A7.9〉 Do the provisional procedures if the budget is not approved by the legislature before the start of fiscal year favour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ure?	184
〈A7.10〉 Existence of a specialised budget research unit attached to the legislature	185
〈A7.11〉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187
〈A7.12〉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189

그림목차

[그림 1.1] 장기재정전망 담당기구(Q14a)	3
[그림 1.2] 장기재정전망의 기간과 수정빈도(Q14b-c)	4
[그림 1.3] 장기재정전망과 연간예산의 관계(Q14d)	4
[그림 1.4] 거시경제추정을 담당하는 기관들(Q12)	5
[그림 1.5] 장기거시경제변수 추정기간(Q13)	6
[그림 1.6] 장기재정전망에 고려되는 요소들(Q16)	7
[그림 1.7] 사용가능한 민감도 분석 및 가정들(Q51a)	8
[그림 1.8] 법정지출의 위험 고려(Q15a)	9
[그림 1.9] 재정준칙을 시행하는 OECD 국가 비율(Q18)	14
[그림 1.10] 적용된 재정준칙의 OECD 평균 개수(Q18)	17
[그림 1.11] 적용된 재정준칙 수에 따른 재정준칙 시행 국가 비율(Q18)	17
[그림 1.12] 준칙 분류에 따른 준칙 시행 국가 비율 및 준칙 개수 비율(Q18)	19
[그림 1.13] 적용된 준칙 종류(Q19~22)	21
[그림 1.14] 지출준칙에 포함되는 지출 종류(Q19b)	22
[그림 1.15] 재정위기사 재정준칙의 유연성(Q19-22)	22
[그림 1.16] 재정준칙의 시한(Q19-22)	23
[그림 1.17]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Q19-22)	24
[그림 1.18] 재정준칙의 집행절차(Q19-22)	25
[그림 2.1] OECD 회원국 중 중기재정계획 시행국가 비율(Q.25)	28
[그림 2.2] 중기재정계획의 법적근거(Q.26)	29
[그림 2.3] 중기재정계획의 승인 주체(Q.28)	29
[그림 2.4]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의무지출 포함여부(Q.29)	30
[그림 2.5] 중기재정계획의 모니터링(Q.30)	31
[그림 2.6] 중기재정계획의 한도수준(Levels of ceilings)(Q.27)	33
[그림 2.7] 한도 기간(Q.27b)	35

[그림 2.8] 한도 개정의 빈도(Q.27b)	35
[그림 2.9] 중기재정계획 지수	37
[그림 3.1] 중앙정부의 자본예산(Q34)	39
[그림 3.2] 다년도 자본 프로젝트 자금(Q35)	39
[그림 3.3] 중앙정부에 하나 이상의 PPP담당부서가 있는 OECD국가	40
[그림 3.4] 중앙정부의 PPP 담당부서 수(Q40a)	41
[그림 3.5] 자본프로젝트 승인에 CBA 요구 여부(Q42)	41
[그림 3.6] 자본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성 분석 사용(Q43)	43
[그림 3.7] 적격성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론(Q45)	44
[그림 4.1] CBA의 위치(Q.1)	50
[그림 4.2] CBA의 주장(Q.2)	50
[그림 4.3] CBA의 책임(Q.3)	51
[그림 4.4] 연간 예산편성지침의 내용 - 선택된 항목(Q.32)	51
[그림 4.5] 일선 부처의 예산초안의 상한(Q.31)	55
[그림 4.6] 예산과정에서 부처 간 논쟁 해결(Q.33)	55
[그림 5.1] 국가별 예산항목의 수(Q50a)	59
[그림 5.2] 경상지출에 대한 기관들의 총괄예산편성 여부(Q70)	61
[그림 5.3] 총괄예산에 대한 세부 한도(Q70b)	61
[그림 5.4] 재배정 허용 여부(Q72a)	64
[그림 5.5] 재배정에 대한 제약(2012년)(Q72a)	64
[그림 5.6] 재배정 승인 유형(Q72b)	65
[그림 5.7]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행정부의 지출증액 허용 여부(Q74, 76, 79, 82)	68
[그림 5.8]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행정부의 지출증액에 대한 제약(Q74, 76, 79, 82)	68
[그림 5.9]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지출증액 승인 유형(Q74, 76, 79, 82)	69
[그림 5.10]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지출삭감 허용 여부(Q75, 77, 80, 83)	69
[그림 5.11]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행정부의 지출삭감에 대한 제약(Q75, 77, 80, 83)	70

[그림 5.12]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지출삭감 승인 유형(Q75, 77, 80, 83)	70
[그림 5.13] 2007년과 2012년의 이월제도(Q78, 79, 84)	73
[그림 5.14] 2012년 이월의 제한규정(Q8, 9, 84)	73
[그림 5.15] 이월의 승인 유형(Q78, 79, 84)	74
[그림 5.16] 미래 세출예산 차입에 대한 허용(Q73)	76
[그림 6.1] 중앙정부 조직 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앙예산당국의 표준 성과주의 예산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여부	78
[그림 6.2] 일선 부처에서 중앙예산당국과 협상 시 성과결과 활용내용	79
[그림 6.3]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야기되는 결과	80
[그림 6.4] 성과주의 예산 지표	81
[그림 7.1] 예산의 기본가정과 방법론이 발표/공개되는지 여부(Q51a)	83
[그림 7.2] 일반에게 공개되는 예산문서(Q51)	84
[그림 7.3]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문서에 포함되는 항목(Q61)	86
[그림 7.4] 우발부채로 간주되는 지출항목(Q39)	87
[그림 7.5] 통합 반기보고서의 존재 여부(Q6k)	88
[그림 7.6]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 완료된 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89
[그림 7.7] 예산에 대한 투표가 정부 신임투표로 간주되는지 여부(Q66)	91
[그림 7.8] 의회의 수정 권한(Q64)	92
[그림 7.9] 입법부의 예산심의 기간(Q6h+i)	94
[그림 7.10] 예산 비승인시 임시조치의 성격(Q67)	96
[그림 7.11] 전문적 예산연구 조직의 증가(Q60)	98
[그림 7.12] 독립적 재정기관 도입 국가 수	100
[그림 7.13] 독립적 재정기관의 직원 수	100
[그림 7.14]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101
[그림 7.15] 독립적 재정기관과 입법부와의 관계	103

Chapter 1.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본 장은 중기 및 연간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재정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설명하며, 장기재정전망, 거시경제 예측, 민감도 및 재정위험 분석, 재정준칙에 중점을 두고 있음

공공재정 지속가능성은 세입·세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고 운용 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채무상환비용 및 공적예산의 미래 사회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재정 지속가능성(Public fiscal sustainability)
 - 재정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세입·세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고 운용 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채무상환비용(debt servicing cost), 미래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함
 - 단기와 중기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세입·세출 정책은 신중한 거시경제 가정, 민감도 분석, 위험 분석, 적절한 재정준칙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재정전망은 인구통계학과 사회경제적 추세를 필수적인 분석 툴(tool)로 포함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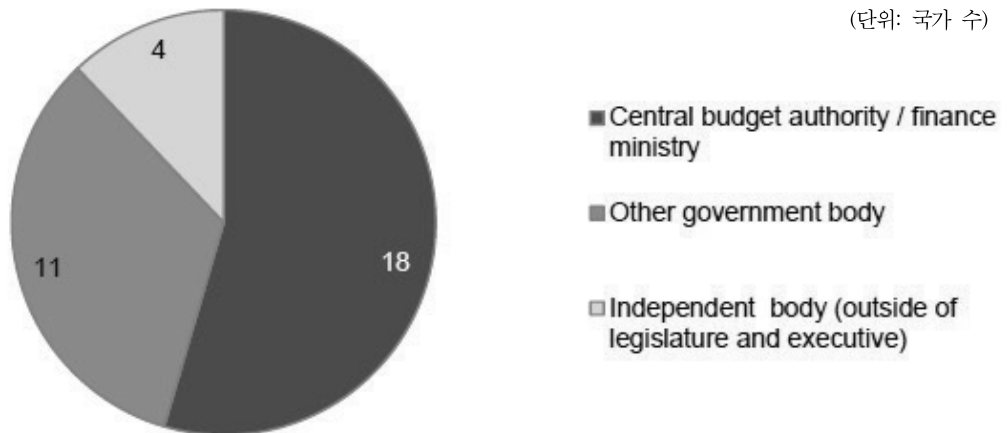
1. 장기재정전망의 범위(Coverage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Q.14-16)

- 장기재정의 불확실성 요소(Long-term fiscal uncertainty)
 - 노인인구 증가와 기대수명 상승, 보건 서비스 수요 증대,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세기반 축소 등이 장기재정의 불확실성으로 작용
 - 최근 나타나는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 일부 OECD 국가들에서 발생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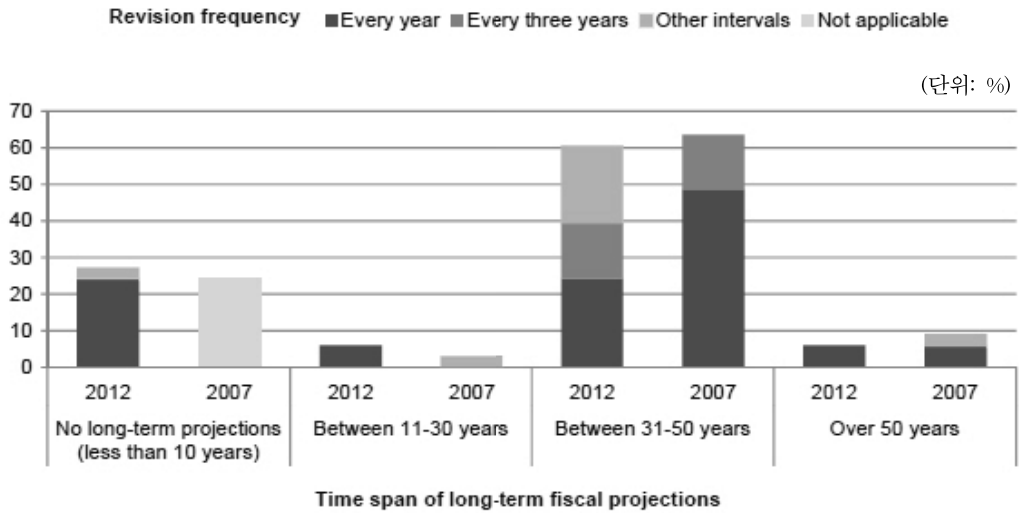
-
- 산 외 우발부채 문제로 인해 재정 계획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
- 공공부문과 법정지출 프로그램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장기 불확실성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개혁은 단기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득이 있음
 - 장기재정전망의 역할(The role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 (1) 기대 미래 비용을 산정하고, 인구통계학적 전망과 경제 발전 측면에서 현재 정책에 수반된 채무를 산정하는 데 장기재정전망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2) 한 경제 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장기 전망은 공공부문이 사회에 주는 혜택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개혁 의제의 정치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함
 - 장기재정 지속 방해요인(Challenges in long-term sustainability)
 - 일부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의 규모와 구조는 장기재정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위험 요소로 제기됨
 - 일부 정부들은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대 간 분배하는 방법 등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장기재정전망 주관 기관(Long term fiscal projection main agent)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앙예산당국(CBA: Central Budget Authority)이 장기 재정 전망을 책임짐(그림 1.1)과 <표 A1.1> 참고)

[그림 1.1] 장기재정전망 담당기구(Q14a)



-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예산당국이나 다른 주요 부처가 아닌, 재무부의 다른 부서가 장기 재정전망을 담당하기도 함
 -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은 장기재정전망을 재무부의 다른 부서가 담당
 - 프랑스, 일본 스페인은 다른 부처나 내각(Cabinet office)이 장기재정전망을 담당
 - OECD에서 오직 4개 국가만 독립된 기관이 장기재정전망을 담당(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 장기재정전망 전망기간(Coverage of long term fiscal projection)
- OECD 국가의 3분의 2가 3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제공
 -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매 3~5년마다 혹은 정부가 바뀔 때 전망을 수정
 - 칠레와 일본만 11~30년 기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제공하며 매년 전망을 수정
 - 2007년 이후로 1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하지 않는 국가의 수는 응답한 OECD 국가 수 기준 27%로 전년 대비 3%p 증가
 - 이들 국가는 5년 이하의 재정전망을 하고 매년 전망을 수정
 - 이스라엘은 6~10년 전망을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수정하지 않음(그림 1.2와 <표 A1.2> 참고)

[그림 1.2] 장기재정전망의 기간과 수정빈도(Q14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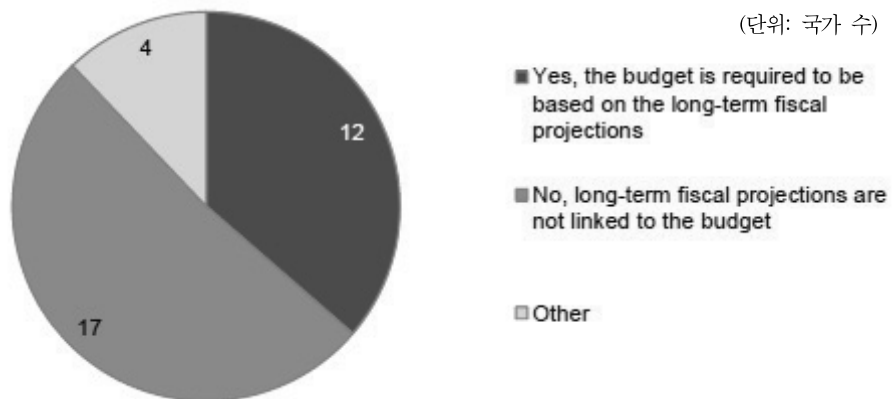
Notes:

1)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9). The 2007 data are drawn from Government at a Glance 2009, table 17.1.

2) In 2012, "No long-term projections" refers to countries having fiscal projections of up to 10 years.

- OECD 국가 중 절반은 연간 예산안이나 중기계획이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하거나 일치해야 함(그림 1.3)과 <표 A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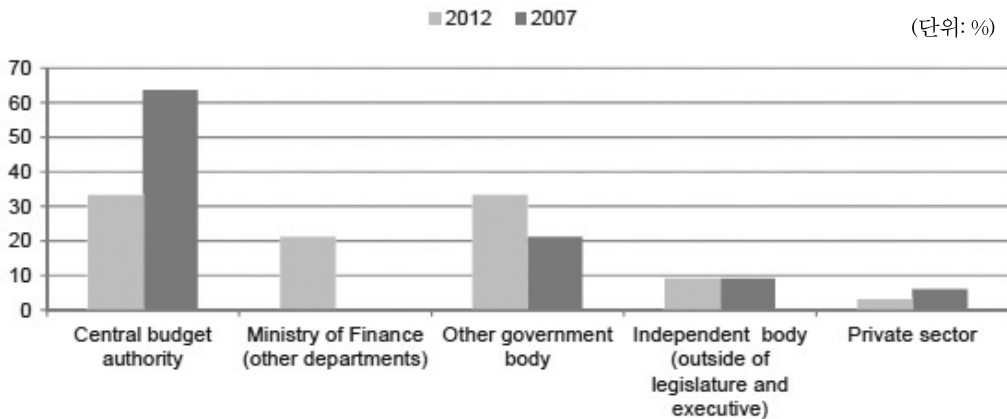
[그림 1.3] 장기재정전망과 연간예산의 관계(Q14d)



2. 신중한 거시경제 추정치(Prudent macroeconomic estimates) (Q.12-16)

- 신중하고 적절한 경제전망은 정책기조를 포함해 예산안을 구성할 때 기초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야 함
 - 특히 재정건전화 기간 동안에는 느슨한 가정이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은 재정조정 노력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재정정책을 수행하려는 정부의 시장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음
 - 경제 가정에 관한 투명성 지표는 질과 신뢰성을 높임
- 거시경제전망 주관 기관
 - OECD 국가의 절반이 중앙예산당국 내의 전용기구나 재무부의 다른 부서가 거시경제 추정치 개발을 담당하고(그림 1.4와 <표 A1.4> 참고), 다수의 기타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이 이 과정에 참여함

[그림 1.4] 거시경제추정을 담당하는 기관들(Q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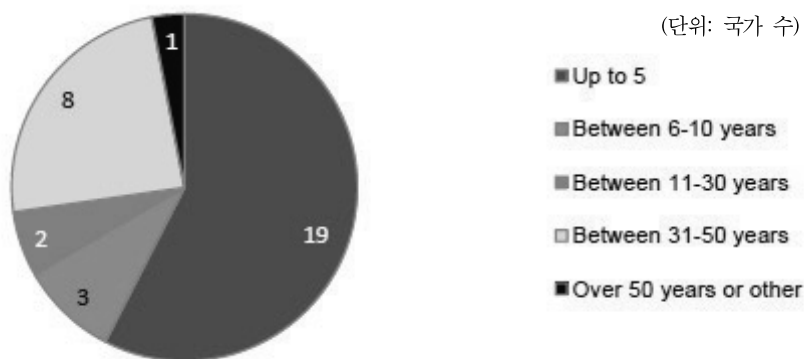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 응답한 국가의 36%는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책임을 다른 정부 기관에 할당(2007년에 비해 1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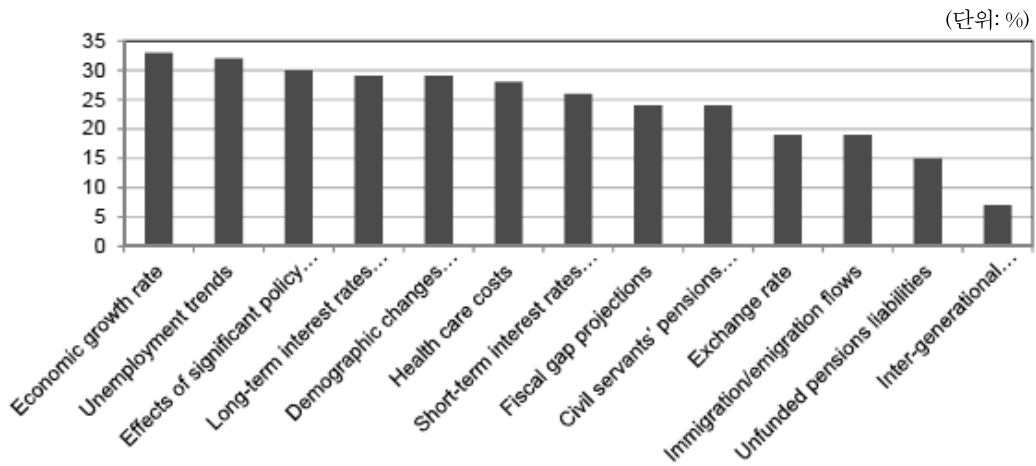
- 이들 중 5개 국가는 해당 책임을 핵심 정부부처에 할당: 덴마크, 독일, 일본, 스페인, 터키(〈표 A1.4〉 참고)
- 다른 방식으로 해당 책임을 독립 기관에 할당(예: 스위스는 다양한 부처 대표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과 중앙은행이 함께 거시경제 추정치를 만듦)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Bureau of Economic Policy Analysis)은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하에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경제정책분석국은 독립 외부 자문기관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내각과 야당 모두와 업무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
- 룩셈부르크와 영국은 예산 전망 준비를 담당하는 독립된 공공기관을 설립
- 캐나다의 공식적 거시경제 추정은 주요 은행과 민간 전망 기업들의 전망에 기반을 둠
 - 재무부는 약 20개의 민간부문의 전망 기업들에 노동시장 변수, 실질 GDP, 물가, 이자율, 환율에 대한 분기별 설문 실시
 - 이러한 외부 추정치의 평균은 정부 공식 세입과 세출 전망의 기초로 사용됨
- 거시경제변수 전망 기간(Coverage for macroeconomic estimates)
 - OECD 국가의 58%는 5년간의 거시경제 추정치를 개발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대부분은 31년에서 50년 동안의 거시경제 추정치를 개발하여 사용(〈그림 1.5〉와 〈표 A1.5〉 참고)

[그림 1.5] 장기거시경제변수 추정기간(Q13)



- 장기 재정전망 전제 요소(Estimated variables for long-term fiscal projection)
 - 거시경제변수: 이자율, 경제성장률, 실업 추세
 - 재정 혹은 정책 변수: 재정갭 전망과 주요 정책 개혁의 영향(예: 연금과 보건 개혁)
 - 그 밖의 요소: 인구통계학적 변화, 환율, 보건비용
 - 세대 간 논의와 연금의 책임과 빚 문제는 추정치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음(그림 1.6과 <표 A1.6>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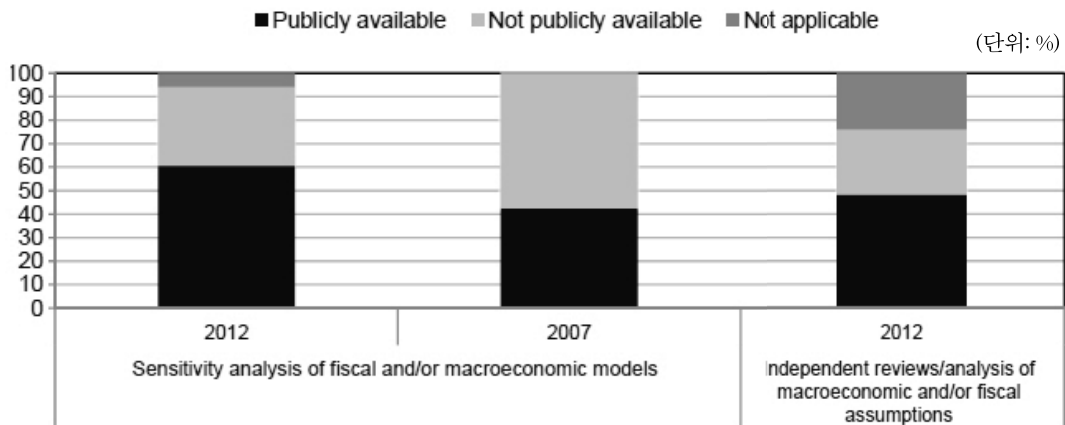
[그림 1.6] 장기재정전망에 고려되는 요소들(Q16)



3. 민감도 및 재정위험 분석(Sensitivity and fiscal risk analysis)(Q.51, 15)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재정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 가정에 근거한 정량적 모형을 통해서 모수나 기본가정에 대한 변화가 결과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
 - 모수의 작은 변화가 상대적으로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결과가 모수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개별 지출항목과 같이 예산에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 예측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정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
 - 예를 들어, 세계 시장에서 주요 상품 가격의 변화가 세입 증가 전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민감도 분석이 사용
 - OECD 국가 중 61%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예산문서상에 재정민감도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조사의 42%보다 상승한 수치([그림 1.7], <표 A1.7> 참조)
 - 단, 벨기에와 그리스 두 OECD 국가들은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지 않음

[그림 1.7] 사용가능한 민감도 분석 및 가정들(Q5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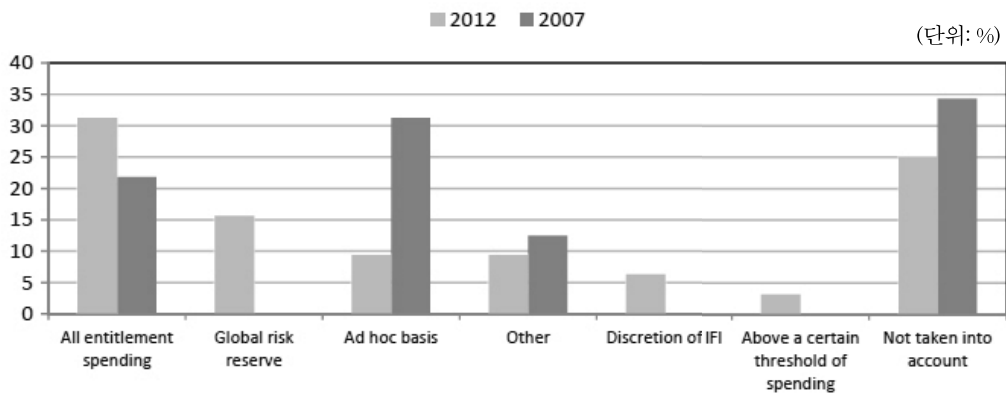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Identifying and assessing risk elements)
 - 재정전망과 거시경제 변수에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위험이 나타난 경우 가정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
 - 위험요소의 가능성과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져야 함

- OECD 국가별 잠재적 재정위험요소 평가 방법
 - 평가의 포괄성이 다르지만(평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법정지출과 관련된 잠재적 재정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
 - 예: 다양한 법정지출의 수급률이 예산에서 가정한 것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그림 1.8), <표 A1.8> 참고)

[그림 1.8] 법정지출의 위험 고려(Q15a)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with an answer to the question (33 in 2012 and 33 in 2007)

- OECD 국가의 30%는 모든 법정지출에 위험을 고려
- 33%는 한 가지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고려
 -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비예비비적 자금(unreserved funds) 배분
 - (캐나다) 법정지출에 대한 위험 또는 충격을 포함하는 글로벌/일반적 위험 조정을 마련
 - (덴마크와 스웨덴) 예산 마진을 적용하는데, 이는 지출한도와 지출 상한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함

- (스웨덴) 예산 마진은 다음연도에 0.5%p씩 증가하며 이는 당해 지출 상한의 최소 1%가 되어야 함
- (호주) 위험 또는 충격이 예측될 때 민감도 분석이 포함
- (그리스) 특정 경우에 위험을 고려함
- (폴란드)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위험을 고려
-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필요시에 위험을 평가
- (네덜란드, 영국) 독립기구인 CPB와 OBR에서 제공하는 전망을 바탕으로 발표하며, 해당 독립기관의 재량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
- OECD 국가 중 27%(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미국)는 법정지출에 대한 위험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핀란드) 예산 과정 자체에서 추경예산과 지출한도의 예산여유분 등 유연적인 요소를 포함
- OECD 2007년 서베이와 비교하면 법정지출의 위험 분석에 대해 평가하는 국가들이 증가
 -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수는 34%에서 27%로 하락함

4. 예산을 제약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 that limit the budget)(Q.18-24)

- 재정준칙
 - 재정준칙이란 재정상황에 대한 요약 지표로 표현된 재정 정책에 대한 항구적인 제약을 의미(Kopits and Symansky(1998))
 - 재정준칙의 두 가지 특징
 - (1)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묶는 제약을 표현
 - (2) 행정부 예산 관리의 구체적인 지표로 간주됨
 - 민주주의 국가들의 예산편성은 본질적으로 팽창하는 방향으로 편향됨(Schick(2003))
 - 재정준칙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지출을 제약하여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면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을 개선
 - 재정준칙은 정부 신용도를 나타내고 어려운 재정 의사결정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
 - 재정준칙은 연방 또는 연합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외부효과를 통제할 수 있음(Inman(1996))

- 정형화된 재정준칙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준칙 범주가 존재: (1) 지출준칙(expenditure rules), (2) 재정수지준칙(fiscal balance rules), (3) 채무준칙(debt rules), (4) 수입준칙(revenue rules)
 - (1) 지출준칙: 정부지출액을 제한하는 준칙
 - 지출 수준 혹은 지출 증가액, GDP 대비 지출액을 명목 혹은 실질로 표현
 - (2) 재정수지(즉, 적자 혹은 흑자)준칙: 재정수지(정부 지출과 수입 간의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준칙
 -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요구량, 정의된 적자 한도 초과 금지, 정의된 최소한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요구량 등을 명목 혹은 경기 조정 수지로 나타내며, 대개 GDP 대비 %로 표현됨
 - (3) 채무준칙: 정부 채무액을 제한하는 준칙
 - GDP 대비 채무 비율이나 GDP 대비 채무 비율의 명시적인 축소를 명목으로 표현
 - (4) 수입준칙: GDP 대비 조세 비율 제한을 강제하고 전망치를 초과하는 정부 수입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는 준칙

□ 재정준칙의 요건

- (1) 재정준칙과 목표는 명확하게 적시되고 설명되어야 하며, 준칙의 형태에 대해 명확한 주의가 필요
- (2) 관리와 감시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요약 지표에 기초해야 하며 단순하고 명백해야 함
- (3) 경기변동에 대응해야 하고, 우발적인 세수 증가를 다루기 위해 일시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함
- (4) 가능한 한 모든 수준의 정부를 포괄해야 함
 - OECD Budget Survey는 오직 중앙정부 재정준칙만을 포함

□ 재정준칙의 역할 및 효과

- 재정준칙이 정부의 재정건전화 달성을 도울 수 있다고 제시하는 증거는 존재하지만, 실례가 다양하고 어떤 형태의 준칙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없음
- 하지만 재정준칙을 시행하거나 연장하는 데 실패한 국가들은 재정 규율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함(예: 1990년 예산통제법이 종료된 2002년 이후의 미국)
- 엄격한 준칙은 일회성 측정과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정적 술책을 야기할 수 있음(Koen and van den Noord(2005))

□ 재정준칙의 실효성은 다른 예산 관행 및 절차와 연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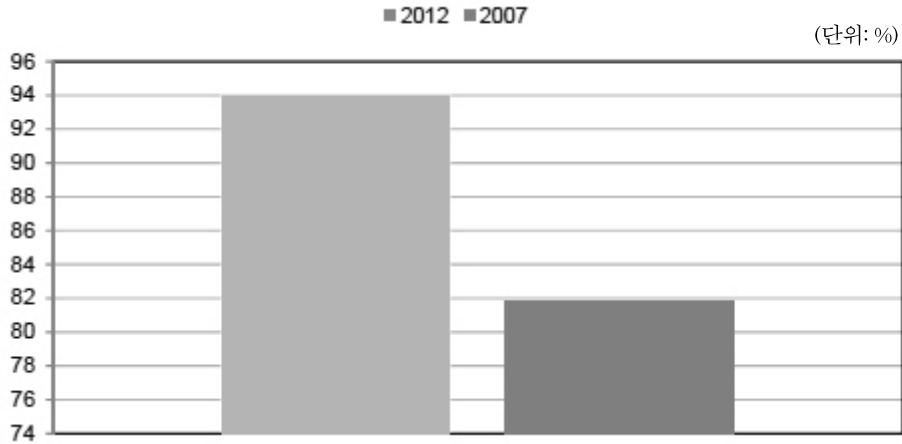
- Schick(2003)에 따르면, 중기 예산 계획, 하향식 예산구조, 장기재정전망, 정책변화 효과 평가, 감시 및 후속절차, 집행 구조 등을 포함
- 최근의 연구 또한 독립적 집행 기구의 지원적 역할을 강조(Schaechter et al.(2012))

□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 준칙은 그 형태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양한 목표,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된 목표에 맞춰야 함
- 최근의 문헌은 다음을 포함한 구조적 유연성을 지지
 - (1) 재정준칙 내의 잘 정의된 면책조항(Schick(2010), IMF(2009))
 - (2) 예외 조항의 한정된 가능성을 포함한 총량지표의 포괄적 범위(Schaechter(2012))

- (3) 재정준칙의 국내법으로의 포함(European Commission)
- Anderson and Minarik(2006)은 적자 준칙이 경기대응정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 그들은 재량지출과 조세지출(단, 자동안정화장치 제외)을 관리하는 지출준칙이 더 우수한 대안이라고 생각
 - (1) 감시하기에 더 투명하고, 분식회계 가능성을 낮춤
 - (2) 본질적으로 경기대응적이고 자동안정화장치를 적절히 기능하게 함
 - (3)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정책입안자에게 견고한 지침을 제공
 - (4) 특히 핵심 정부 기능 및 공공 투자와 관련된 세출 법안을 포함해 자원의 예측력을 증가시킴
 - (5) 조세 부담 증가 위험을 감소시킴(지출 상한과 결합했을 때)
- OECD Survey의 재정준칙 5가지 평가 방법
 - (1) 도입한 재정준칙의 유형: 지출, 재정수지, 부채 또는 수입과 비교
 - (2) 적용한 재정준칙의 형태: 재정준칙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과 관련되었는지(예: 경기준환, GDP)
 - (3) 재정준칙의 법적 기반: 주법(primary law, 즉, 헌법 또는 제정법)인지 혹은 연립정부 사이의 정치적 공언/협약인지
 - (4) 재정준칙의 기한: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 (5) 재정준칙 불이행시의 집행 절차: 교정과 책임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 2012년도 조사에서 OECD 국가들의 재정준칙 도입 현황
 - 재정준칙을 도입해 온 OECD 국가 수는 2007년 조사 이후로 크게 증가
 - 2012년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의 94%가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2007년 조사보다 12%p 증가한 수치(그림 1.9, <표 A1.9> 참고)
 -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유이한 국가는 뉴질랜드와 터키임
 - 재정준칙 도입이 증가한 한 가지 이유는 EU의 강화된 재정 관리 방안의 최근 발전임
 - 안정성장협약하에서 기존 재정 제약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중기 예산 목표에 대한 수렴과정이 형성되고, 유로지역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재정준칙을 국내법으로 포함시키게 됨(<참고 1.1> 참고)

[그림 1.9] 재정준칙을 시행하는 OECD 국가 비율(Q18)



〈참고 1.1〉 OECD-EU 국가와 안정성장협약

- 유럽연합 내 OECD 회원국으로, 유로지역 내 15개국과 유로지역 외 6개국이 있음
 - 유로지역(Euro Area)은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법화로 유로를 채택한 17개국의 통화동맹으로, 현재 15개 OECD 회원국이 있음(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유로지역 밖의 EU 회원국으로, 6개의 OECD 회원국이 있음(체코,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영국)

-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EU의 각국 재정정책 조정을 위한 준칙 기반의 틀임
 - 안정성장협약은 예방적 측면과 교정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정적 측면은 대개 유로 지역 회원국에 초점을 둠
 - 안정성장협약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총국가채무를 GDP의 60%로 제한하며, 주요 재정 목표를 향한 수렴 경로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제재

-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측면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거나 국가채무가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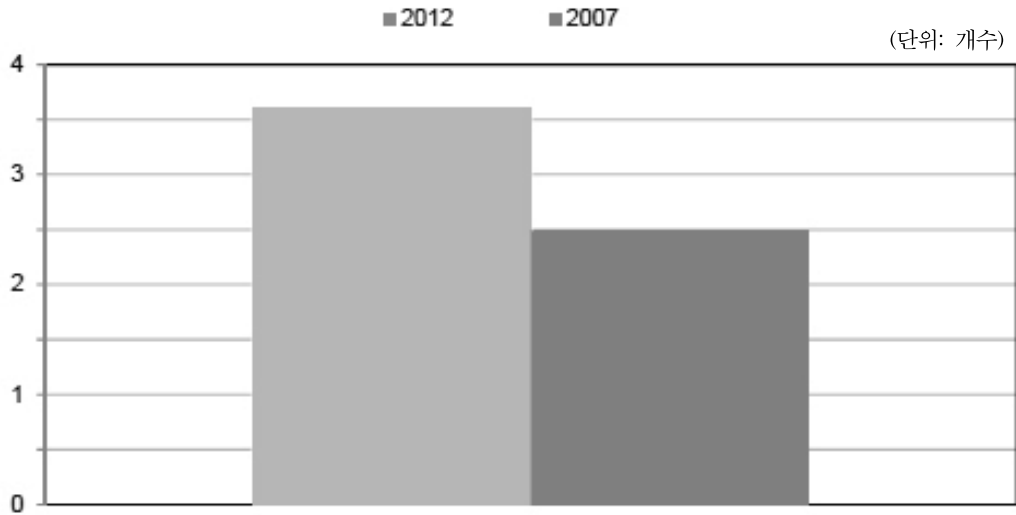
- 의 60%를 초과할 때 발동되는 초과적자 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통해
- 경기변동 효과를 고려한 채무를 3년에 걸쳐 매년 최소 5%씩 감소하지 않거나 지난해부터 향후 2년간 이와 유사하게 감소할 것으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예측하지 않으면 초과적자 시정조치가 발동됨
 - 이사회(Council, EU 재무장관회의)는 지정된 기한 내에 초과적자를 교정하도록 권고
 - 교정적 조치하의 유이자 보증금이 무이자 보증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이사회 권고에 따르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유로지역 회원국에 GDP의 0.2%의 벌금이 부과됨
 - 집행위원회로부터 권고되는 제재는 오직 이사회 가중 과반수에 의해 부결될 수 있음(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더 많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가중 과반수 투표이며, 가중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가결되는 역투표 방식)
 - ‘유로지역 또는 유럽연합 전체의 심각한 경제 하락’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존재
- 안정성장협약의 예방적 측면에 따라 각국은 구조적재정수지준칙*을 반영한 중기예산목표(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s)가 포함된 재정안정화보고서 또는 경제수렴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 유로지역과 환율조정메커니즘하의 국가는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의 1%를 넘을 수 없음
 - 구조적 재정수지가 중기예산목표를 상당히 초과하면, 해당 국가는 연 평균 GDP 대비 0.5%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감소시켜야 하며 지출 증가율이 중기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조정을 이행해야 함
 - 지출은 이자, 실업수당, EU 지급금을 제외하며, 재량수입 또는 법정 수입의 증가에 따른 지출 또한 제외
 -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이사회는 과도한 적자를 막기 위한 조기경고를 할 수 있고 GDP의 0.2%의 유이자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오직 가중 과반에 의해서만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
- 2013년 3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는 공통 예산 회기와 공통 예산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유로지역 회원국의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2개의 추가 조치(two-pack)에 합의
- 무엇보다도 이 규제는 유럽위원회가 회원국이 안정성장협약을 심각하게 이행하지 않

- 을 경우에 예산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제공
- 유럽통계청(Eurostat)은 집행위원회의 감시조항에 따라 회원국들로 보고받은 분기 정부 통계 자료를 제공
 - 위원회는 통계를 왜곡한 ‘심각한 지표’가 나타날 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GDP의 0.2%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조약은 유로지역 회원국의 의무이고, 구조적 재정수지로 표현되는 수치준칙을 만들고 국내법(법적구속력을 갖추고 항구적으로, 가급적 헌법)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
 - 재정협약은 GDP의 0.5%의 구조적 재정적자 하한과 함께 상대국의 중기예산목표를 존중하도록 요구
 - 각국의 교정 메커니즘은 중기예산목표 혹은 그 조정경로로부터 이탈할 경우 자동적 조치를 보장해야 함
 - 규정 준수는 국가 독립 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함
 -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국가가 적절히 국내법 내에 새 예산 규정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요구하는 유럽 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GDP의 0.1%)을 부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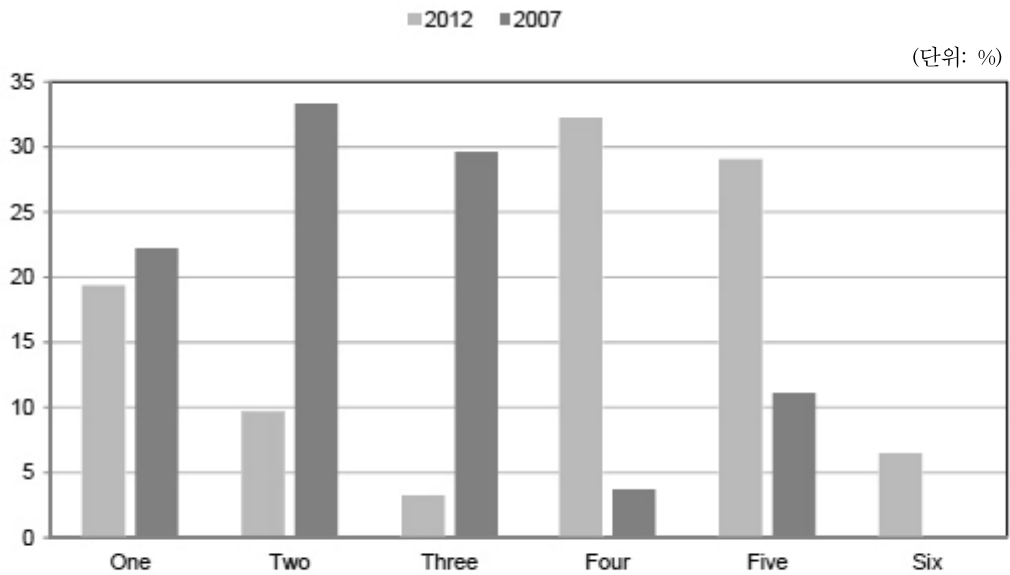
가. 도입된 재정준칙의 종류(The type of fiscal rules adopted)

- OECD 국가들의 재정준칙 평균 개수는 2.5개에서 3.6개로 증가([그림 1.10], <표 A1.9> 참고)
 - 2007년에 대다수 국가들은 2~3개의 재정준칙을 도입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4~5개의 준칙을 도입([그림 1.11], <표 A1.9> 참고)
 - 프랑스와 그리스는 지출준칙, 수치준칙, 채무준칙, 수입준칙 등 모든 분류를 포함하여 6개의 재정준칙을 도입
 - 10개의 국가는 4개 이하의 재정준칙을 도입, 즉, 독일(3), 칠레, 이스라엘, 미국(2),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각각 1개)

[그림 1.10] 적용된 재정준칙의 OECD 평균 개수(Q18)



[그림 1.11] 적용된 재정준칙 수에 따른 재정준칙 시행 국가 비율(Q18)



Note: Figures 1.9-1.11: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 도입된 재정준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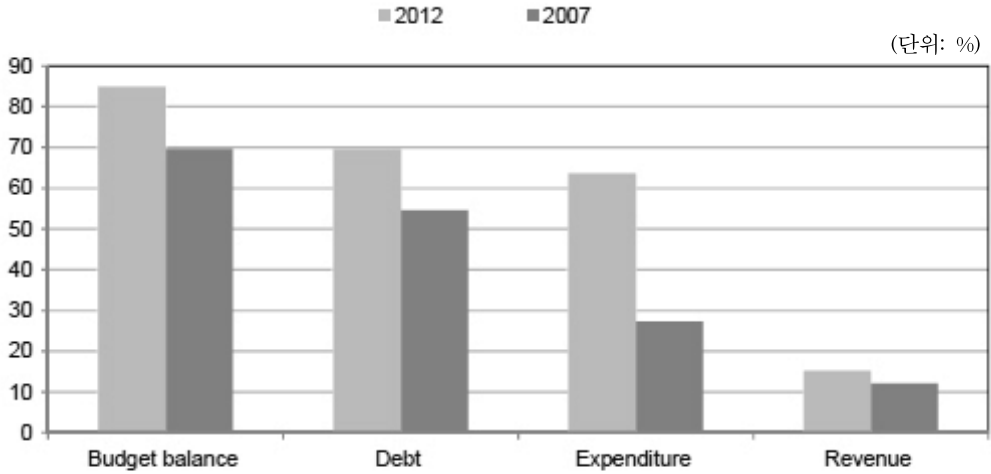
- 2007년 이래로,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비율이 모든 재정준칙 분류에 대해 증가해 옴
- 가장 실질적인 증가는 지출준칙에서 있었으며, 지출준칙 도입 국가 비율이 2007년 3분의 1에서 현재 거의 3분의 2로 증가(그림 1.12a), <표 A1.9> 참고)
- 그러나 가장 넓게 도입된 재정준칙은 수지준칙과 채무준칙으로, 각각 OECD 국가의 85%, 70%가 도입

□ 재정준칙을 1개 이상 도입한 OECD 국가 현황

- 일부 OECD 국가들은 한 가지 분류 이상의 재정준칙을 도입
- 안정성장협약과 재정협약(Fiscal Compact)에 따르면, 모든 유로지역 국가들은 구조적·명목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도입해야 함.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다른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이탈리아는 4개의 수지준칙을 도입
 - 벨기에와 스웨덴은 3개의 수지준칙을 시행
- 2007년 이래로, 재정준칙 수는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분류에서 증가해 옴
- 재정준칙 총 개수의 비율에서 수지준칙이 5%p 증가하여, 전체 재정준칙 수의 거의 절반에 이룸(47%)(그림 1.12b), <표 A1.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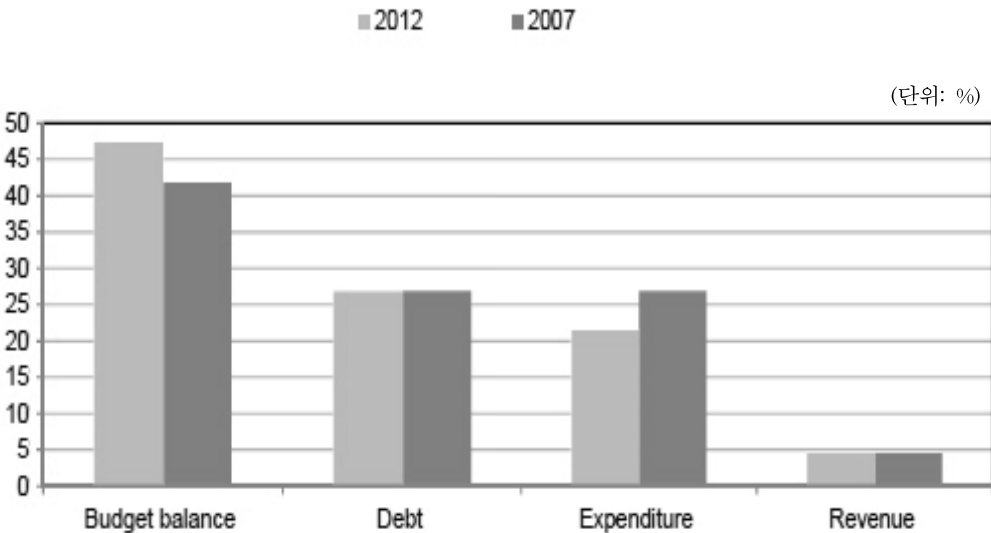
[그림 1.12] 준칙 분류에 따른 준칙 시행 국가 비율 및 준칙 개수 비율(Q18)

[그림 1.12a] 준칙 분류에 따른 재정준칙 시행 국가 비율(Q18)



Note: Percentage of total number of fiscal rules in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그림 1.12b] 준칙 분류에 따른 전체 준칙 수에 대한 비율(Q18)



Note: The 2007 data are retrieved from the OECD Budget Database and other OECD 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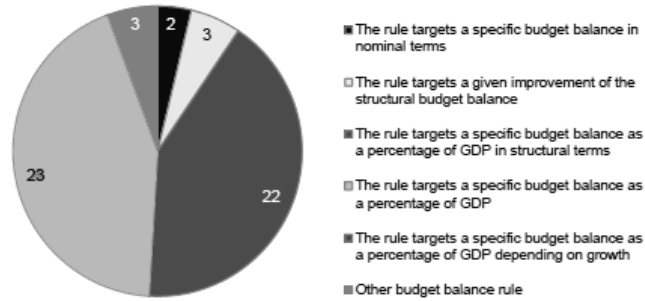
나. 도입된 재정준칙의 형태(The design of fiscal rules applied)

- 재정준칙의 최적 형태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없음
- 수지준칙
 - 수지준칙의 약 85%는 GDP 대비 비율(43%), 경기조정 혹은 구조적 측면의 GDP 대비 비율(42%) 등 특정한 재정수지를 목표로 함(그림 1.13a와 <표 A1.10> 참고)
- 채무준칙
 - 채무준칙의 거의 절반은 정부채무의 수준 또는 GDP 대비 비율의 한도를 설정
 - 거의 3분의 1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의 주어진 절감을 목표로 설정
 - 오직 14%만이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목표로 설정(그림 1.13b, <표 A2.10> 참고)
- 지출준칙
 - 지출준칙의 오직 17%만 실질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대다수(46%)는 명목 지출 한도를 설정
 - 지출준칙의 25%는 실질 지출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8%는 GDP 대비 비율을 목표로 설정(그림 1.13c, <표 A1.10> 참고)
 - 지출준칙의 절반 이하가 사회보장기금(38%)과 채무이자(33%)를 포함하지만, 약 90%가 재정지출(92%)과 의무지출(88%) 모두를 포함
 - 예산 외 기금은 지출준칙의 오직 29%만이 포함(그림 1.14와 <표 1.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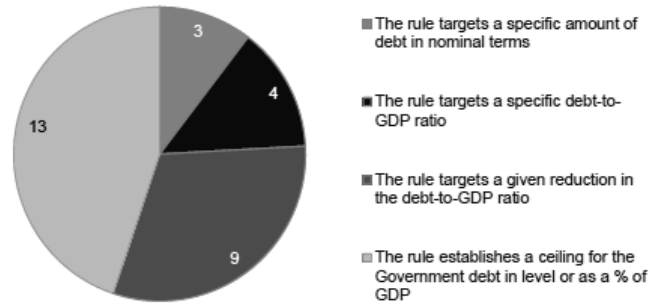
[그림 1.13] 적용된 준칙 종류(Q19~22)

(단위: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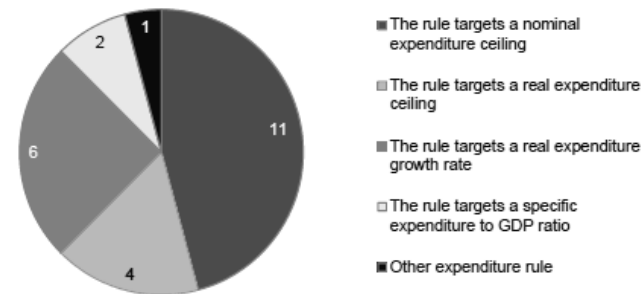
[그림 1.13a] 적용된 수지준칙 종류(Q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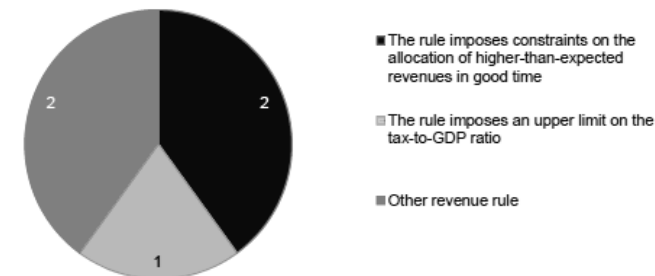
[그림 1.13b] 적용된 채무준칙 종류(Q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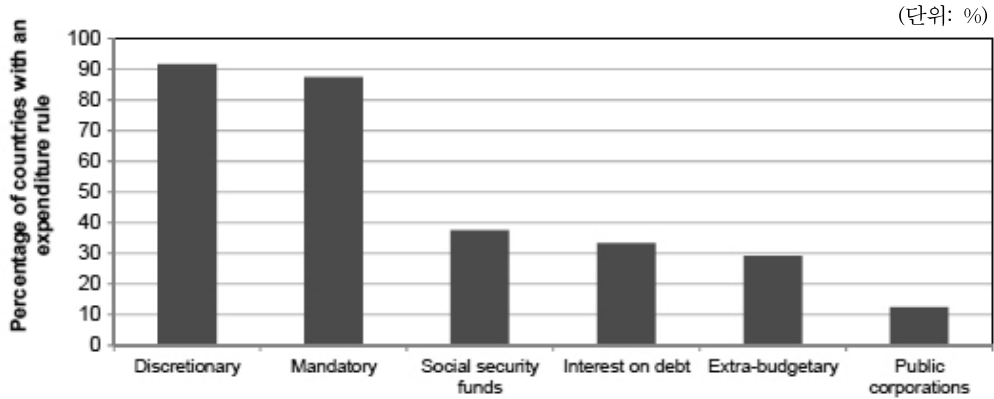
[그림 1.13c] 적용된 지출준칙 종류(Q19)



[그림 1.13d] 적용된 수입준칙 종류(Q20)



[그림 1.14] 지출준칙에 포함되는 지출 종류(Q19b)



□ 재정준칙별 유연성 반영 현황

- 거의 모든 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이 항구적이거나, 이 중 대부분은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설계됨
- 오직 지출준칙의 54%와 수입준칙의 20%만이 재정위기 중에 유연성이 허용되고 두 준칙의 약 절반이 임시적 규정임 ([그림 1.15], [그림 1.16], <표 A1.10> 참고)

[그림 1.15] 재정위기에 재정준칙의 유연성(Q19-22)



[그림 1.16] 재정준칙의 시한(Q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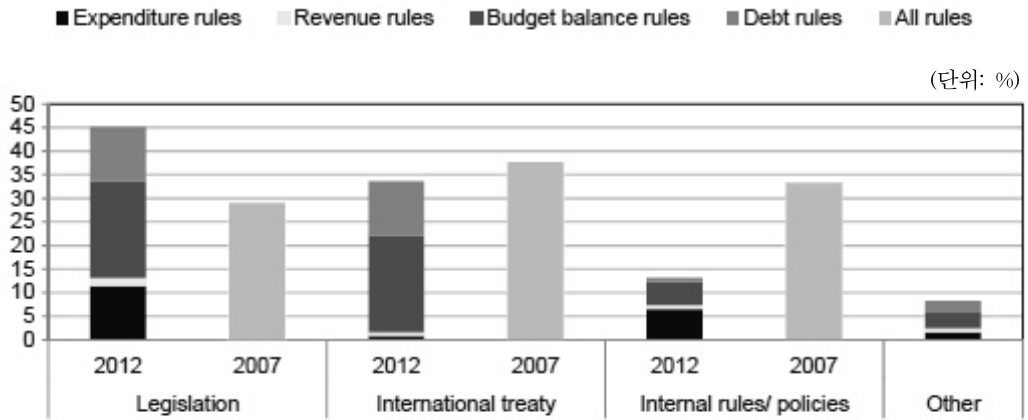
Note: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each type of fiscal rules in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The legal basis of fiscal rules)

□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에 대한 현황

- 2007년 이래로,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국제협약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이행(즉, 유럽연합의 강화된 안정성장협약과 최근의 재정협약)
- 2012년 OECD의 모든 재정준칙의 3분의 1이 국제협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보다 5%p 하락한 수치임
- 최근 5년 동안 국내법에 기반을 둔 재정준칙의 높은 증가가 있었으며, OECD의 모든 재정준칙의 45%가 국내법에 기반
- 두 추세는 (i) 회원국이 새로운 규제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EU의 상황 (ii) 유로지역 국가들에게 재정준칙의 국내법 기반을 요구하는 재정협약을 반영
- 두 변화에 따라 내부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한 재정준칙 비율의 상당한 감소가 있으며, 2007년 전체 준칙 수의 3분의 1에서 2012년 13%로 감소
- 호주의 재정준칙은 1998년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에서 요구된 Fiscal Strategy Statement의 일부분으로서 정부 공약에 근거
- 오스트리아는 둘 다 주법인 EU 안정성장협약과 오스트리아 내 안정협약에 따름(그림 1.17), <표 A1.10> 참고)

[그림 1.17]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Q19-22)



Note: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legal basis in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 물론 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이 국제협약(즉, EU)에 기반을 둔 재정준칙보다 우세
 - 이 두 재정준칙은 지출준칙과 함께 국내법에 기반
 - 지출준칙과 수지준칙은 내부 규정/정책을 압도
 - 일부 국가들은 2개 이상의 재정준칙 근거를 보고(그림 1.17, <표 A1.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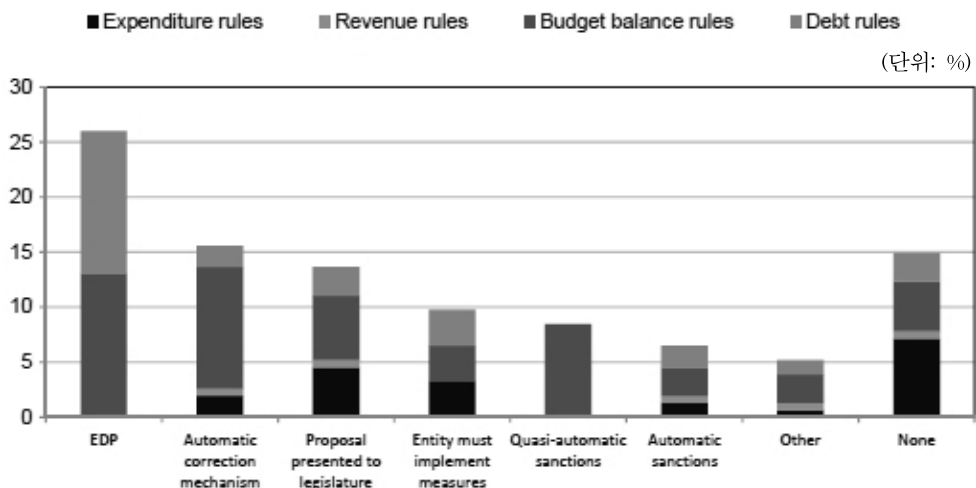
- 내부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한 재정준칙의 특징
 - 캐나다, 일본, 한국, 노르웨이 4개국은 제정법 혹은 헌법 대신에 오로지 내부 규정 및 정책(원칙 기반 재정준칙)에 근거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재정준칙의 대부분이 내부 규정 및 정책에 근거
 - 원칙 기반 접근법하에서, 정부는 재정 목표를 공개하고 기록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목표와 비교하여 재정 성과를 감시
 -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원칙 기반 접근법의 중요한 이점인데, 이는 정부가 외부 충격과 경제 여건 변화에 적응하게 함
 - 정부가 경제 변동 시기에, 법률을 개정하거나 재정준칙을 수정하기 위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시기적절하게 경제정책을 펴야 할 경우에 유리
 - 다른 한편, 제정법 기반에 대한 EU의 요건 역시 심각한 경제 하락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

라. 재정준칙 불이행 시 집행 절차

(Enforcement procedures if non-compliance with the fiscal rules)

- 재정준칙 불이행 시 강제 집행 절차가 오랜 이슈였음
- EU는 유로회원국에 무이자 보증금 또는 벌금 등 여러 집행절차를 시행
- 일반적으로, 집행 절차는 대개 수지준칙과 채무준칙과 관련되고, 지출준칙의 54%와 수입준칙의 20%는 기존 집행 절차와 관계되어 있지 않음
 - 가장 일반적인 집행 절차(전체의 26%)는 안정성장협약의 초과적자시정조치(EDP, 명목 수지준칙과 채무준칙 미이행 시)에 따른 자동교정구조(16%)와 수정요청서 의회 제출(14%)이며, 주로 수지준칙과 관련됨([그림 1.18], <표 A1.10> 참고)
- OECD의 일부 독립 재정 기관은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이 주어짐(제7장 참고)

[그림 1.18] 재정준칙의 집행절차(Q19-22)



Note: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enforcement mechanisms (including none for some fiscal rules) in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Some countries may have more than one enforcement mechanism for each fiscal rule.

Chapter 2.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Q. 25-30)

잘 설계된 중기재정계획은 이해관계자들이 연도별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정책과 예산편성을 고려하게 함

중기재정계획은 통상적으로 3~4년의 기간을 다루며, 연간 한도(ceilings) 설정 및 향후 추계 제시를 통해 다년도 재정계획의 질과 확실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OECD 회원국 중 88%가 중기재정계획을 시행한다고 보고, 2007년 중기재정계획 시행 국가가 72%였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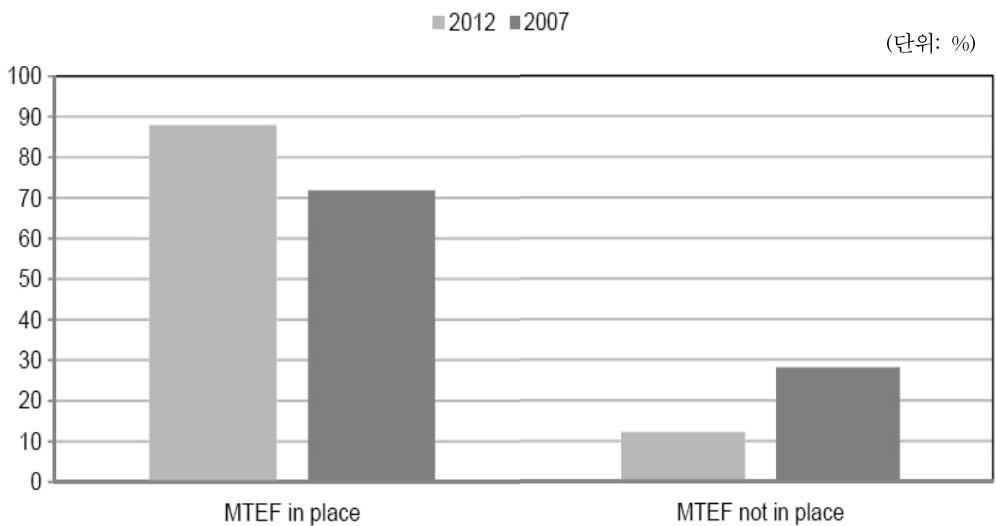
- 중기재정계획은 지속가능한 재정의 계획 및 집행을 위한 정부(특히 재무부)의 능력을 강화
 - 잘 설계된 중기재정계획은 이해관계자들이 연도별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정책과 예산편성을 고려하게 함
- 중기재정계획은 통상적으로 3~4년의 기간을 다루며, 연간 한도(ceilings) 설정 및 향후 추계 제시를 통해 다년도 재정계획의 질과 확실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추계(estimates)’란 지출 및 수입, 종합적인 재정상황이 특정한 가정하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산하는 것을 의미
 -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재정한도(fiscal ceilings)를 설정
 - 한도(ceilings)는 다년도 계획(multi-year frame)에서 각 연도별 총액 또는 정책 분야의 지출에 대해 정부가 설정하는 목표 또는 제한을 의미하며, 매년마다 개정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될 수 있음
- 중기재정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계획과 정책수립에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으로 접근하는 맥락에서 추계와 한도를 조화시킬 필요

-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은 총수입, 총지출, 수지, 채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목표에 관한 정부의 중기재정 목표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 중기재정계획은 현재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향후 3~5년간의 추계를 제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정책 선정과 절충(trade-off) 판단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중기재정계획의 세부적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기술하는 용어가 개발됨
- 중기재정계획은 다년도 특성 및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해 더욱 적합함
 - 대규모 자본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그램, 조직 개혁 및 재편과 같은 정책들은 대상기간의 확장을 필요로 함
 - 추계는 예산 결정의 중기적 영향을 명확하게 하며, 다음의 경우 특히 중요하며, 이러한 예들은 중기 재정계획이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 '게임'의 전형적인 예시
 - i) 자본 프로젝트의 운영비용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될 때
 - ii) 프로그램이 회계연도 후반에 시행되어 회계연도 초반에 완전한 비용이 공개되지 않을 때
 - iii) 프로그램 지출 영향이 현재 회계연도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후속연도에 반영될 때
- 관리자 및 정부부처(in-line ministries and agencies) 관점에서 중기재정계획은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자금조달 가능 수준에 대해 가시성을 갖게 하므로,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기 유리
 - 이러한 장점은 특히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적합
 - 많은 절감 옵션(savings options)은 모든 효과가 발현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함
 - 중기재정계획의 도입 전에는 재정계획의 시계(time horizon)가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불과, 이러한 옵션을 대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1.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적인 특징(Basic characteristics of medium-term frameworks)(Q.25~30)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중기재정계획을 시행한다고 보고
 - 조사에 참가한 국가 중 단 4개국(벨기에,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만이 중기재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음
 - 이는 2007년 중기재정계획 시행 국가가 72%였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그림 2.1], 부표 [표 A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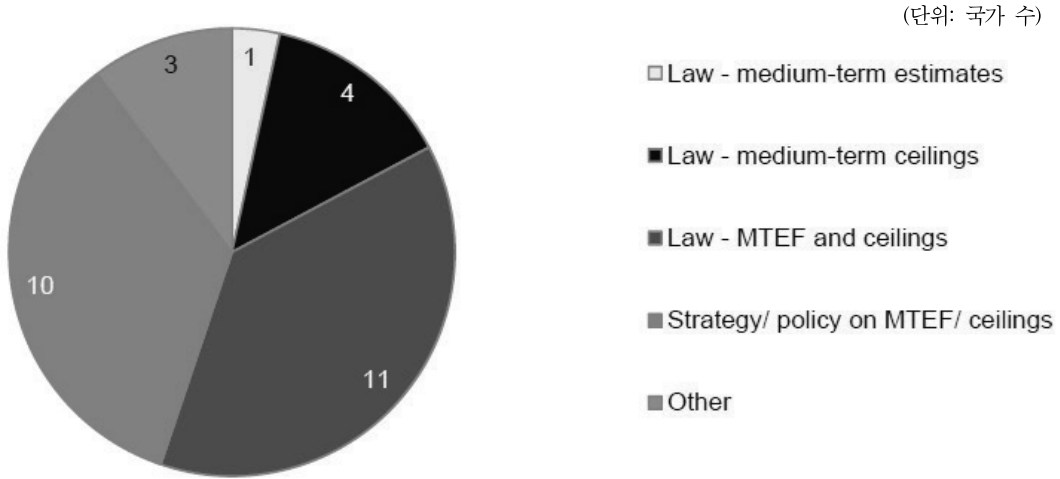
[그림 2.1] OECD 회원국 중 중기재정계획 시행국가 비율(Q.25)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with an answer to the question (33 in 2012 and 32 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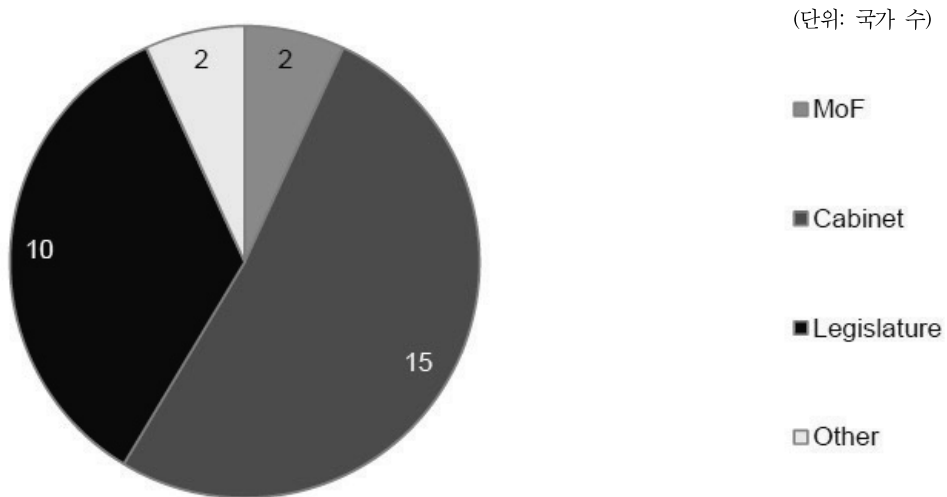
- OECD 회원국 중 절반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법률에 명시, 나머지 국가의 대부분은 정부 또는 다른 협의(arrangements)에 의해 결정된 정책 또는 전략(strategy)에서 중기재정계획을 확립([그림 2.2], 부표 [표 A2.2] 참조)

[그림 2.2] 중기재정계획의 법적근거 (Q.26)



- OECD회원국의 대부분은 내각(52%) 또는 의회(34%)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승인(그림 2.3), 부표 [표 A2.2] 참조)

[그림 2.3] 중기재정계획의 승인 주체 (Q.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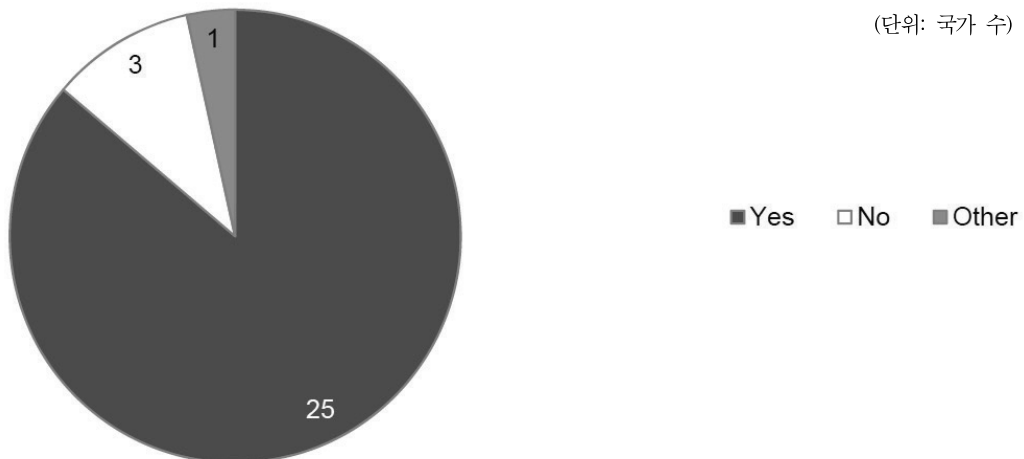
-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에서는 지출계획을 회전적(rolling)으로 시행하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주기적(periodic)으로 시행
 - 회전적 계획(rolling framework)에서는 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 1년을 추가
 - 주기적 계획(periodic framework)은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같은 특정 기간에 다년도 한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작성

[Box 2.1] 중기재정계획 운영을 위한 성공 요인

- 지출과 수입의 보수적인 전망
- 과소지출 인센티브를 부처에게 제공
- 중기재정계획의 완전한(complete) 적용 범위는 신뢰성을 향상시킴
- 간단하게 작성: 국민(의회)이 중기재정계획을 이해하여야 지지 가능
- 분야별 정책 설계 시 중기재정계획을 준수해야 함
- 미리 설정한 한도와외 편차는 매년 투명하게 조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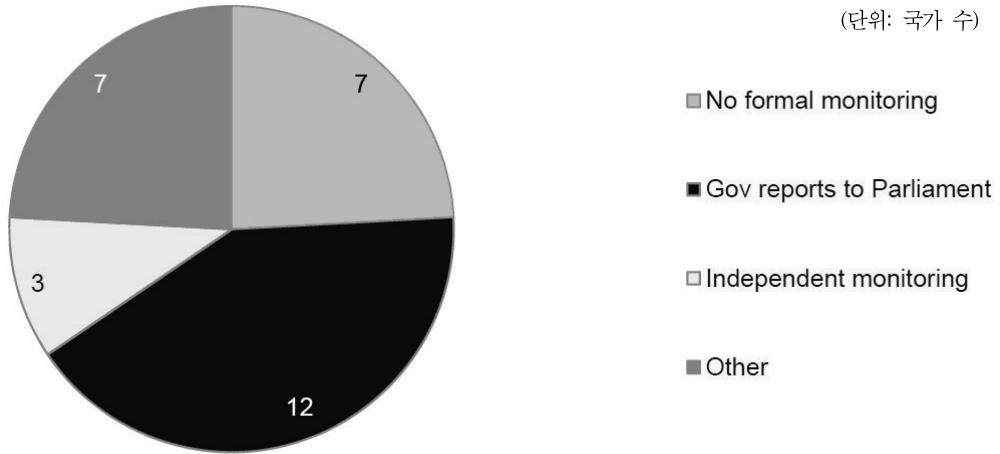
[그림 2.4]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의무지출 포함여부(Q.29)

(단위: 국가 수)



[그림 2.5] 중기재정계획의 모니터링(Q.30)

(단위: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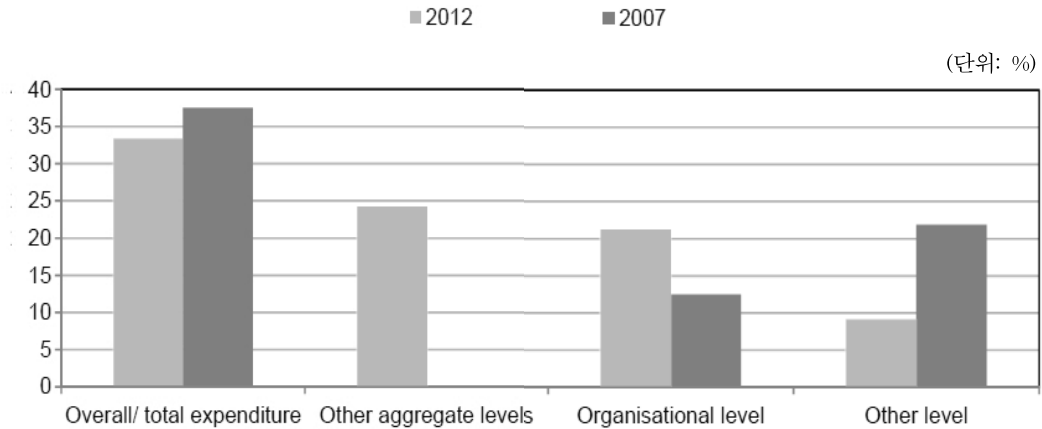
2. 포괄성과 한도 수준(Comprehensiveness and level of ceilings) (Q.27a)

- 중기재정계획의 예측가능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알맞은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고정된(fixed) 계획이 필요
 - 유연한 지출계획 대비 고정된 지출계획의 주요 장점은 다년도 지출 계획 실현에 보다 효과적인 예측가능성을 가진다는 것
 - 전체적인 한도(the overall ceiling)를 해마다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유지되는 한 목표 실현 가능
 - 고정된 계획은 세수의 자율적인 변동이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안정화에 기여
 - 소수의 국가(예: 프랑스)에서는 고정된 지출 계획을 시행하는 반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지출계획을 공식적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로 매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
 - 지출범위가 포괄적인 중기재정계획(즉, 한도의 적용을 받는 지출항목 비율이 높음)은 신뢰성이 높음
 - 광범위한 중기재정계획은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예산결정을 가능하게 함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무지출을 포함(그림 2.4), 부표 [표 A2.2] 참조)
 - 일부 국가에서는 휘발성 항목 또는 재정지원 혜택에 의해 결정되는 항목을 한도(ceilings)에서 면제(예: 영국에서는 이자지출과 사회보장지출을 면제)
- 예산의 유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한도(aggregate ceiling)를 설정하고, 항목별 지출은 전체적인 한도 내에서 매년 어느 정도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설정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전체적인 총량 또는 프로그램/분야별 단위의 지출한도를 설정

([그림 2.6], 부표 [표 A2.1] 참조)

- 호주, 칠레,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에서 총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반면,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에서는 조직별(예: 부처, 기관)로 지출 한도를 설정
- 독일의 중기재정계획은 개별항목 단위의 정부 계획이지만, 의회에서는 총량단위로 제출되어야 함
- 노르웨이는 재정정책방침에서 간접적인 지출 한도를 의미하는 조세 수준 한도와 더불어 석유수입의 사용 제한을 명시
- 폴란드는 성과주의 예산방식에 따른 지출 구분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의 22개 기능별로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

[그림 2.6] 중기재정계획의 한도수준(Levels of ceilings)(Q.27)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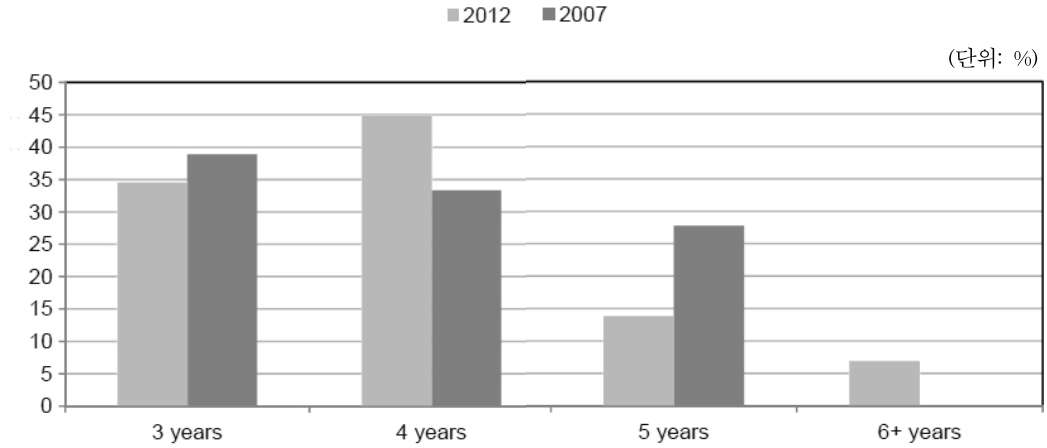
1) Some countries have more than one level of ceilings, notably Austria, Germany,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and Portugal. In such cases only one sub-aggregate level of ceiling is counted per country.

2)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with an answer to the question (33 in 2012 and 32 in 2007)

3. 한도 기간과 한도 개정의 빈도(Length of ceilings and frequency of revisions of the ceilings)(Q.27b)

- OECD 회원국은 주로 3~4년 단위의 다년도 지출 한도를 설정(그림 2.7, 부표〈표 A2.3〉 참조)
 - 대다수 회원국의 재정계획은 3년(예: 프랑스, 스웨덴) 또는 4년(예: 핀란드, 네덜란드) 단위로 설정
 - 캐나다, 그리스, 한국 멕시코에서는 5년 단위, 노르웨이와 미국은 6년 단위 또는 그 이상으로 지출한도 설정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1년마다 한도를 개정(그림 2.8, 부표 〈표 A2.3〉 참조)
 - 프랑스는 정책영역 수준에서 2~3년마다 전체적인 한도(aggregate ceilings)를 개정하는 고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시행, 네덜란드와 영국은 4년마다 한도를 개정
- 절반 미만의 국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모니터링하며, 3개의 국가에서만 독립적인 기구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모니터링(그림 2.5, 부표 〈표 A2.2〉 참조)

[그림 2.7] 한도 기간(Q.2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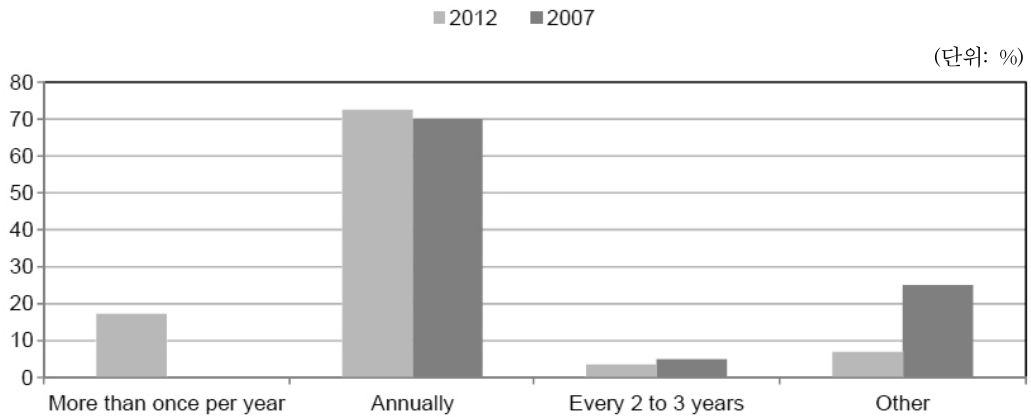


Notes:

1) Some countries have a different length for the different levels of ceilings, notably New Zealand that has 4 years on overall level (included in the Figure) but 2 years on other aggregate levels.

2)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with a MTEF (29 in 2012 and 18 in 2007).

[그림 2.8] 한도 개정의 빈도(Q.27b)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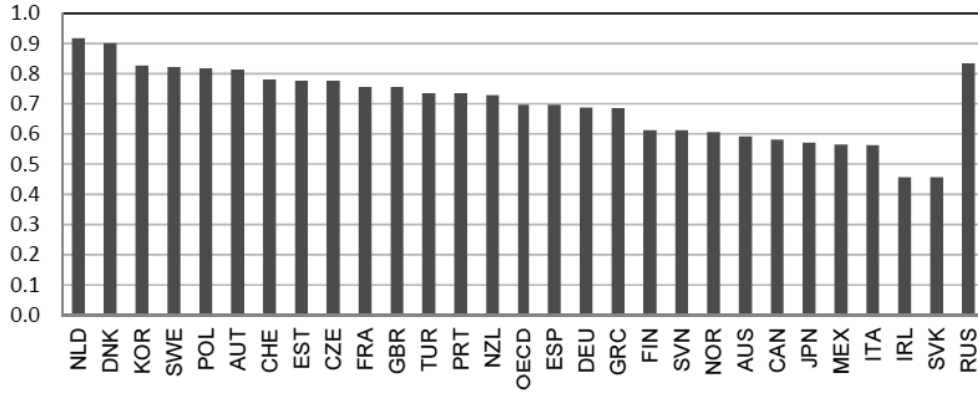
1) Some countries have a different revision frequency for the different levels of ceilings, notably New Zealand that revises annually the overall level (included in the Figure) but more than once a year for "other levels".

2)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with an answer to the question (29 in 2012; and 20 in 2007).

[Box 2.2]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중기재정계획 지수

- 위에서 언급한 제도 요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OECD에서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개발, 국가의 예산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 발달 정도를 측정
 - 지수는 국가의 중기재정계획 채택, 한도의 설계(기간, 내용 및 세부사항의 수준), 개정의 빈도, 유연성, 모니터링을 나타냄
 - 강력한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중기재정계획의 효과적인 특징이 증대된다는 논리를 반영
 - 한도 기간은 적어도 3~4년이어야 하며, 전체적인 한도와 함께 분야 및 조직 단위 한도를 포함하여야 함
 - 중기재정계획은 독립적 기구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개정의 빈도수가 적을 때 더욱 구속력 있고 탄력적
 - 지표는 재정 성과와 관련된 각 중기재정계획의 효과성을 측정하지 않음
- 지표는 다음의 변수를 포함(괄호 안 비중)
 - 국가의 다년도 지출계획 시행 여부(8.3%), 다년도 지출계획의 법적 근거(16.7%), 예산에 설정된 중기 한도 수준(11.1%), 한도의 기간(11.1%), 한도 내 의무지출 포함 여부(11.1%), 한도 개정의 빈도(12.5%), 회계연도를 지난 이월 허용 여부(12.5%), 중기재정계획 모니터링 방법(16.7%)
- 지표의 범위는 0(중기재정계획 없음)과 1(고도로 발달된 중기재정계획) 사이
- 종합지수는 중기재정계획의 성과정보 또는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및 분배의 효율성과 같은 예산성과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지수 설계에 사용한 방법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며, 지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Government at a Glance 2013(OECD)를 참조,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와 상대적인 중요성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
- 2012년 지수는 한국,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가 높게 나타남

[그림 2.9] 중기재정계획 지수



Notes:

1. This index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countries have developed a medium-term perspective in their budget process. However, it does not evaluate whether this perspective has been effective at achieving budget outcomes such as fiscal discipline and allocative efficiency.

2. The OECD average is based on 27 member countries in 2012. Belgium, Hungary, Israel and Luxembourg do not apply a MTEF. Chile, Iceland and USA did not respond.

Chapter 3.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Q.34-35, 40-47)

이번 장에서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에 대한 자본투자 사용의 현황(snapshot)과 함께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을 다룬다.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간 항목을 따로 가진 OECD 국가는 2007년 45%에서 2012년 61%로 증가함. OECD 국가의 55%가 중앙/연방 정부에 하나 이상의 PPP 담당부서를 설립했으며, 대부분 재무부 또는 재무부 산하 기관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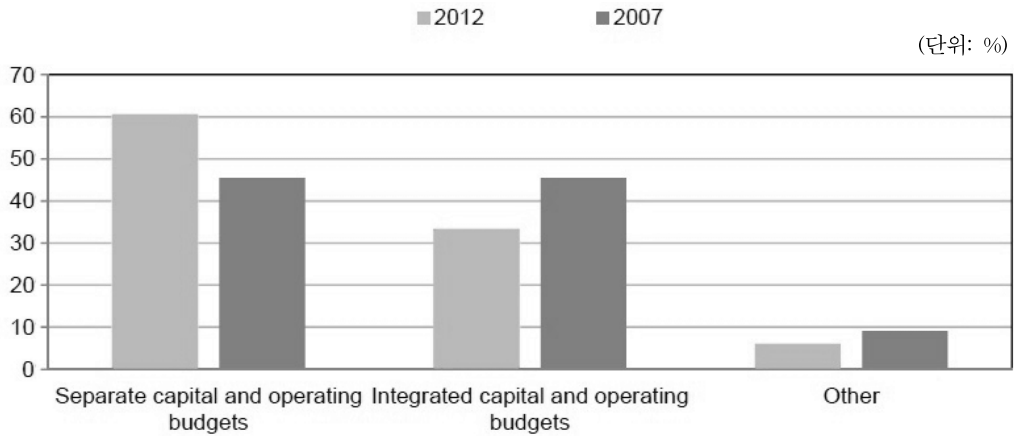
OECD 국가의 약 절반이 모든 PPP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절대적 적격성 분석(absolute value-for-money analysis)을 수행 하며, 약 2/3 국가는 특정 임계치(threshold)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1. 자본예산과 다년도 사업계획(Capital budgets and multi-year funding practices)(Q.34-35)

- 자본예산의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함
 - 자본예산은 투자예산과 경상지출예산이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분리되어 있으나 자본자산의 감가상각(depreciation) 및 대손상각(wite offs) 조절과 함께 단일 예산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 OECD 국가의 61%는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 외 대부분 국가는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을 단일예산으로 통합(덴마크와 캐나다는 예외적)
 - 덴마크의 경우, 자본비용은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에 따라 운영예산에 포함되지만,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별도의 세출법안을 통해 승인
 - 캐나다는 CBA(비용편익분석)를 위하여 정부부처에 운영 및 자본 비용, 비용이 책정된 연도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5백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연간 자본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안을 통해 승인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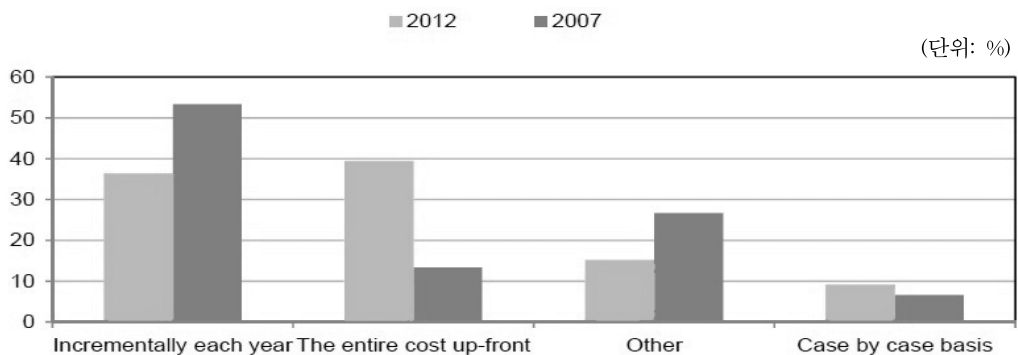
- 2007년에 비해 자본 및 운영 예산을 별도로 준비하는 OECD 국가의 비중이 45%에서 61%로 증가(그림 3.1)와 <표 A3.1> 참고)

[그림 3.1] 중앙정부의 자본예산(Q34)



- 다년도 자금지원이 요구되는 자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 형태는 매해 증액하여 자금을 제공, 총괄비용에 대해 선불형태(up-front)로 자금 마련, 사항별 기준에 의거 등이 있음
 - 다년도 사업계획의 총괄비용에 대해서 선불형태로 자금을 마련하는 국가는 2007년 13%에서 2012년 39%로 증가
 -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영국의 경우, 사항별 기준에 의거하여 자금 마련

[그림 3.2] 다년도 자본 프로젝트 자금(Q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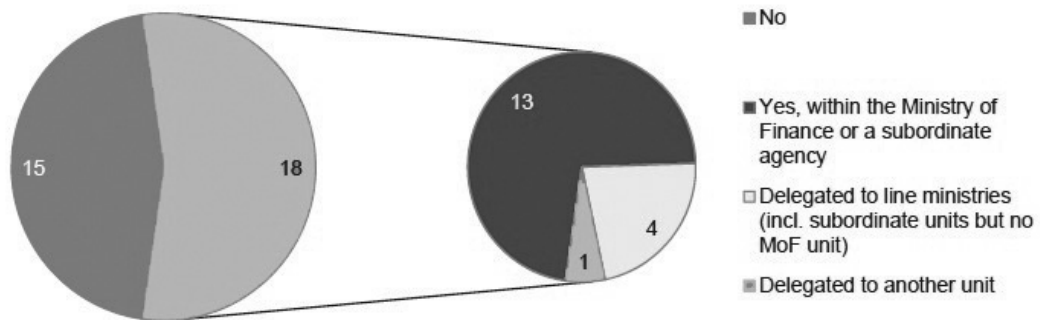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2.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Q4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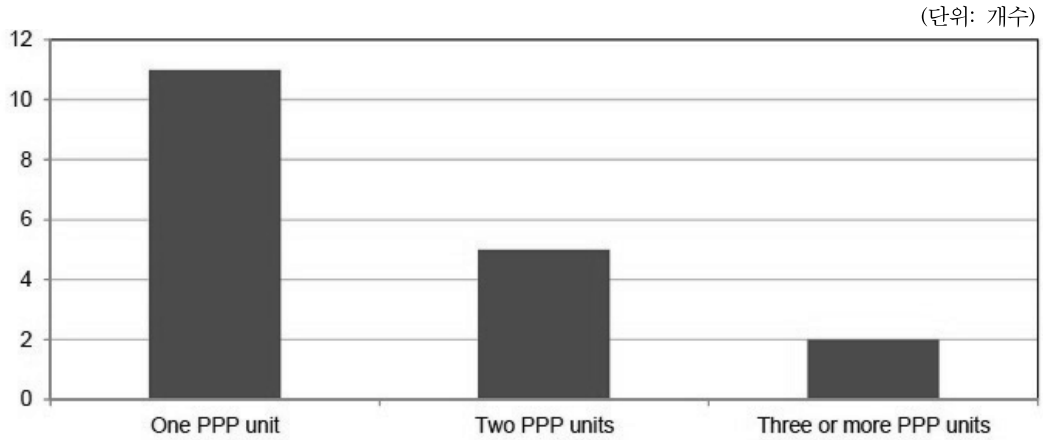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PPP 사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를 걸쳐 눈에 띄게 확대됨
 -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 영국은 전통적 공공조달사업(traditional public procurement) 이 수행하던 서비스를 점점 PPP 사업으로 추진
 - 지난 수년간, 영국의 PPP 사업은 연간 자본지출 총액의 약 12% 비중을 차지
- PPP 사업의 복잡성과 다소 드문 사용을 고려해볼 때, PPP 담당부서는 적격성 (value-for-money) 보장을 위한 비판적 평가능력을 확보하고, 관련부처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문에 응답한 33개의 OECD 국가 중 18개국(55%)이 중앙 정부에 하나 이상의 PPP 담당부서를 운영(그림 3.3과 <표 A3.3> 참고)

[그림 3.3] 중앙정부에 하나 이상의 PPP 담당부서가 있는 OECD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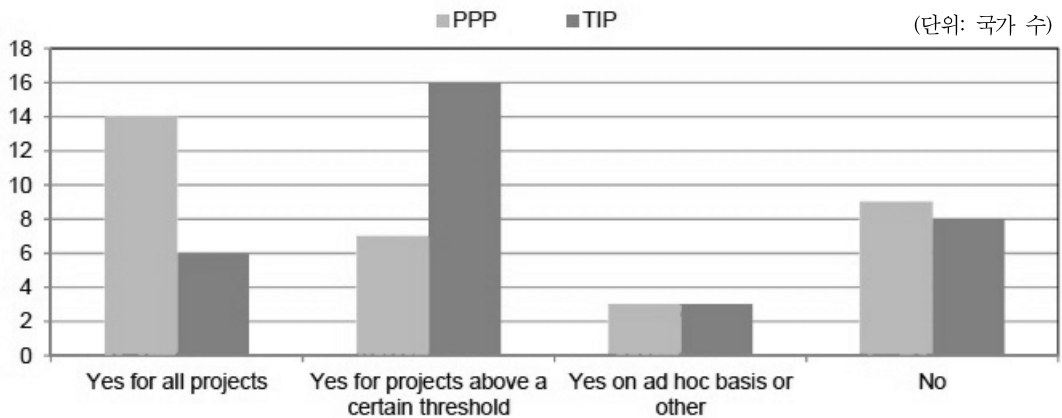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는 재무부 또는 재무부 산하 기관에 PPP 담당부서를 설립
 - 7개국(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 영국, 뉴질랜드, 미국)은 하나 이상의 PPP 담당부서를 운영하며, 이는 재무부(MoF) 외에도 일선 부처 (line ministry)에도 PPP 담당부서가 있음을 의미(그림 3.4와 <표 A3.3> 참고)
 - 4개국(칠레, 덴마크, 헝가리, 일본)은 일선 부처(line ministry)에서만 PPP 담당부서를 운영(no MoF unit)
 - 1개국(그리스)은 타기관(another body)에서 한 개의 PPP 담당부서 운영

[그림 3.4] 중앙정부의 PPP 담당부서 수(Q40a)



- 전통적 사회기반시설 사업(TIP, tradit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보다 PPP 사업에 보다 빈번하게 비용편익분석(CBA)이 요구됨
 - OECD 국가 중 42%가 모든 PPP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CBA)을 요구하는 반면, TIP 사업은 18%만이 비용편익분석 수행
 - OECD 국가 중 절반은 일정 임계치(threshold)를 넘는 TIP 사업을 대상으로만 비용편익분석(CBA) 수행
 - 약 4분의 1의 국가는 PPP 또는 TIP 사업에 비용편익분석(CBA)이 요구되지 않음 (그림 3.5와 <표 A3.4> 참고)

[그림 3.5] 자본프로젝트 승인에 CBA 요구 여부(Q42)



3. 적격성 평가(Value-for-money assessment)(Q.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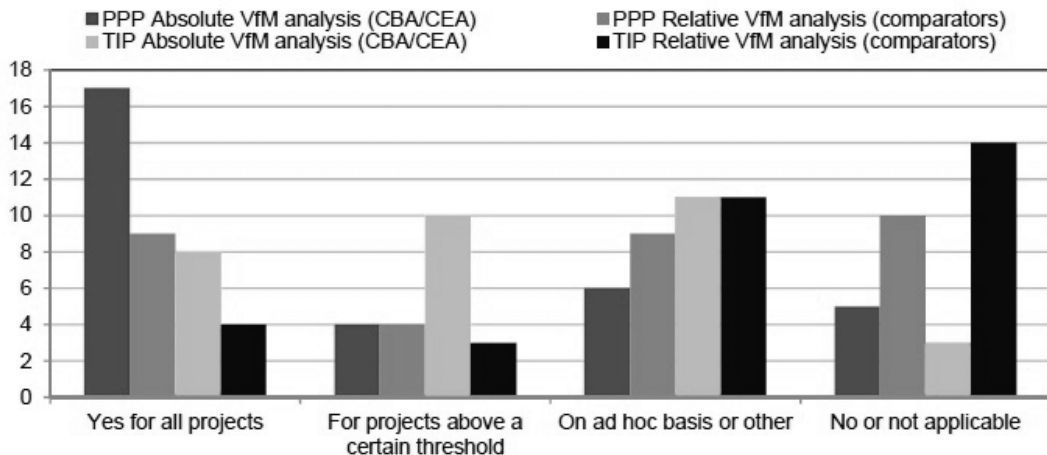
- 적격성(Value-for-money)의 개념은 정부가 프로젝트 지속 기간 동안의 양(quantity), 질(quality), 특성(feature), 가격(비용 등) 등을 예상(또는 계산)하여 이들의 최적 조합을 판단하는 것이며, 납세자인 동시에 공공서비스 수혜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시도
 - 따라서 적격성(Value-for-money)은 원칙적으로 전통적 사회기반시설 조달(traditional infrastructure procurement)에 있어서도 원동력이 되어야 함
 - 어떠한 사업이든(PPP 사업 또는 TIP 사업) 적격성(Value-for-money)을 창출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실행되어야함

- 적격성(Value-for-money) 평가에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계산하는 체계적 과정
 - 두 가지 목적이 있음: 1) 건전한 투자/결정인지 (타당성/실행가능성) 결정하기 위함 2) 다른 정책과 비교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
 - 예상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지, 얼마만큼 인지를 보기위해 총 예상 편익을 총 예상 비용과 비교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관련되어 있으나 별개의 방법임
 - 비용편익분석(CBA)은 비용과 편익이 화폐단위로 표현되며, 모든 비용과 편익을 순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 비용효과분석(CEA)은 두 개 이상의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효과)를 비교하는 경제 분석 기법이며,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건강효과를 다루는 보건 분야에 흔히 사용됨
 - 자주 사용하는 방법의 예로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질보정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이 있음
 - 그 외의 비교분석법(relative analysis)으로는 공공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s)이 있음

- 자본/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절대적 적격성 평가(absolute value-for-money, CBA/CEA) 사용(Q43)
 - 설문에 응답한 OECD 국가(33개국)의 약 절반이 모든 PPP 사업을 대상으로 절대적 적격성(absolute value-for-money) 평가(예: 비용편익분석)를 수행하며, 약 3분의 2가 모든 PPP 사업 또는 특정 임계치(threshold) 이상의 PPP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시행
 - 전통적 사회기반시설 사업(TIP)의 경우 약 56%가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ad hoc basis) 분석을 수행
 - 1개국(슬로바키아공화국)은 TIP 사업에 대해 절대적 적격성 분석(absolute value-for-money)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함
 - 5개국이 PPP 사업에 적격성 분석(CBA, CEA)이 적용 불가능(Not applicable)하다고 답하였고, 2개국이 TIP 사업에 적용 불가능(Not applicable)하다고 답함
 - 그중 스위스는 두 가지 타입의 사업(TIP, PPP)에 모두 절대적 적격성 분석(absolute value-for-money)이 적용 불가능(Not applicable)하다고 답함(그림 3.6와 <표 A3.5>, <표 A3.6> 참고)

[그림 3.6] 자본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성 분석 사용(Q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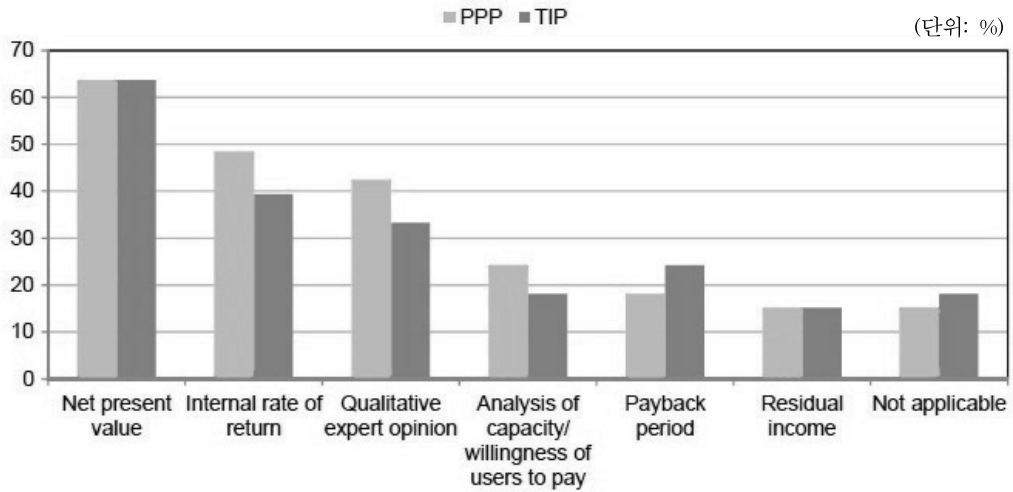
(단위: 개수)



Note: Number of OECD countries out of 33 participating countries.

- OECD 국가의 약 3분의 2가 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론을 사용, 그 다음으로는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방법론과(PPP 사업에 48%, TIP 사업에 39%) 정성적 전문가 의견(PPP 사업에 42%, TIP 사업에 33%)
 - 약 15%~18% 국가가 적격성(Value-for-money) 분석에 이러한 특정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함(그림 3.7과 <표 A3.7> 참고)

[그림 3.7] 적격성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론(Q45)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Chapter 4.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 budgeting techniques)(Q.3, 31-33)

일반적으로 예산총액자율편성제(Top-down budgeting)에서 행정부는 먼저 주어진 중기재정목표와 경제상황에 맞춰 공공재정목표(지출 및 세입수준)를 결정

이러한 총량 내에서 분야별 상한, 내각의 승인, 정책사업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상한 결정

Top-down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신중한 경제전망이 요구되며, 중기재정계획(MTEFs)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재정관리제도가 결합되어야 함

- (의의)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 budgeting)는 재정목표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편성제도로 연간 및 다년간 예산정책 결정 시 이를 준수하며 결정
 - 행정부는 먼저 중기재정목표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전체 재정목표(지출 및 세입 수준)를 결정
 - 정해진 총량 내에서 기존의 합의(commitments), 정치적 우선순위, 새로운 정책의 핵심사항을 반영하여 부분적인 상한을 설정
 - 자세한 배분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일선 부처에 위임
 - Top-down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경제전망이 요구되며, 중기재정계획(MTEFs)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재정관리제도가 결합되어야 함

- (목적) 1990년대 지출증가를 제한(constrain)하고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Top-down 제도를 도입
 - Top-down 제도는 예산결정의 순서뿐만 아니라 예산의 역할 및 책임관계까지 변화를 줌
 - 중앙예산당국(CBA)은 지출상한 결정 및 집행을 통해 총지출을 조정하고 일선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자원 할당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맡게 됨
 - CBA와 일선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

- 일선 부처는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 분야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결정을 하고 있으나 향후 지출전망을 고려하기 위해 CBA의 기술지원 및 자문이 필요
- Top-down 제도의 도입은 기존 Bottom-up 제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과정의 중요한 방향전환으로 볼 수 있음
- Bottom-up 제도는 반응적(reactive), 지출 주도의 프로세스이며 부처의 요청에 대한 제약이 없음
 - 총지출은 개별예산의 합계로 결정되며, 예산 준비 시 최종단계 이전에는 총지출 수준을 알 수 없음
 - Bottom-up 제도하에서는 해당 부처와 기관의 담당프로그램에 대한 권한(agency-specific programme ownership)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재배정이 어려움
 - 반면, Top-down 제도의 경우 일선 부처의 합동(joint-ownership)계획으로 경제상황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 재할당의 여력을 만들 수 있음

〈표 4.1〉 Top-down budgeting vs. Bottom-up budgeting

주요초점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기반 프로세스 (주도적)	지출기반 프로세스(반사적)
재무부의 역할	재정 관리 목표 및 규정 준수를 기본으로 총지출 수준 설정	세부 배정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지출별 협상
Spending Minister의 역할	상한을 정한 후 자원 재배정	예산별 제출 및 항목별 협상
경제전망	재정전망에 따른 통합 재정분석	경제전망을 무시하고 부서별 분석
효율성	간소한 프로세스, 비효율적인 관행 감소	비효율적, 협상과정에 많은 시간 소요
기간	다년간의 관점	연간 예산 책정

[Box 4.1] OECD-EU 국가의 예산체계 요건(Budgetary framework requirements)

- EU 국가들의 재정운용 틀(fiscal framework)의 주요 요소는 (1) 수치적 재정준칙(numerical fiscal rules), (2) 독립적인 재정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3) 예산 계획의 준비, 승인, 실행을 관리하는 예산절차(budgetary procedures)
 -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다년도 수치적 재정준칙(multi-annual numerical fiscal rules)**은 EU가 규정한 재정적자 및 부채 한도, 그리고 국가의 중기재정목표를 고수해야 함
 - 유로존 국가들의 준칙 이행이 **독립적인 재정기관(IFI,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에 의해 감독 및 분석 되어야 함
 - 독립적 재정기관은 국가의 재정당국에 대하여 기능적 자주성을 갖거나 구조적으로 독립적
 - 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안 편성을 위해 거시경제 전망을 생산
 - **국가의 예산절차(budgetary procedures)**¹⁾는 아래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함
 - 거시 경제 및 예산 전망을 준비, 평가하며, 방법론·가정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발표
 -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중기재정계획(최소 3개연도)이 주요 세입세출 전망 및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지표의 투명한 목표(transparent targets)를 제공. 매년 예산법률은 중기예산체계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예산의 자금(extra-budgetary funds)을 매년 예산과정의 프레임워크 및 중기 예산계획에 제시하고, 세출 및 주요 우발부채를 표시해야 함
 - 공공회계시스템(public accounting system)이 일반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을 커버하며, ESA95 기준에 근거하여 발생주의(accrual) 데이터를 생산. 또한 내부 통제 및 독립적 감사를 받음. 현금주의 재정 데이터는 중앙 및 주 정부 기준으로 매월 발표, 지방정부 기준은 분기별 발표
 - 2011년부터 재정정책, 거시경제 불균형, 금융 분야 이슈, 구조적 개혁 등에 관한 EU 차원의 논의가 매년 상반기에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²⁾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EU 및 국가차원에서 우선시해야 할 조치에 관해 폭넓은 가이드를 제공
 - EU 회원국(EU Member States)이 경제 및 구조적 정책(안정성 및 수렴 프로그램, 국가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별 프로그램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는 유럽회기(European Semester) 종료 시점에 국가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함
- EU의 투팩(two-pack) 규정³⁾은 추가적으로 EU 회원국이 10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유로 그룹에 예산안초안과 독립적인 거시경제 전망(예산안 작성에 근거한)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
-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예산안 초안이 안정성장협약(SGP) 및 유럽회기의 제안에 의거하고 있는지 검토
- 안정성장협약(SGP)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예산안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는 EU 회원국들에 알려 동료 간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하도록 함(이는 유로그룹에서도 논의될 수 있음)
- 유럽회기(European Semester)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5,6월)과 예산안 초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11월 30일까지)이 하반기(국가 회기, 'national semester') 국가 의회에서의 토론(national parliamentary debate)을 가이드
- 국가 의회는 예산을 12월 말까지 채택해야 함

주: 1) 두 가지 입법 수단(legislative instruments)에 근거: (1) 회원국의 예산체계 요건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11/85/EU (2011/11/08), (2) 예산안초안 평가 및 감독과 EU회원국의 과다적자 시정조치를 보장하는 공통규정 Regulation 473/2013 (2013/05/27)
2) 위원회규정(EC) No 1466/97을 수정한 예산의 감시 및 경제정책의 감시와 공조 강화 규정인 Regulation(EU) No 1175/2011 (2011/11/16)
3)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예산안초안 평가 및 감독과 EU회원국의 과다적자시정조치를 보장하는 공통규정 Regulation(EU) No .../2013, ref also COM(2011)821 final

1. 중앙예산당국의 역할(Role of the CBA)(Q.1-3)

- (Location of CBA) CBA는 정부예산과정의 허브로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재무부 또는 경제부에 편제되어 있음

- CBA는 재무부의 한 부서, 일반적으로 예산과(Budget Department)이거나 재정부 내 여러 부서의 결합(combination)으로 존재
 - CBA가 예산과에 위치한 국가: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노르웨이의 경우 CBA를 예산과와 경제과로 분리하였고, 폴란드 CBA의 경우 재정부의 5개 부서로 구성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의 CBA는 여러 부처에 분리되어 있음
 - 호주는 재무부와 금융 및 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에 분리되어 있음
 - 캐나다는 재무부와 재무위원회 사무국(the Treasury Board Secretariat)에 분리되어 있음
 - 아일랜드는 재무부와 공공지출 및 개혁부에 분리되어 있음
 - 미국 CBA의 경우 대통령실에 속해 있으며, 벨기에 CBA는 연방공공서비스예산 및 관리조정부(the Federal Public Service Budget and Management Control)에 위치
- (Head of CBA) 대부분 OECD 국가들의 CBA 수장은 고위 국가공무원이며, 정권이 바뀌어도 CBA 수장 자리를 유지
- 반면 칠레,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는 CBA 수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주로 CBA 수장도 바뀜
 - 덴마크의 경우 재정부 내에 명확하게 정의된 CBA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과 사무차관(the Permanent Secretary) 외에는 CBA 수장이 없음
- (Responsibility of CBA) CBA는 예산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일선 부처와의 협상, 추가경정예산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CBA의 일반적인 책무: 예산편성지침 작성, 행정부 예산안 작성, 일선 부처와 협상, 추가경정예산 산출, 일선 부처에 대한 상한결정 그리고 중기 또는 연말결산보고서 작성
 - 다른 기관 또는 단체(공공 또는 민간)와 공동책임을 지는 업무: 재정전망을 위한 방법론, 일선 부처의 성과 모니터링 및 국민과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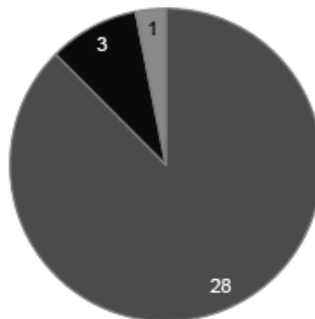
2. 예산편성지침(Budget Circular)(Q.32)

- 모든 OECD 국가들은 절차적 정보 및 정책-지향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사용하며 이는 정부기관들이 그들의 지출안을 준비하도록 가이드함
 - OECD 국가 중 50%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 추정 시 사용된 경제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80%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구체적인 지출의 상한, 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개요와 같은 정책-지향적 정보를 전달
 - 예산편성지침은 제도로서 잘 확립되었으며 '07년~'12년 기간 동안 예산편성지침에 더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국가들이 증가

[그림 4.1] CBA의 위치(Q.1)

■ Ministry of Finance/Economy ■ CBA is split ■ Other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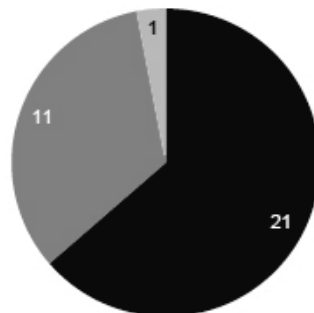
(단위: 국가 수)



[그림 4.2] CBA의 수장(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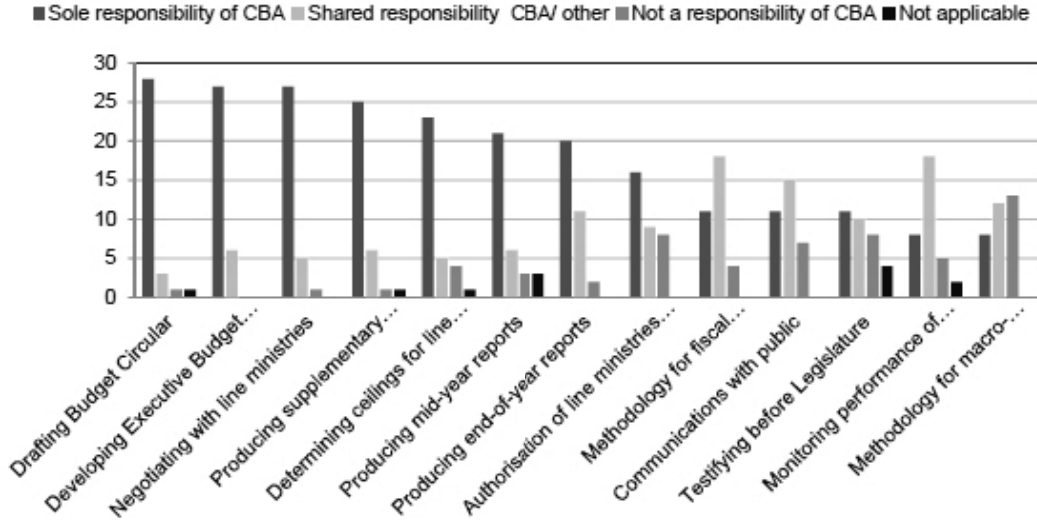
■ Senior civil servant ■ Political appointee ■ Other

(단위: 국가 수)



[그림 4.3] CBA의 책임(Q,3)

(단위: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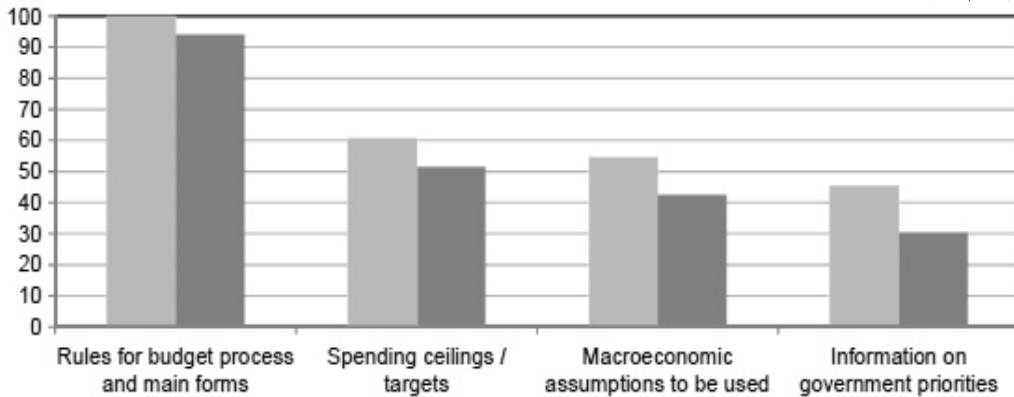


Note: Number of countries with different type of responsibilities, out of 33 participating OECD country in the 2012 Budget Survey.

[그림 4.4] 연간 예산편성지침의 내용 - 선택된 항목(Q,32)

■ 2012 ■ 2007

(단위: %)



3. 일선 부처 예산요구서의 상한 수준(Level of ceilings for the line ministries initial budget request)(Q.31)

- 정부는 연간예산의 총지출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전망 및 재정목표도 고려해야 함
 - 먼저 총지출을 배정하기 위해 예산상한을 부처별(chapter) 수준, 다른 통합 수준(섹터, 프로그램 또는 조직) 또는 항목별(line-item) 수준(의회에 승인을 받는 지출항목 중 가장 작은 단위)으로 결정
 - 예산상한이 확정이 되면 상한은 예산과정 전체에 걸쳐 모든 내각(cabinet) 멤버에게 구속력이 있는 Rule로 규정됨
 - 섹터별 상한은 주요정책 분야(농업, 의료, 국방 등)에 다양하게 배정되며, 이는 정부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 이전 정책 공약,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항목별 상한은 일반적으로 bottom-up 제도와 관련이 있고 재무부의 통제를 받음
 - 예산 상한이 정해지는 항목이 상세히 나누어질수록 Top-down 제도는 더 약해지며, 재무부의 개입과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부처의 전문성이 또한 약해질 수 있음
- Top-down 제도와 Bottom-up 제도의 예산체계는 두 제도의 근본적인 예산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움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의회에 제출되는 항목별 예산은 전체 합계의 형태
 - (프랑스) 180개 예산항목(프로그램 수준)만 존재하며 이는 32개 정부의 미션들을 모두 포함
 - (스웨덴) 27개의 광범위한 지출분야에 대한 상한과 각 분야별 하위항목에 대한 상한을 설정
 - 지출상한은 운영비용, 투자, 이전지출 및 보조금 등 특정 (경제)지출 카테고리를 규정할 수 있음
 - 실업급여와 같은 재정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안정화장치 역할을 하며 경제 및 인구구조적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상한에서 제외됨
- '07년 이후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Top-down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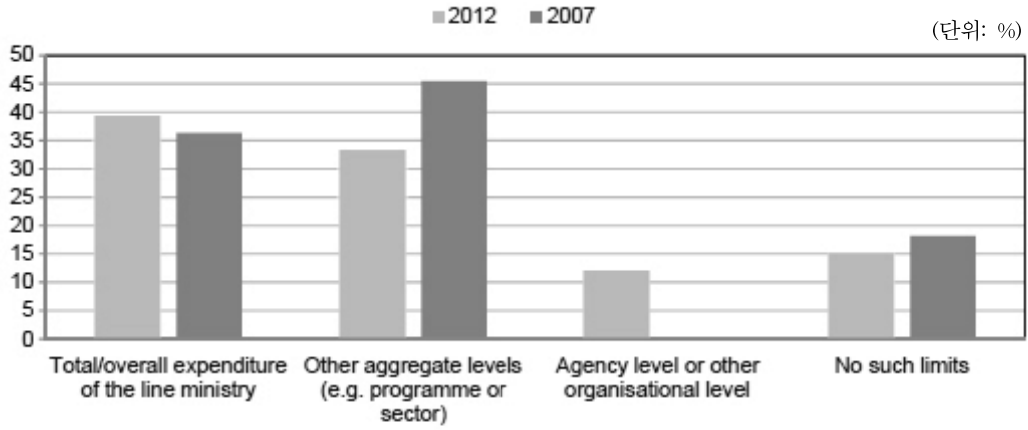
상한을 일선 부처 수준까지 정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더 세부적인 수준까지 정하는 국가의 수는 증가하지 않음

- OECD 국가 중 5개 국가(호주,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미국)는 예산안 초안에서 일선 부처별 한도를 설정하지 않음
- OECD 국가 중 39%는 부처별 상한만 설정, 33%는 하위단계인 섹터 또는 프로그램 수준으로 상한 설정, 12%는 기관 및 기타 조직수준의 상한을 설정
 - 일부 OECD 국가들은 지출 유형 중 일부에만 상한을 부과
 - (룩셈부르크) 일부 지출의 카테고리(예: 여행비용)에 대해 특정 한도를 설정
 - (뉴질랜드) 정부가 새로운 지출 할당수준을 정하여 특정분야나 프로그램에 배정할 수 있음(예: 의료 또는 교육)
 - (영국) 정부는 지출검토의 일환으로 부서별 지출 중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변동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큰 지출의 예상 수준에 대해 발표
 - (칠레) 각 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안 초안을 제공하고 CBA의 평가 후에 각 기관은 정해진 상한에 따라 관할 프로그램을 조정

- OECD 국가의 예산논쟁은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짐
 - 논쟁이 되는 이슈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논쟁의 해결은 공무원 계층의 상위단계, 최종적으로 정부 수반단계에서 이루어짐
 - 상위레벨의 의사결정자의 선호는 실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하위레벨의 협상단계에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이 강할수록 재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타 부서와의 협상에서 강한 협상력을 가지며, 제도적으로 부여된 강력한 역할에 의해 재무부 장관이 예산 논쟁의 최종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음
 - 재무부 장관의 이러한 개별적 권한이 부족할 경우 논쟁 발생 시 내각 또는 위원회의 집단 메커니즘(collective mechanisms)으로 해결 가능

- OECD 국가들마다 분쟁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권한은 다르며 예산과정에서 논쟁 해결을 위해 집단적인 권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OECD 국가 중 39%는 내각에 의해 예산배정의 논쟁(Allocation disputes)을 해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재무부 장관이 해결하는 7개 국가(덴마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와 정부수반(대통령 또는 수상)이 결정하는 7개 국가(호주, 칠레, 프랑스, 그리스, 일본, 터키 및 미국)로 동등하게 나누어져 있음
 - 그 외 국가들은 다자 간 분쟁해결 방법 또는 장관회의 등에 의해 예산논쟁을 해결
 - (캐나다) 총리와 재무부장관의 합의에 의해 해결
 - (핀란드) 의회기간 동안 총리, 재무부 장관, 4명의 기타 정부부처 장관(government parties' chairpersons)의 회의로 결정
 - (아일랜드)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경우에 따라 정부수반, 내각, 재무부 장관에 의해 각각 해결
 - (벨기에) 예산 논쟁 발생 시 장관급 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로 사안을 넘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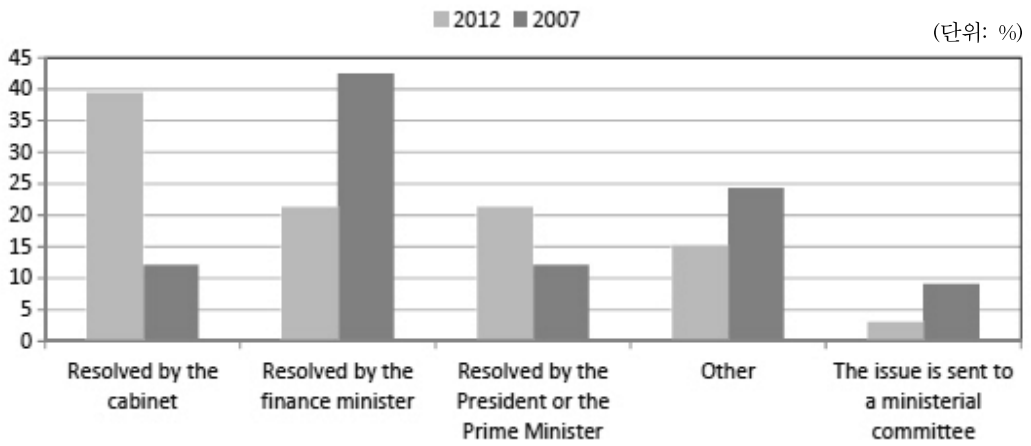
[그림 4.5] 일선 부처의 예산초안의 상한(Q.31)



Notes:

- 1) Some countries have more than one level of ceilings, notably Chile, Denmark, Germany, Italy, Korea, Luxembourg, Poland and Slovenia. In such cases only one sub-aggregate level of ceiling is counted per country.
- 2)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그림 4.6] 예산과정에서 부처 간 논쟁 해결(Q.33)



Chapter 5. 중앙집권적 투입 통제의 완화

(Relaxing central input controls)(Q.50, 70-84)

이번 장에서는 중앙에 집권화된 투입 통제 제도의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항목의 수, 총괄예산의 범위(lump-sum appropriations),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한 행정부의 재배정, 미사용 예산의 이월 및 미래예산으로 부터의 차입 등에 대해 살펴봄

예산 관리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효과적·효율적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많은 OECD 국가들의 예산 개혁에서 나타나는 특징임

- 많은 OECD 국가들의 예산 개혁에서 '투입(input) 통제 완화'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의 유연성* 및 자율성 제고를 통해 정책목적을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
 - * 여기에서 유연성(Flexibility)은 '조직이 의회 승인 예산(appropriations)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됨. 단, 행정부(전체 정부), 일선 부처(line ministry), 정부기관(agency) 수준에서의 유연성은 각각 구분되어야 함
 - (전제) 이는 개별 정부조직의 장이 그들의 정책·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의미) 중앙예산당국이 하향식(top down) 예산 제약을 설정(중기지출한도에 근거하기도 함)하고 조직들은 자금 사용의 책임을 짐
 - 이러한 권한의 확대에는 더욱 큰 책임과 성과관리의 활용이 따름
 - (이점) 새로운 우선순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정보를 고려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투입뿐만 아니라 결과와 산출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치인들의 인센티브를 강화함
- 이 장에서는 유연성 및 기관의 자율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함
 - 예산항목의 수, 총괄예산(lump-sum appropriations), 정부 조직의 프로그램 간 예산 자원 재배정, 예산 이·전용 및 이월 등

[Box 5.1] 공공기관(Agencies)과 분권화된 관리

- (정의) 공공기관(agency)이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지고 주무 부처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정부 조직임
- (종류) 공공기관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
 - 책임행정기관(departmental agency): 부처의 일부로서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내부 거버넌스가 일반적으로 주무 부처의 내부 거버넌스와 구분됨
 - 공법적 공공기관(public law administration): 공법에 의해 설립되고 공법하에서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짐. 이사회(governing board)가 꼭 있을 필요는 없음
 - 사법적 공공기관(private law administration): 사법에 의해 인정된 법인, 신탁(trust), 기타 형태 등 다양한 조직으로 구별됨. 보통은 이사회가 있으며, 관련 부처의 장은 간접적인 통제만 함
- (현황)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공공기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독립된 공공기관의 수가 상당히 증가함

1. 예산 항목의 수(Number of line-items)(Q.5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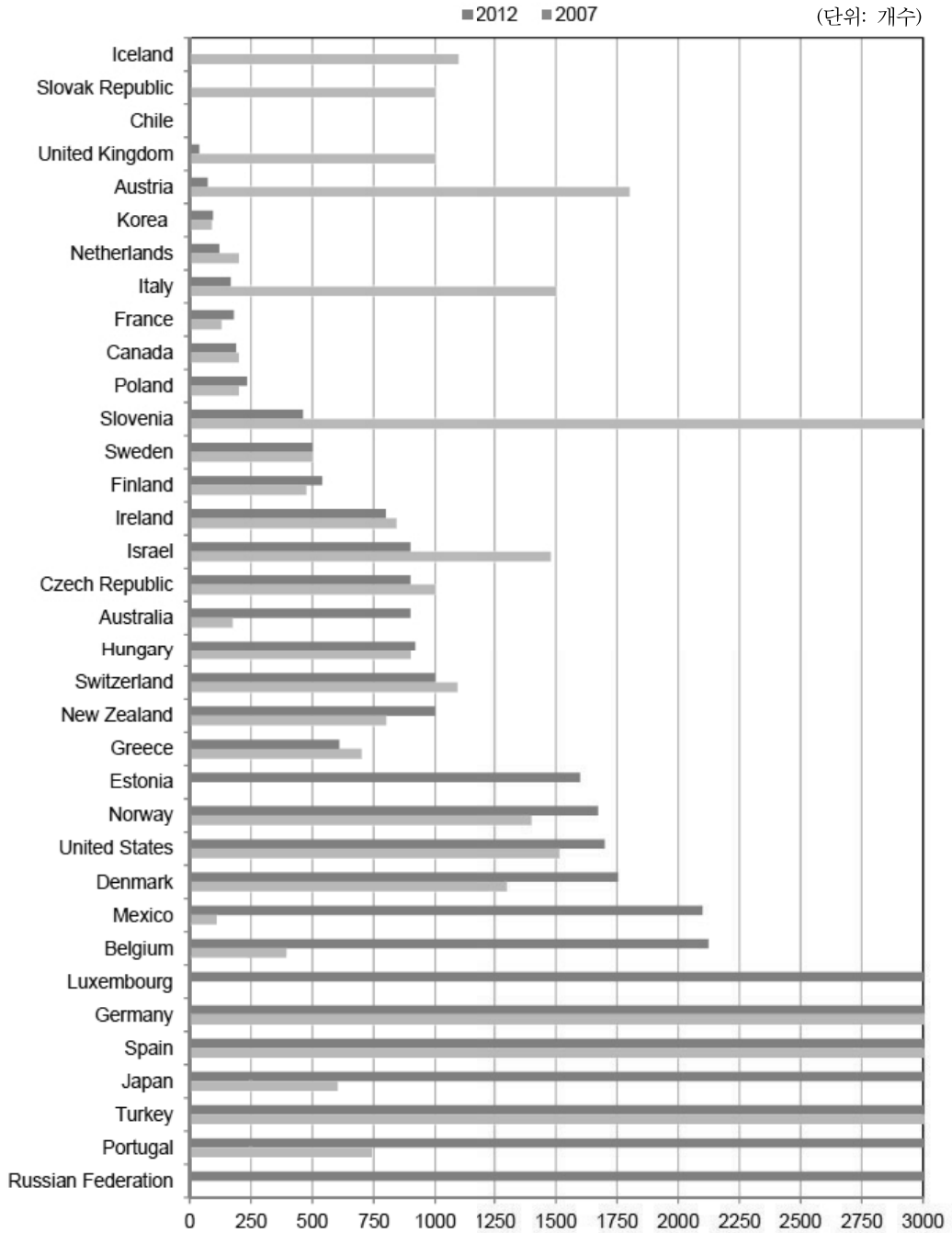
- (개요) 예산항*의 수는 예산 집행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 정도 대한 지표를 제공함
 - * 예산항(line item appropriation)은 지출의 가장 세분화된 수준으로 입법부에 의해 권한이 주어짐. 예산항의 수준은 재정 투입(financial input)처럼 구체적이거나, 프로그램 또는 기관 수준에서 더 통합될 수 있음
- 기관 예산항의 수는 총괄예산(lump-sum appropriations), 효율성 제고로 인한 경비 절감분 보유 권한 등과 관련됨
- 예산항이 많이 존재하면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 특정 투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리의 유연성을 제한함
 - 예산항이 과도하게 존재하면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설계된 다른 관례(top-down budgeting 등)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중앙에 집권화된 투입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투입에서 결과로 초점이 옮겨져, 입법부가 절차 감독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함

- (현황)
 - 국가별로 운영되는 예산항의 수(그림 5.11 참고)
 - (300개 미만)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10개국
 - (300개~1,000개) 호주, 체코, 그리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 11개국
 - (1000개~2000개) 덴마크,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미국 등 4개국
 - (2,000개 이상) 스페인(16,700개), 일본(23,000개), 터키 및 포르투갈(4만개 이상) 등 8개국
 - 국가별 예산항 수의 변화
 - (예산항 수 축소) 2007년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이 예산항의 개수를 상당수 축소한 것임
 - (예산항 수 확대) 반면 벨기에,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은 예산항의 수를 상당수 증가시킴
 -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예산항 개수를 2,417개에서 4,732개로 늘리는 데 기여

- 예산항의 수와 유연성 수준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수의 예산항은 예산 재배정, 이월, 기타 투입 통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을 통해 유연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다양한 업무에 배정된 직원들에 대한 집권화된 통제가 있으며, 이는 투입 조합(input mix)을 운용하는 관리자들의 권한을 제한함

[그림 5.1] 국가별 예산항목의 수(Q50a)



Notes: Iceland did not provide data in 2012. The following countries have more than 3000 line items: Germany (6000), Japan (23000), Luxembourg (4400), Portugal (46000), Spain (16700), Turkey (40000). Russian Federation has 12000 line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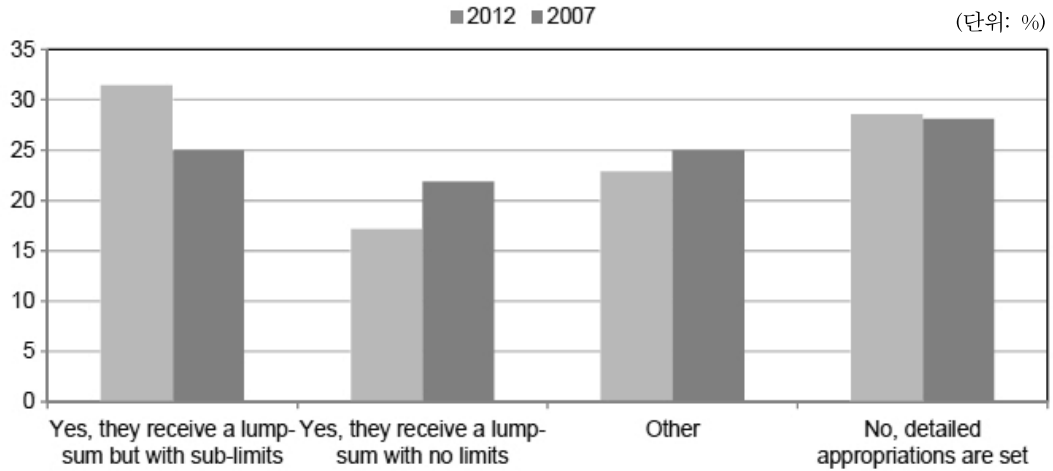
2. 총괄예산(Lump-sum appropriation)(Q.70a)

- (개요)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 조직은 공공 자금의 재배분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총괄예산편성*을 받을 수 있음
 - * 총괄예산은 자본지출¹⁾ 또는 경상지출²⁾에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총괄예산의 적용 자체가 반드시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양질의 성과, 책임성 제고, 그리고 예산 낭용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관의 목표, 적절한 절차, 효과적인 평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 (현황) 201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70%가 경상지출에 총괄예산편성을 적용([그림 5.2], [그림 5.3], <표 A5.2>, <표 A5.3> 참고)
 - 이들 중 11개 국가*는 총액 예산에 한개 이상의 세부 한도(sub-limit)를 사용함
 - *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 또한 슬로베니아는 인건비에 세부 한도를 정해 부분적으로 총괄예산편성을 사용

1)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고정 자산 구매와 관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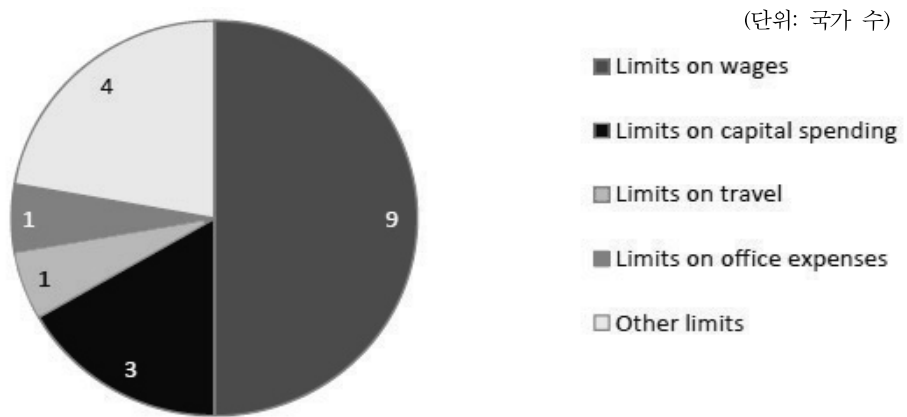
2) 경상지출(operating expenditure)은 단위사업(activity)이나 프로젝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비용과 관련됨

[그림 5.2] 경상지출에 대한 기관들의 총괄예산편성 여부(Q70)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그림 5.3] 총괄예산에 대한 세부 한도(Q70b)



Note: Some countries practice more than one sub-limit on the lump-sums.

3. 세출예산의 재배정(Reallocation of appropriations)(Q.72)

- 대부분의 OECD 회원국(33개 중 31개)은 부처에 몇몇 제약하에서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자금의 재배정을 허용([그림 5.4], <표 A5.4> 참고)
 - 2012년 기준, 해당 국가비율은 2007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
 -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의 연내 재배정은 의회를 통해 이루어짐
 - 기관들이 매우 자치적이며 경상비지출에 대해 자유롭게 투입 조합(input mix)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재배정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은 편
- 17개국에서 재배분에 대한 제약들은 지출총량을 제한하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그림 5.5], <표 A5.4> 참고)

국가	지출총량 제약
덴마크	○ 일선 부처에 연간예산에 주석을 다는 형태로 운영 세출예산(operating appropriations) 간 자금 재배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빈번히 발생
스페인	○ 일선 부처는 법에 의해 성립되는 총량제한에 따라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음
터키	○ 세출예산은 예산항목 총량의 20%까지 재배정될 수 있음
슬로베니아	○ 일선 부처는 배정된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들의 권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재배정을 할 수 있음 ○ 단, 급여와 다른 예산항목 간 재배정은 허용되지 않음 ○ 예산담당자들은 그들의 권한하에 있는 동일한 수준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항목 간 재배정의 권한을 부여받음
스위스	○ 총량제한이 있는 재배정은 오직 3가지 특정 영역에서 허용되며, 다음 내용들을 포함 ○ 인건비와 자문비 간(인건비의 최대 5% 또는 5백만CHF) ○ 총괄예산이 있는 기관의 경상예산과 투자예산 간(경상비의 최대 5% 또는 5백만CH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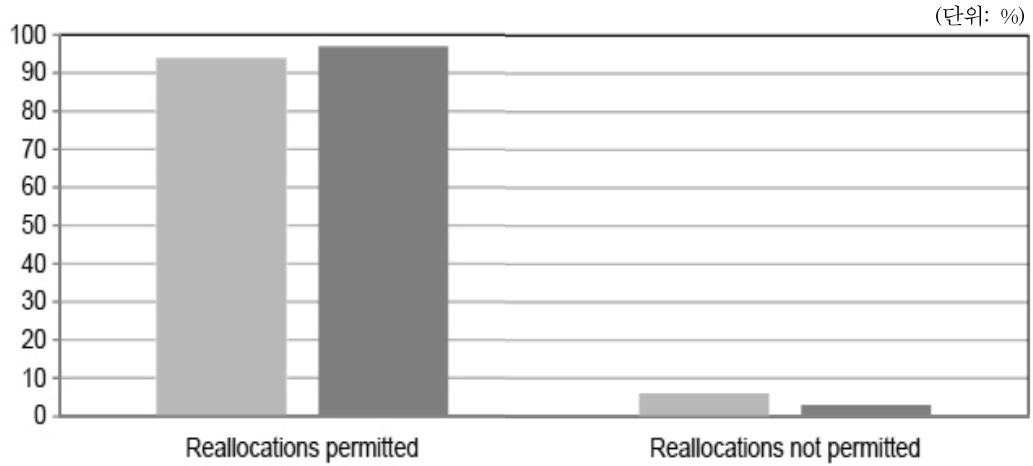
- 몇몇 국가는 행정부에게 폭넓은 재배정 권한을 부여하나 절차상 제약이 있음(그림 5.6), <표 A5.4> 참고)

국가	절차 제약
영국	○ 몇몇 고정된 프로그램 예산(ring-fenced programme budgets)이 있고 공공서비스 보호를 위해 일선업무에서 후선업무에 이르기까지 재배정에 대한 통제 존재
캐나다 핀란드	○ 정상비지출, 자본지출, 이전지출 간 재배정은 의회승인의 대상
체코	○ 재무부는 일선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예산항목 10% 미만의 재배분에 대하여 승인해야 함 ○ 예산위원회는 10% 초과 재배정을 승인
뉴질랜드	○ 일선 부처와 재무부는 공동으로 세출예산 간 재배정을 승인할 수 있으나,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 재배정은 내각의 승인 필요
독일	○ 재배정은 주요 예산 그룹들 간에, 그리고 예산노트의 경우에 행해질 수 있음 ○ 예측하지 못했으나 중요한(설득력 있는) 요구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승인을 통해 재배정 가능
프랑스	○ 프로그램 내 재배정은 총량상한(payroll ceiling)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부서 내 프로그램 간 재배분은 재무부의 승인 충족 시 세출예산의 2% 내에서 허용 ○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집행에 있어 절차 엄격)
아일랜드	○ 의회가 일정 수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배정에 대해 승인하여야 함
멕시코 슬로바키아	○ 재무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재배정에 대한 제한은 없음

- 2007년에 비해 재무부는 재배정 체계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그림 5.6), <표 A5.4> 참고)
- 재무부가 재배정 승인과 관련될 때는 사전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 재배정을 위한 의회승인은 감소되지 않음

[그림 5.4] 재배정 허용 여부(Q7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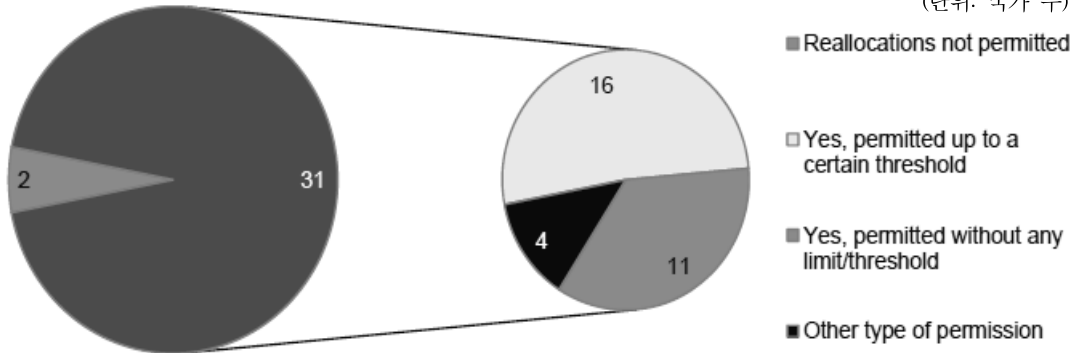
■ 2012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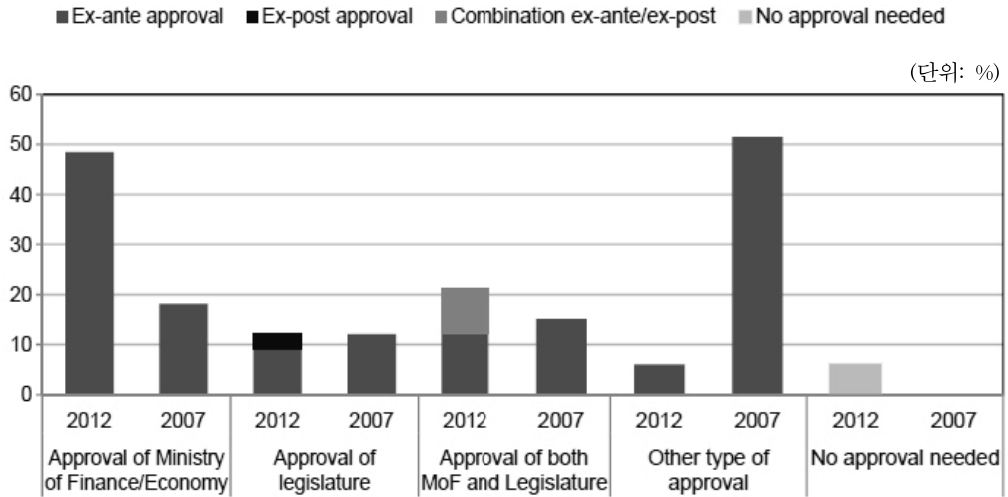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그림 5.5] 재배정에 대한 제약(2012년)(Q72a)

(단위: 국가 수)



[그림 5.6] 재배정 승인 유형(Q72b)



Notes:

1)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2) In this graph, "Other type of approval" in 2012 is recognised only when neither MoF nor legislature is required to approve.

4. 예산안 의회 승인 후 세출예산 삭감/증액에 대한 권한

(Authority to increase or cut appropriations after the budget is approved by the legislature)(Q.74-83)

- 행정부의 유연성은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지출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부에 지출 증액을 허용(그림 5.7, <표 A5.5> 참고)
 - 오직 5개 국가(칠레,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에서 지출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완벽히 제한된 형태로 예산을 집행
 - 3개 국가는 몇몇 영역에 대해서는 제한된 집행을 하고, 그 외 영역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지님
 - (네덜란드) 예산집행 중 의무지출 증액은 의회 승인 없이 허용
 - (노르웨이) 경상비지출과 투자지출의 증액은 한계금액과 승인 없이 허용
 - (미국) 의무지출의 증액은 한계금액과 승인 없이 허용
 -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은 투자지출, 경상비지출보다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경우 권한부여에 있어 더욱 제한적

- 예산안 채택 후 지출 증액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계금액과 어떠한 승인 없이 증액을 허용하는 국가는 매우 적음(그림 5.7, [그림 5.8], <표 A5.5> 참고)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
 - 덴마크와 에스토니아는 의무지출에 대해, 멕시코는 재량지출, 경상비지출, 투자지출에 대해, 슬로바키아는 투자지출에 대해 한계금액과 승인절차 없이 허용

- 예산안 채택 후 지출 증액을 허용하는 국가 중, 앞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닌 나머지 국가들은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함(그림 5.8, <표 A5.5> 참고)
 - 대부분의 국가는 재무부 또는 경제부에 의한 사전승인이 요구됨
 - 몇몇 국가는 의회로부터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이 요구됨
 - 사전승인은 해당 국가들 중 4분의 3, 사후승인은 4분의 1 정도의 비율

- 예산안 승인 후 지출 삭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부에 이를 허용. 단 의무지출의 경우는 제외(그림 5.10), <표 A5.6> 참고)
 - 오직 5개 국가(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에서 지출 삭감을 허용하지 않고 완벽히 제한된 형태로 예산을 집행
 - 7개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덴)는 의무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제한된 집행을 하고 다른 세 가지 지출영역*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지님
 - * 투자지출, 경상비지출, 재량지출
 - 3개 국가(멕시코, 슬로바키아, 스페인)는 4가지 지출형태에 대해 한계금액이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음
 - OECD 회원국은 재량지출, 투자지출, 경상비지출보다 의무지출 삭감에 대해 더욱더 제한적
 -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예산안 승인 후 의무지출 삭감을 수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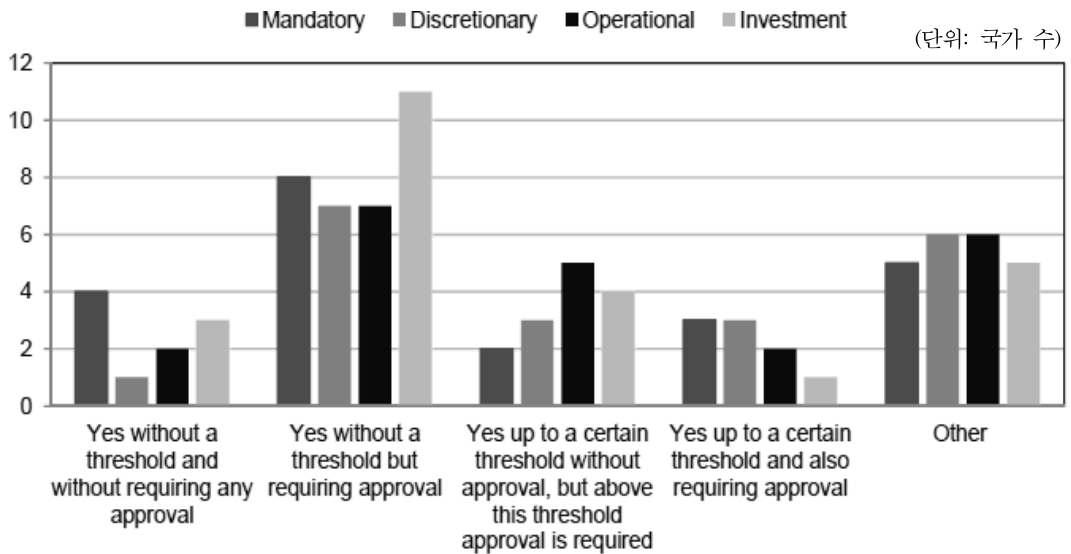
- 지출 증액에 대한 승인체계와는 대조적으로 OECD 회원국의 절반정도에서 행정부는 어떠한 승인 없이 지출 삭감을 허용(그림 5.11), <표 A5.6> 참고)
 - 다른 국가들 대부분은 승인을 요구하나 한계금액 없이 지출 삭감을 허용

- 지출 삭감에 대한 승인 필요 시, 재무부는 사전승인을 요구(그림 5.12), <표 A5.6> 참고)
 - 의회가 지출 삭감에 대한 승인절차에 관여하는 경우는 적음
 - 의회가 지출 삭감 승인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약 3분의 2는 사전승인에, 3분의 1은 사후 승인에 기반(의무지출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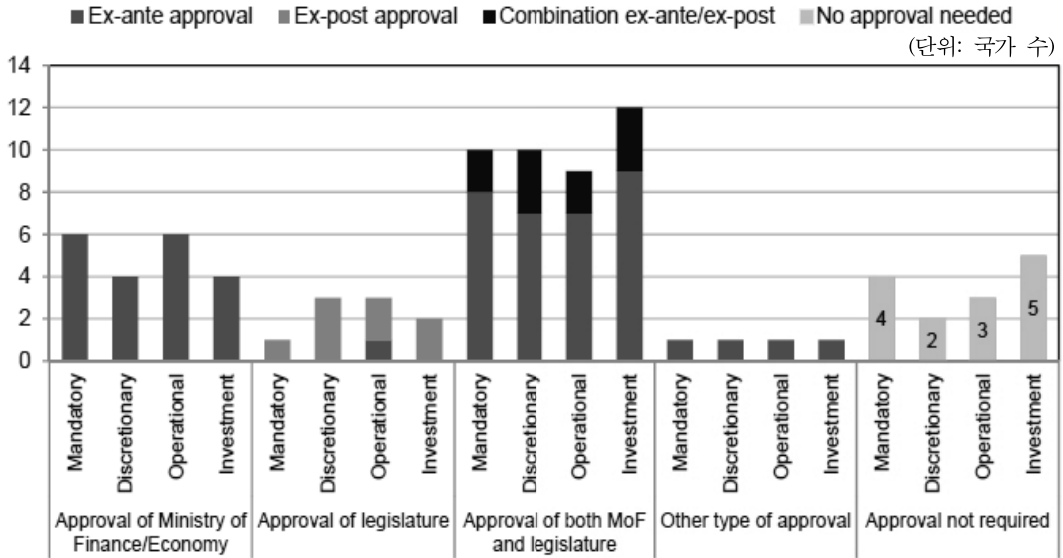
[그림 5.7]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행정부의 지출증액 허용 여부(Q74, 76, 79, 82)



[그림 5.8]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행정부의 지출증액에 대한 제약(Q74, 76, 79,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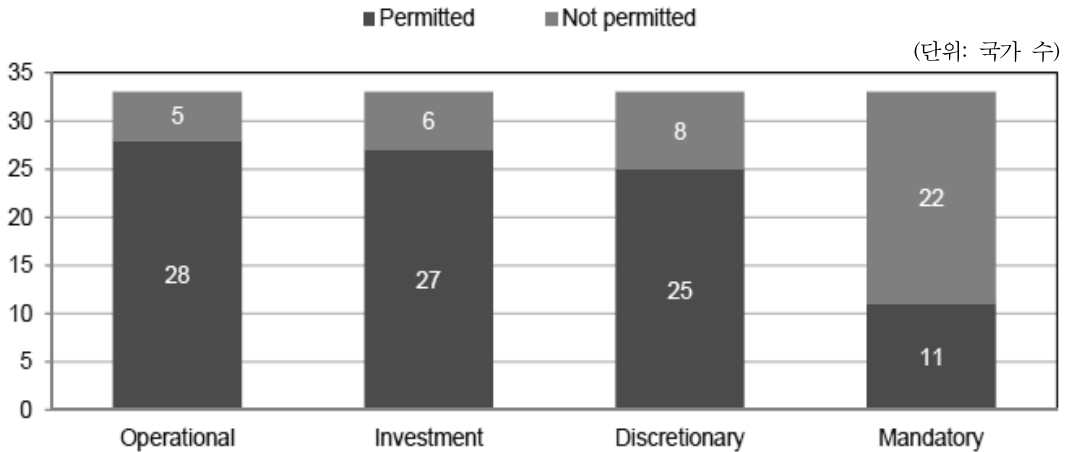


[그림 5.9]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지출증액 승인 유형(Q74, 76, 79,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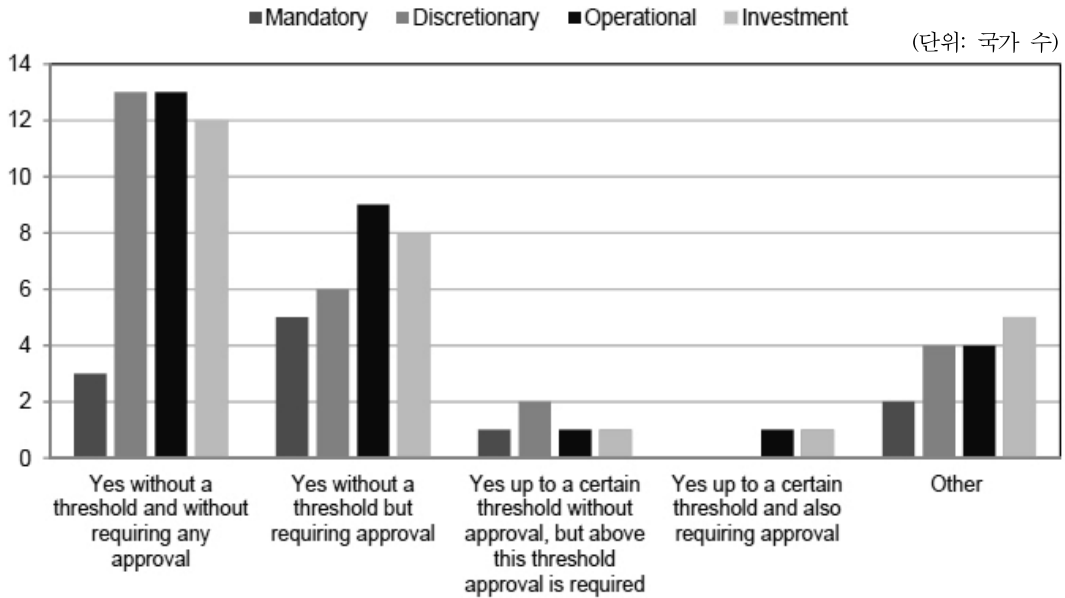


Note: In these figures, "Other type of approval" is recognised only when neither MoF nor legislature is required to approve. See Figures 5.10, 5.11, 5.12 on pages 6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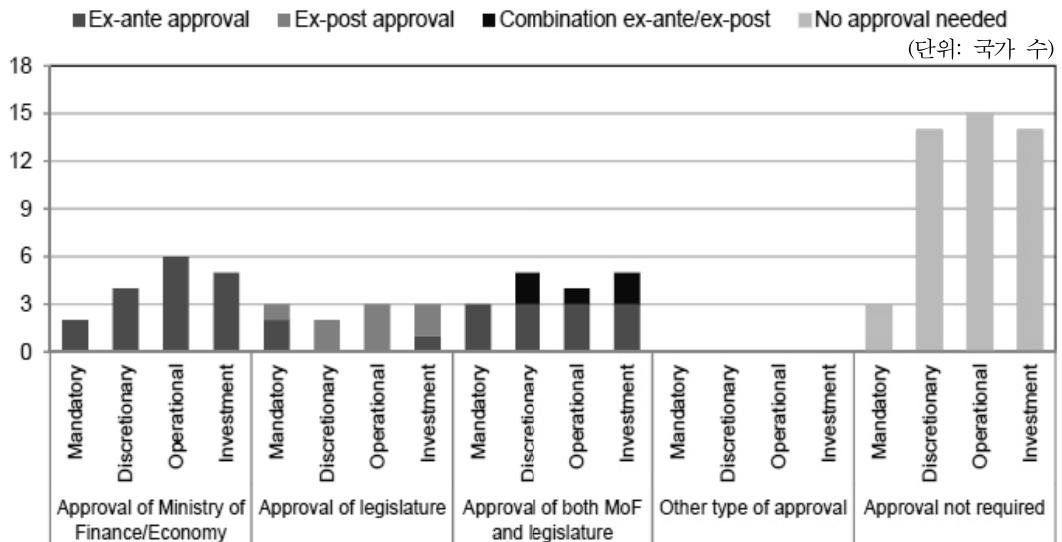
[그림 5.10]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지출삭감 허용 여부(Q75, 77, 80, 83)



[그림 5.11]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행정부의 지출삭감에 대한 제약(Q75, 77, 80, 83)



[그림 5.12] 예산안의 의회승인 후 지출삭감 승인 유형(Q75, 77, 80, 83)



Note: In this graph, "Other type of approval" is recognised only when neither MoF nor legislature is required to approve.

5. 미사용 세출예산의 이월(Carry-over of unused appropriations) (Q.78, 81, 84)

- 정부기관에 이월 권한(carry-over right)이 있는 경우 미사용 세출예산의 일부나 전부를 당초 정해진 기간을 넘어 사용 가능
 - 정부기관은 이월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당해 회계연도에 책정된 세출예산 중 미사용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
 - 예산은 일반적으로 1개 회계연도에 대해 책정되므로, 이월제도 필요
 - 이월은 질적 평가 후 또는 양적제한 규정과 함께 허용
 - 중앙예산당국은 질적 평가를 통해, 미리 정해진 지출프로그램에 자금을 이월하려는 부처나 기관의 요구를 승인하거나 거절
 - 양적제한 규정에는 ① 특정 연도에 허용된 이월금 한도, ② 누적가능 이월금의 최고한도, ③ 누적된 이월금에 대한 삭감제한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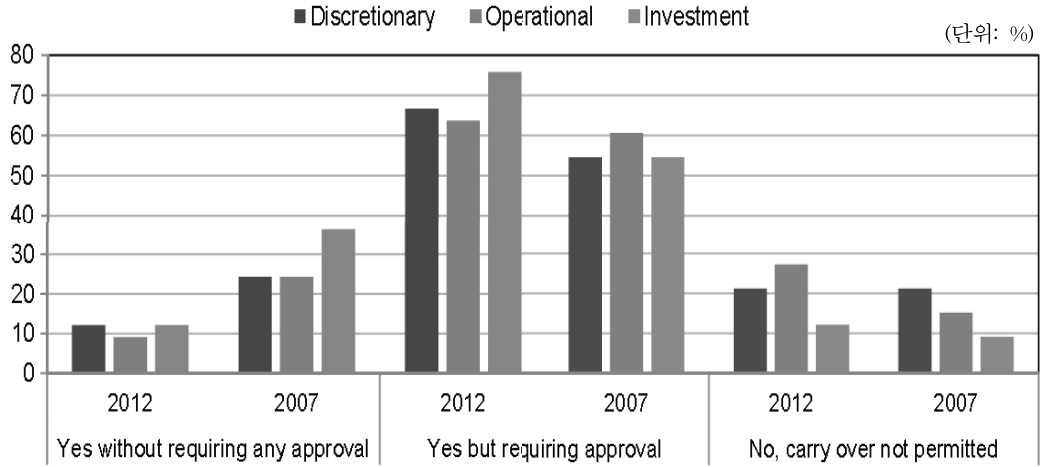
- 이월 권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이월 권한의 지지자는 이월제도가 예산집행 과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정부기관에 유연성과 효율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사용 자금을 소진하는 ‘12월의 러쉬(December rush)’ 현상을 완화하고, 지출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표 5.1〉 참고)
 - 그러나 반대자는 이월제도가 미사용 세출예산의 축적을 초래하고 중앙예산당국의 예산 시스템 통제에 제약이 됨을 주장
 - 이월제도가 더욱 효율적이 되고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시스템은 중기재정계획, 위임된 예산관리 권한, 잘 발달된 회계·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시스템, 건전한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절차를 갖추어야 함

〈표 5.1〉 이월제도 사용 찬반 논쟁

	찬성	반대
재정 규율	이월은 전형적으로 정부지출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예산자원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함	이월은 재정확장과 재정긴축 시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
배분적 효율성	이월은 반복되는 예산 수정을 막고, 연간 프로젝트 비용관리보다 적극적인 종합관리를 촉진	이월은 과다 예산편성, 자원할당 대립을 조장하므로, 필요한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나 자본지출에 대해 다년간 세출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음
운영 효율성	이월은 정부조달절차 및 사전지출통제로 인한 지연을 보완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튼튼한 비용절감 계획을 촉진	예산집행 절차가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이 개혁을 통해 간소화되어야 하며, 이월이 불필요한 통제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대응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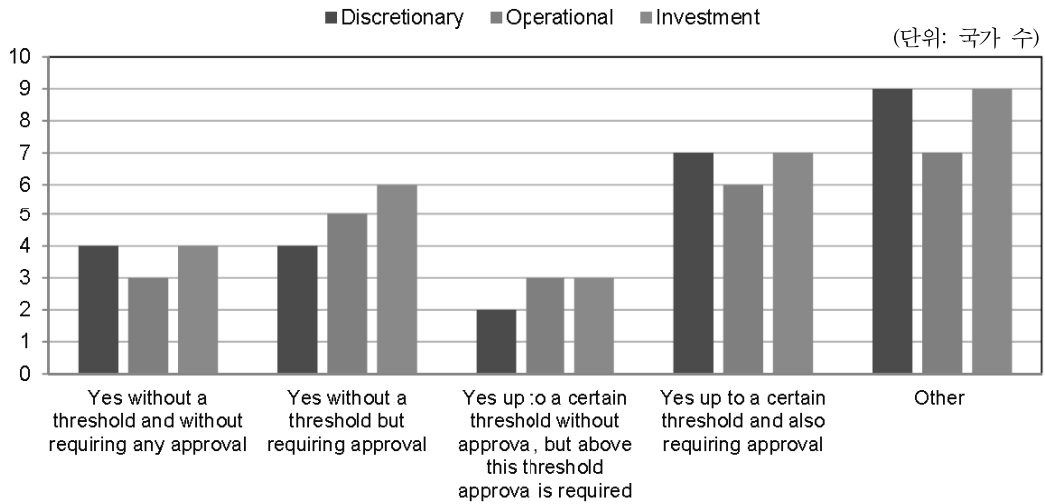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미사용 자금(used funds)의 이월을 허용하며, 대개 중앙 예산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벨기에, 칠레, 그리스, 멕시코는 모든 종류의 지출에 있어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재량지출과 운영지출에 있어 이월을 허용하지 않으며,
 - 슬로바키아와 터키는 운영지출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음
 - 2012년 기준, 2007년과 비교 시, 더 많은 국가가 운영지출의 이월과 사전승인 없는 이월을 허용하지 않음(그림 5.13], 〈표 A5.7〉 참고)
- 예외적으로 이월을 승인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이스라엘과 슬로바키아는 각각 재량지출과 투자지출의 이월을 행정부나 의회의 승인과 한계치(threshold) 없이 허용
 -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는 재량지출과 투자지출 및 운영지출의 이월 시 한계치(threshold)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중 오스트리아는 이미 이월된 자금의 사용을 위해 재무부의 승인을 요구
 - 핀란드, 한국, 미국은 예산법(budget law)에 명시된 때에만 이월을 허용하므로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 룩셈부르크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지출이 기금을 통해 관리되어 미사용 자금이 승인 없이 다음연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허용

[그림 5.13] 2007년과 2012년의 이월제도(Q78, 79,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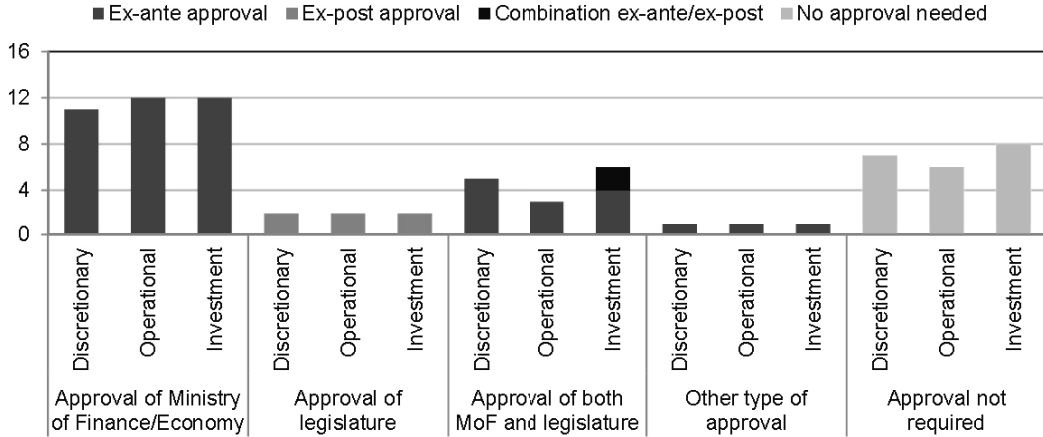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그림 5.14] 2012년 이월의 제한규정(Q8, 9, 84)



[그림 5.15] 이월의 승인 유형(Q78, 79, 84)

(단위: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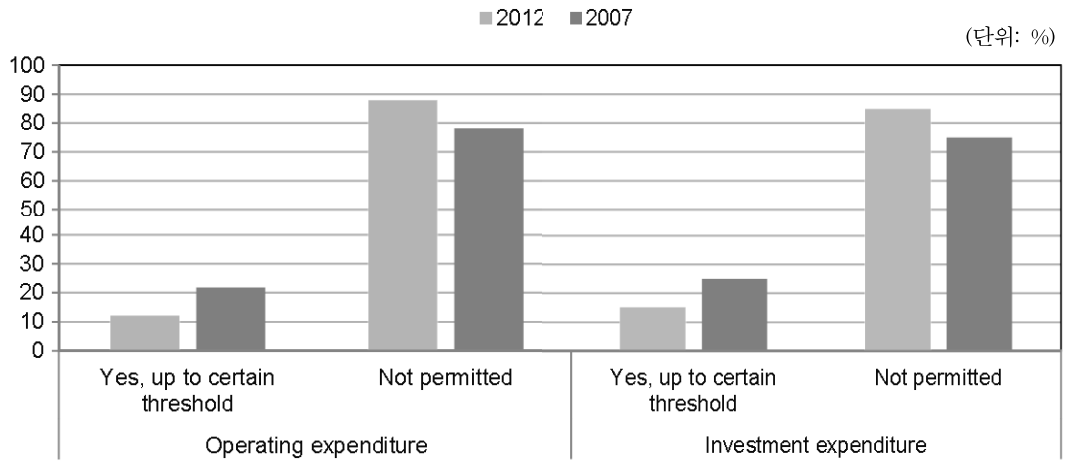
Note: In this graph, "Other type of approval" is recognised only when neither MoF nor legislature is required to approve.

- 나머지 국가들에서 몇몇 종류의 지출은 행정부(재무부, 합동 부처 또는 내각)나 의회 또는 둘 모두로부터 승인이 요구되며 한도가 적용됨(〈표 A5.7〉 참고)
 -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행정부에 의한 사전승인과 의회에 의한 사후승인 절차를 함께 사용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 터키는 행정부와 의회 모두로부터 사전 승인을 요구

6. 미래 세출예산에서 차입(Borrowing against future appropriations) (Q.73)

- 미래 세출예산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은 관리적 유연성(managerial flexibility)을 증가시키는 방법
 - 이것은 기관들이 당해 연도에 예상치 못한 지출 요구가 발생한 경우, 다음 해의 예산에서 차입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당해 세출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유연성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연간 세출예산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산규율과 중앙예산당국의 지출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지출 종류에 관계없이 장관 또는 정부가 미래 세출예산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미래 세출예산에 대해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OECD 국가 비율은 2012년 운영지출 88% (2007년 78%), 투자지출 85% (2007년 75%)
 - 독일(일부 제한이 있음),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에는 운영 및 투자지출에 대해 미래예산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
 - 덴마크는 운영지출, 헝가리와 룩셈부르크는 투자지출에 있어서만 차입을 허용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예산관련 법(budget-related laws)에서 미래 세출예산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차입을 승인하는 의회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정해짐 ([그림 5.16], <표 A5.8> 참고)

[그림 5.16] 미래 세출예산 차입에 대한 허용(Q73)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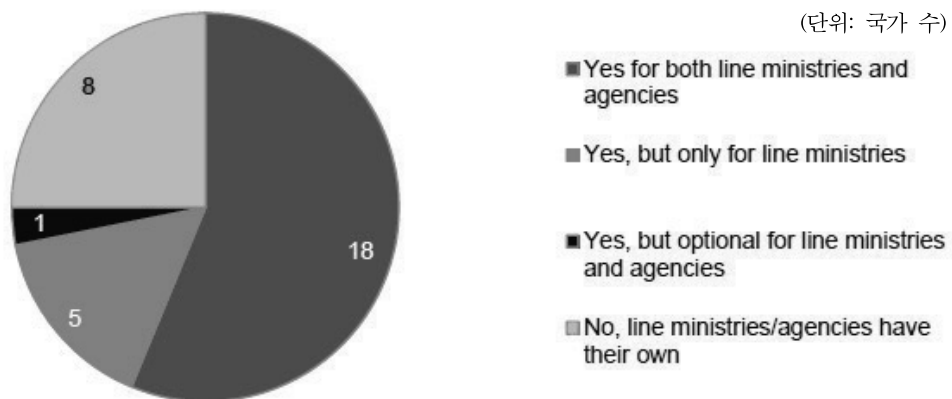
Chapter 6.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성과주의 예산 설문조사 결과 OECD 회원국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이 폭넓게 사용되지
 만 접근방법에 큰 차이가 있으며, 제도의 최적 유형에 대한 합의는 부재한 상황.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예산배분에 성과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느슨하거나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이후 일선 부처와 중앙 예산당국 사이의 협상
 에서 성과정보가 전략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정도가 낮아졌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

-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금전 지출을 포함하여 규칙과 절차의 준수로 책임을 확보해
 왔으나,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들은 점점 더 '성과주의 예산' 주제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예산의 달성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
 - 현재 많은 회원국에서 기존 정립된 성과주의 예산 모델에 대한 정정 및 재평가를 하는
 등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예산(Budgeting context)에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
 지 못한 상태
- 성과주의 예산을 둘러싼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 사용되고 있는 성과정보(최근에는 성과주의 예산과 관련된 제도를 지나치게 도입하
 는 기조에서 물러나 간소화와 성과정보에 중점)
 - 공공 성과측정에 내재하는 문제점
 - 예산절차가 성과감독(Performance monitoring)에 적합한지, 또는 관리와 책임에 있어 다
 른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폭넓은 의문
- 설문조사의 목적은 성과정보의 형태와 예산절차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들에 대해 업데
 이트하고,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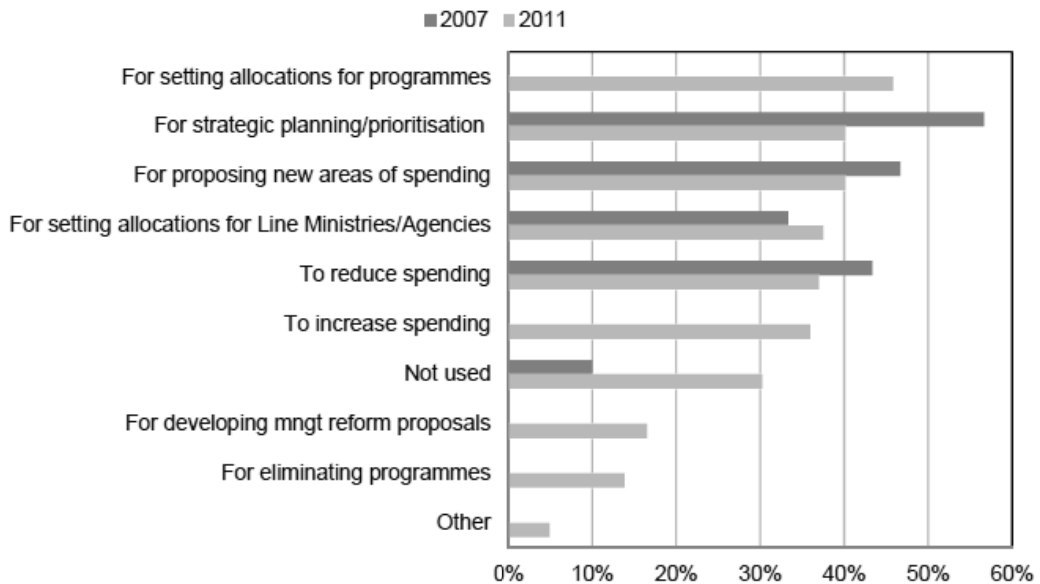
- 2011년 성과주의 예산 설문조사에서 도출한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음
 - OECD 회원국에서 성과주의 예산 프레임워크는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성과정보는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산배분 의사결정에 연계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중앙과 연방정부에서 성과주의 예산은 분권화되어 운영
 - 2007년에 비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주요 책임기관으로서 일선 부처와 기관의 역할이 증가
 - 2007년 응답과 비교하여 일선 부처와 중앙예산당국 사이의 협상에서 전략계획 설정 시에 성과정보가 적게 사용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응답 증가
 - 일선 부처에서 성과정보는 지출증가 및 감소에 비슷한 정도로 활용되었고, 프로그램을 폐지에 사용하는 정도는 이보다 낮음
-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성과주의 예산 프레임워크를 운용하고, 성과주의 예산은 대체로 신축적으로 운영
 -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들은 모든 중앙정부의 일선 부처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 성과주의 예산 프레임워크가 있음(그림 6.1의 18개국)
 - 회원국 중 약 4분의1 정도의 국가들은 중앙예산당국의 표준적 프레임워크가 없으나 일선 부처/기관 고유의 예산 프레임워크를 운영(그림 6.1의 8개국)

[그림 6.1] 중앙정부 조직 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앙예산당국의 표준 성과주의 예산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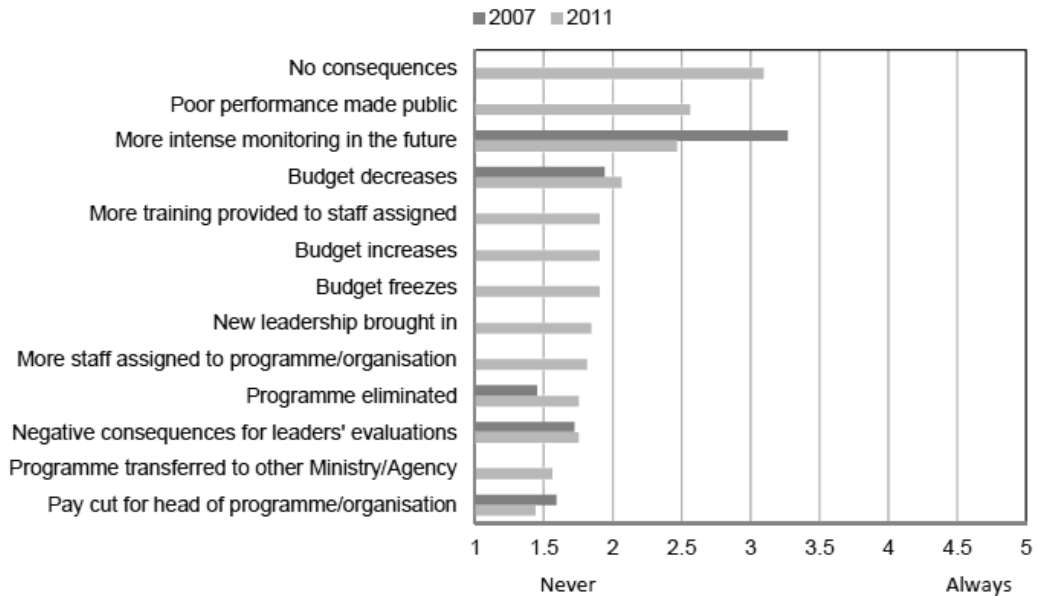
- '07년에 비해 일선 부처는 성과정보를 대체로 적게 활용하였고, 예산 협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그림 6.2) 참고)
 - 성과결과는 주로 프로그램 배분, 전략적 계획 설정, 새로운 지출분야 신설, 일선 부처와 기관에 예산배분, 지출감소 판단에 사용(그림 6.2의 상위응답)
 - 그러나 회원국의 3분의 1 가량은 중앙예산당국과의 예산 협상 시 성과결과가 제한적인 역할에 그친다고 응답

[그림 6.2] 일선 부처에서 중앙예산당국과 협상 시 성과결과 활용내용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성과정보를 행동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6.3) 참고)
 - 2007년에 비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감독을 강화한다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프로그램 폐지를 한다는 응답이 약간 증가
 - 2007년 자료는 없으나, 2011년에는 저조한 성과를 공공에 공개한다는 응답이 있음

[그림 6.3]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야기되는 결과



〈표 6.1〉 성과측정

성과척도	투입	무엇이 시스템에 투입되었나? 어떠한 자원이 사용되었나?
	산출물	어떤 자원과 서비스를 산출하였나? 자원과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가?
	결과	중간결과: 산출물의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최종결과: 산출물에 기인한 달성된 결과는 무엇인가?
	맥락	산출물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예: 절차, 선행사건, 외부사건)
비율지표	효율성	비용/산출
	생산성	산출/투입
	효과성	산출/결과(중간 혹은 최종)
	비용효과	투입/결과(중간 혹은 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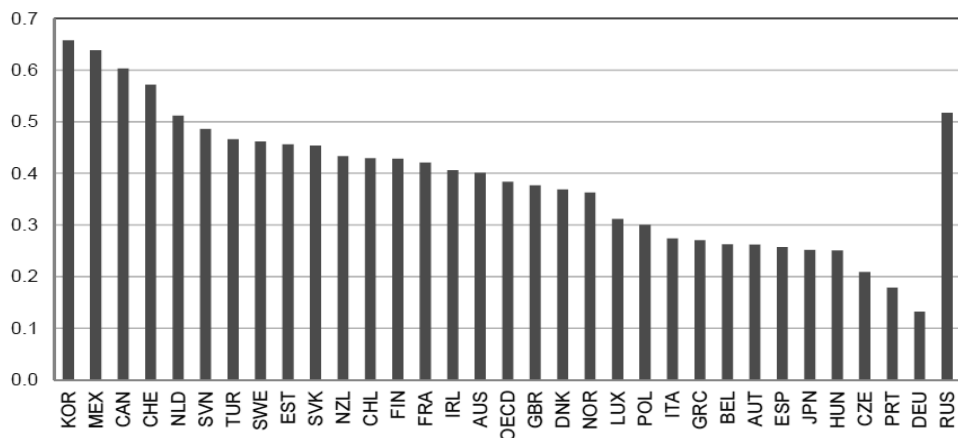
자료: Adapted from Streck et al.(2006)

[Box 6.1] 성과주의 예산 지표

- (측정요소) 성과주의 예산 지표는 아래와 같이 성과정보에 관한 10가지 요소로 구성(괄호 안은 가중치)
 - 성과주의 예산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지 여부(21.7%), 목표 설정의 유형(10.9%),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당국(10.9%), 활용되는 성과정보의 유형(10.9%), 입법부에 성과정보를 발표하는지 여부(10.9%)

- 중앙예산당국과 일선 부처 간의 예산협상 시 성과정보가 활용 여부와 방식(29%), 일선 부처와 기관(agency) 간의 예산협상 시 성과정보가 활용 여부와 방식(5%), 예산 협상 시 성과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1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후속조치를 야기하는 정도(15%)
- (지표 결과) 성과주의 예산 시스템이 없는 경우를 '0', 종합적인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갖춘 경우를 '1'로 설정하였고, 한국, 멕시코, 캐나다, 스위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그림 6.4 참고)
 -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광범위하고 범정부적 프레임워크를 구축
 - 해당 국가들의 프레임워크는 성과정보 개발, 성과정보를 예산 및 책임성 절차와의 연계, 의사결정에 활용, 감독 및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을 갖춘
- (지표의 한계) 성과주의 예산 지표는 성과주의 예산 존재 여부, 성과정보 활용, 목표 미달성 시 대응에 대해 측정했으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반영하지 못함
 - 이는 성과정보 활용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
 - 그러므로 시스템의 구체적인 활용보다는 프레임워크의 존재여부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측정

[그림 6.4] 성과주의 예산 지표



주: 1. 이 지표는 OECD 국가들이 운용중인 성과주의 예산 시스템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하지는 않음
 2. OECD 평균은 31개 회원국의 평균이고, 칠레, 아일랜드, 미국은 응답하지 않음

Chapter 7. 예산의 투명성(Budget transparency)

(Q.6, 39, 51, 60-67)

이 장에서는 좋은 거버넌스 의제의 핵심인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봄. 투명성의 핵심은 정부조직이 예산안 편성 시 설정한 재정 프레임워크의 기본가정(거시경제 및 기타)에 대한 공개 정도임

또한, 본 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 독립적 재정기관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와 함께 입법부의 효과적 역할 증진 방안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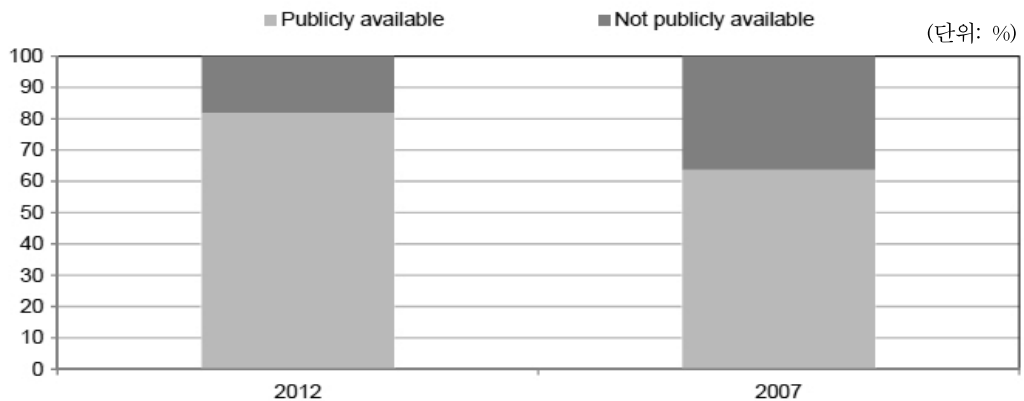
- OECD(2002)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에 따르면, 예산 투명성은 “**관련된 모든 재정정보를 체계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완전공개**” 하는 것으로 정의
 - 예산은 정부 정책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조정·실행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문서
 - 예산 투명성(정책의도, 편성, 실행에 대한 개방성)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의제(OECD, 2002)의 핵심
 - OECD 국가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Best Practices는 세부분으로 구성
 - Part 1.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 주요 재정 보고서들의 리스트와 그 일반적 내용
 - Part 2. 금융 및 비금융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를 비롯하여 보고서들에 포함되는 구체적 공개사안(specific disclosure)에 대한 설명
 - Part 3. 의회와 시민사회의 효과적 역할을 포함한 보고서들의 질(quality), 정합성(integrity), 유용성(usefulness)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조
 - 예산 및 보충문서(supporting documentation)와 별개로, 예산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부보고서가 존재
 - 회기 말 보고서(year-end report): 책임성을 확보하는 정부의 주요수단
 - 회기 내 보고서(in-year reports): 월별,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들은 예산집행 이슈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중요
 -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는 위 보고서들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

1. OECD 회원국의 이용 가능한 예산정보 및 보고서 예시(Examples of available budget information and reporting in OECD countries) (Q.6, 39, 51, 61)

가. 기본 가정의 공개 및 일반에 공개되는 예산문서(Disclosure of underlying assumptions and publicly available budget documents)(Q.51)

- 정부예산의 기본가정(거시경제 및 기타)에 대한 공개 정도가 투명성의 핵심
 - 주요 가정은 GDP성장률, 경상수지, 물가상승률, 금리 추정치를 포함
 - 이 추정치들은 조세 및 세외수입, 정부 부채상환 의무 및 요구(government debt-servicing obligations and requirements)를 예측하는 바탕이 됨
 - 부실한 거시경제 전망은 예산 결과와 적자/흑자 전망 시 문제를 일으키는(de-railing) 주된 원인
 - Best Practices and Procedures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 중 82%가 예산과 보충문서에 예산의 기본가정과 방법론이 발표되며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응답([그림 7.1] 참고)
 - 나머지 18%는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2012년 조사에서는 2007년 대비 투명성이 향상(18%p)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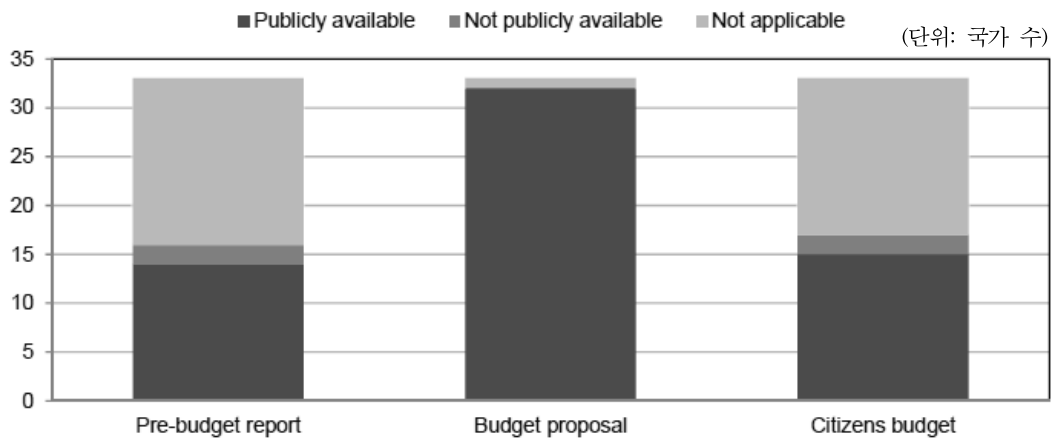
[그림 7.1] 예산의 기본가정과 방법론이 발표/공개되는지 여부(Q51a)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 영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은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7.2 참조)
- 반면, 예산전 보고서(pre-budget report)는 절반정도의 국가에서만 작성되고 그중 14개국이 공개하며, 예산홍보서(citizen's budget)는 15개 국가만 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7.2] 일반에게 공개되는 예산문서(Q51)



나. 예산문서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of budget documentation)(Q.39,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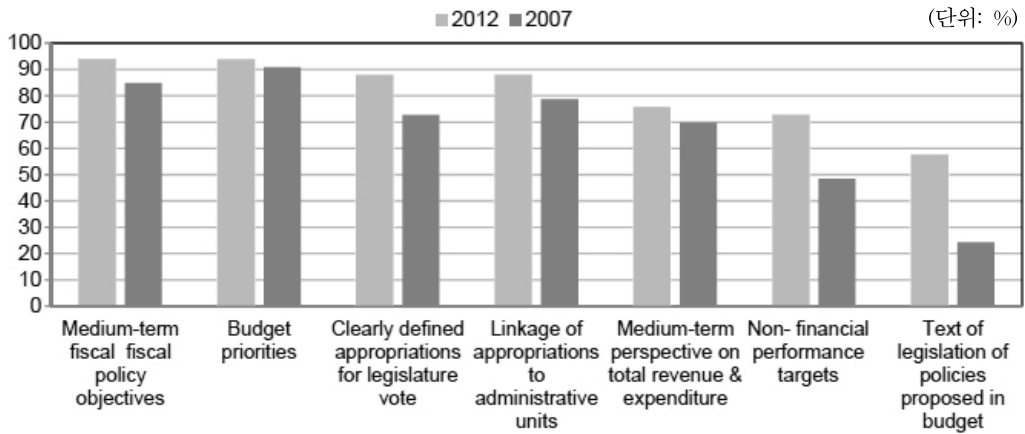
- 예산은 정책 토론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
 -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는 예산의 기본가정뿐만 아니라 중기전망, 수입 및 지출프로그램의 구체적 설명, 행정단위(부처, 기관)별 세출, 성과목표를 포함한 비금융 성과데이터를 포함할 것을 권고
 - 또한, IMF(2007)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는 예산이 주요 지출·수입 방안에 대한 설명 및 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
- 예산 및 보충문서가 포함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중기재정 목표: 법률이나 정치적 공약의 일부로 언급된 정부의 재정목표 명시
 - 성공적인 중기예산 프레임워크는 중기정책 목표가 수반되어야 하며, 재정투명성에 대한 의지 또한 포함될 수 있음

- 예산 우선순위: 예산연도(혹은 중기예산)에 지출배분을 위한 행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
 - 특정 정부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정책결정 프레임도 포함
 - 수입 및 지출의 중기전망: 중기예산 프레임워크의 핵심적 부분이나, 수입과 지출의 연계보다는 전망에 초점을 맞춤
 - 예산에 제안된 정책법률 내용: 정부 예산문서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제안된 정책을 위한 법률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구분
 - 명확하게 규정된 세출(행정단위와 연계): 행정부는 특정한 목적과 한도 내에서 공공 자금을 지출하도록 의회의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으며, 연간예산은 연간예산법(몇몇 국가들은 개별 세출법)에 의해 만들어짐
 - 프로그램·기관에 대한 비금융 성과목표: 정부조직이 달성하는 구체적인 산출과 결과를 의미
 - 목표(goals/objectives)에 비해 단기간에 달성되기도 하며, 종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되기도 함
 - 비금융 성과정보 사용 방법이나 예산과정으로의 통합정도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 거의 모든(94%) OECD 회원국은 행정부의 중기재정목표와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예산에 제시([그림 7.3] 참고)
- 덴마크는 중기재정목표와 예산 우선순위 모두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스페인은 중기 목표, 이탈리아는 예산 우선순위만 포함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중기재정목표를 예산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수입 및 지출 중기 전망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76%에 불과
 - 벨기에, 핀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은 중기재정목표는 있으나 중기재정계획(MTEF)이 없는 반면, 이탈리아는 중기재정계획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기목표는 부재
 - 2007년 대비 중기재정계획 전망을 포함하는 OECD 국가 비율이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 및 지출 전망의 경우,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일본, 영국은 현재 총수입

및 지출의 중기전망을 예산에 포함하는 반면,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는 생략한다고 보고

- 2007년 대비 2012년에 나타난 다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비금융 성과목표의 포함(48% → 73%), 예산문서에 정책법률 내용 기재(24% → 58%)가 있음
- OECD 회원국 중 88%가 명확히 규정된 세출, 세출과 정부조직(부처, 기관)간의 연계를 예산문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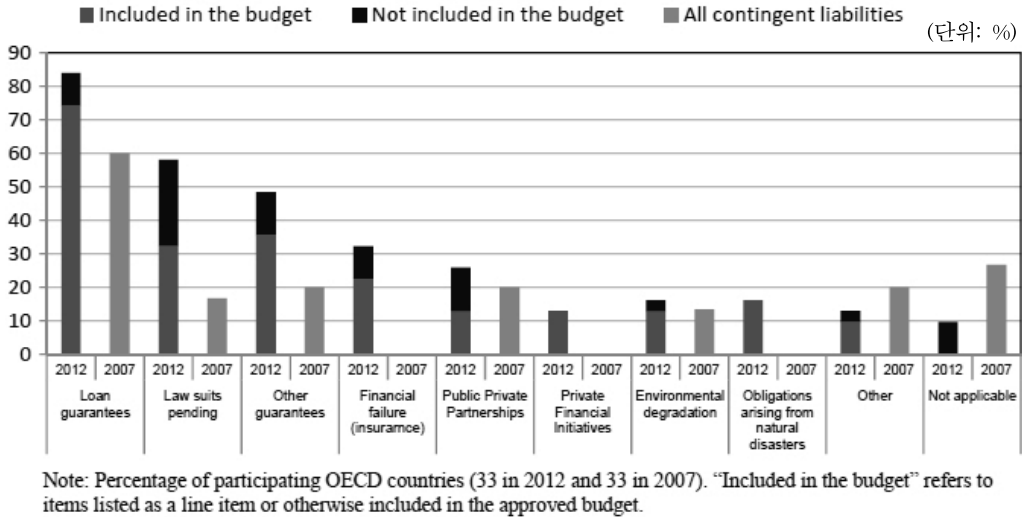
[그림 7.3]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문서에 포함되는 항목(Q61)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우발부채로 간주되는 지출항목을 구분하며, 투명성의 관점에서 그 항목들이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문서에 공개되는지와, 일반에 공개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그림 7.4 참조)
- OECD 회원국 중 84%는 융자보증(loan guarantees)을 우발부채로 인식하며, 그중 90%는 그 항목을 예산문서에 별도의 예산항목(line item)으로 넣거나 다른 방식으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한 국가의 58%는 소송 또한 우발부채로 간주하며, 그중 절반은 예산문서에 포함 시킴
- 2007년에는 위 질문에 8개국(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이 해당사항 없음(not applicable)으로 조사되었으나, 2012년에는 3개국(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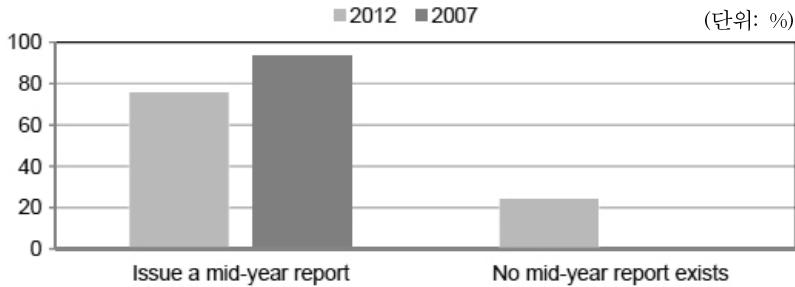
[그림 7.4] 우발부채로 간주되는 지출항목(Q39)



다. 회기 내 보고서(In-year reporting)(Q.6k)

- 회기 내에 발표되는 예산집행 및 예산전망 수정보고서는 경기변동이 예산에 미치는 효과를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
 - 위 보고서는 예산의 기본가정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내 발생한 관련 사건들을 확인하며, 조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및 공공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
 - OECD(2002)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는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가정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에 대한 변화 효과는 최소 6개월마다 공개되어야 한다고 언급
 -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의 4분의 3은 통합 반기보고서를 발행(그림 7.5) 참고
 - 2007년 대비 감소한 수치이나 2007년 데이터는 월별보고서를 포함하여 조사된 것이어서 완전히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님

[그림 7.5] 통합 반기보고서의 존재 여부(Q6k)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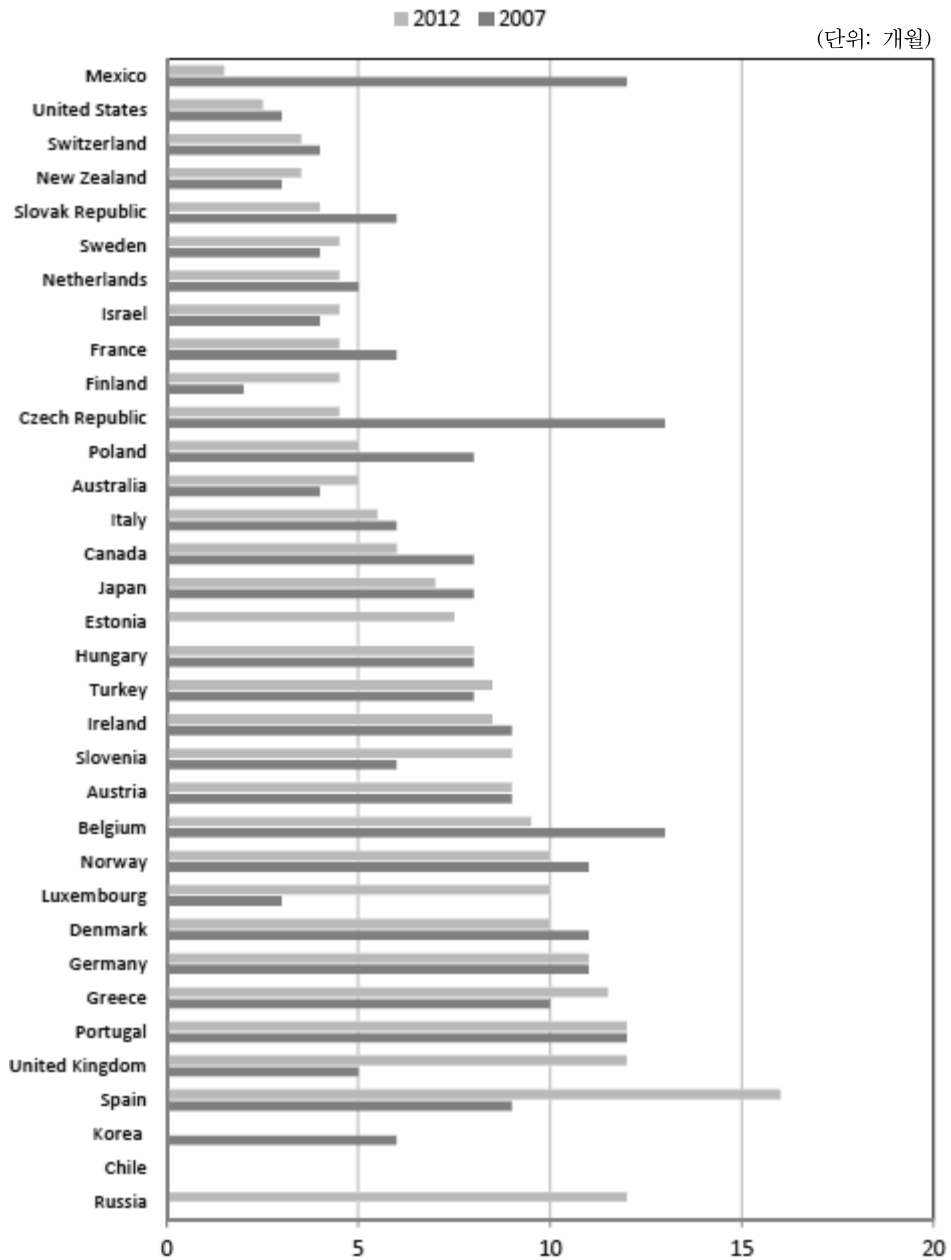
1) Based on the number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0 in 2007).

2) 2007 data are drawn from the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Database, Q.56, and include data for monthly, quarterly and bi-annually reporting.

라. 회기 말 보고서(Year-end report)(Q.6o)

- 회기 말 보고서는 정부의 책임성과 관련된 핵심 문서이며, 모든 OECD 회원국은 정부회계 감사를 위임받은 기구가 존재
 - Best Practices에 따르면, 회기 말 보고서는 일반적 감사관행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발표되고 의회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권고
 -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 완료된 연간보고서 공개까지의 기간은 OECD 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존재([그림 7.6] 참고)
 - 멕시코, 미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반면,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영국은 11-12개월 후, 스페인은 16개월 후에 회기 말 보고서를 발표
 - 칠레와 한국은 회계감사 결과 공표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회기 종료 이후 회기 말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OECD 평균 7개월로 나타남

[그림 7.6]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 완료된 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Q6o)



Note: Data is not available for Chile.

2. 의회의 효과적 역할 확립(Ensuring an effective role for the legislature)(Q.6, 60, 64-67)

- 사회 통념상 의회의 강력한 권한은 재정규율의 약화와 동일시되지만 OECD 회원국들의 경험은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OECD는 의회의 효과적인 역할이 행정부 책임성 촉진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제공과 더불어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Blöndal(2002))
 - 의회는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 예산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며, 정부에 책임을 지우도록 헌법적으로 위임받음
 - 이는 위원회 심사, 본회의 토론, 의회 질의 및 대정부 질문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 최근 OECD 회원국 내 위원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산/재정위원회(Budget/Finance Committee)가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경향을 나타냄
 - 예산/재정위원회(Budget/Finance Committee)는 예산 심사를 책임지며 분야별 위원회로부터의 다양한 투입 수준을 조정
 - 이상적으로, 예산/재정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은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성을 허용하면서 의회예산의 조화와 일관성을 촉진하고 재정규율을 용이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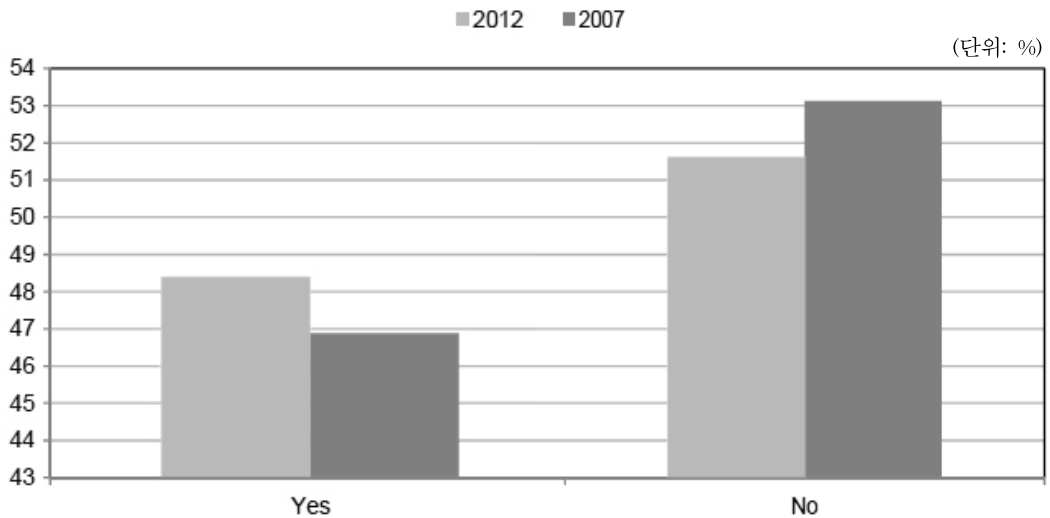
가. 예산수정권한(Amendment powers)(Q.64-66)

-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예산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은 매우 편차가 크며, 이는 의회의 수정권한에서 증명
 - 가장 강력한 수정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는 정부예산안을 전부 수정할 수 있으나, 그리스나 아일랜드 의회는 예산의 승인 또는 거부만 가능
 - 의회의 공식적인 수정 권한은 무제한, 제한적 권한, 수정 금지로 구분 가능
 - 무제한적 권한: 행정부의 동의 없이 수입 및 지출 수준을 증액 혹은 감액 가능
 - 제한적 권한: 행정부 예산안의 재정수지(흑자 또는 적자)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정이 가능하거나 총량에 대한 감액만 가능

- 수정 금지: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어떠한 수정도 불가, 예산 전체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만 가능

- 공식적 수정권한에 대한 구분(예: 기본 및 보조법률, 관습을 반영한 실제 관행)이 중요하며, 의회가 정부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권한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준칙, 의무지출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편성 기간 동안의 협의·협상 또한 의회의 승인단계에서 실제 수정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몇몇(특히, Westminster 기반의 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예산에 대한 투표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간주되어 수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한됨(그림 7.7 참고)

[그림 7.7] 예산에 대한 투표가 정부 신임투표로 간주되는지 여부(Q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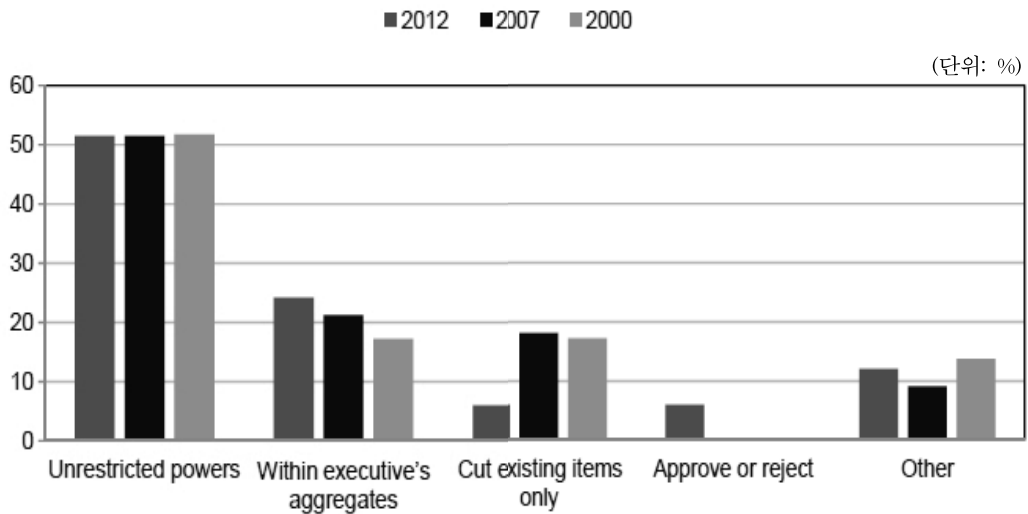


Notes:

- 1) Percentage of responding OECD countries (32 in 2012 and 32 in 2007).
- 2) Israel did not answer the question in 2012.

-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 중 의회의 수정권한에 제한이 없는 국가의 비율은 52%를 유지(그림 7.8) 참고)
 - 행정부 예산안 총액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의회의 비율은 24%로 소폭 상승
 - 나머지는 기존 항목에 대한 삭감(칠레, 영국), 승인 또는 거부(그리스, 아일랜드), 기타 등으로 나타남
 - 호주의 경우 의회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만 수정권한을 가지며, 한국과 캐나다는 행정부의 동의하에 수정이 가능
 - 프랑스는 총예산 내에서 재배분하는 것만 가능하며, 자원(resource)을 감소시키거나 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불가능

[그림 7.8] 의회의 수정권한(Q64)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33 in 2007 and 29 in 2000).

나. 예산심의 기간(Time available for legislative debate)(Q.6h+i)

- 예산심의 기간과 입법부가 보유한 재원수준은 예산과정에 있어 입법부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침
 - 예산안 및 관련 문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공적 심사(public scrutiny)를 가능하게 하고, 위원회 및 본회의 입법토론에 있어 공공참여를 확대시키므로 예산과정에서 강조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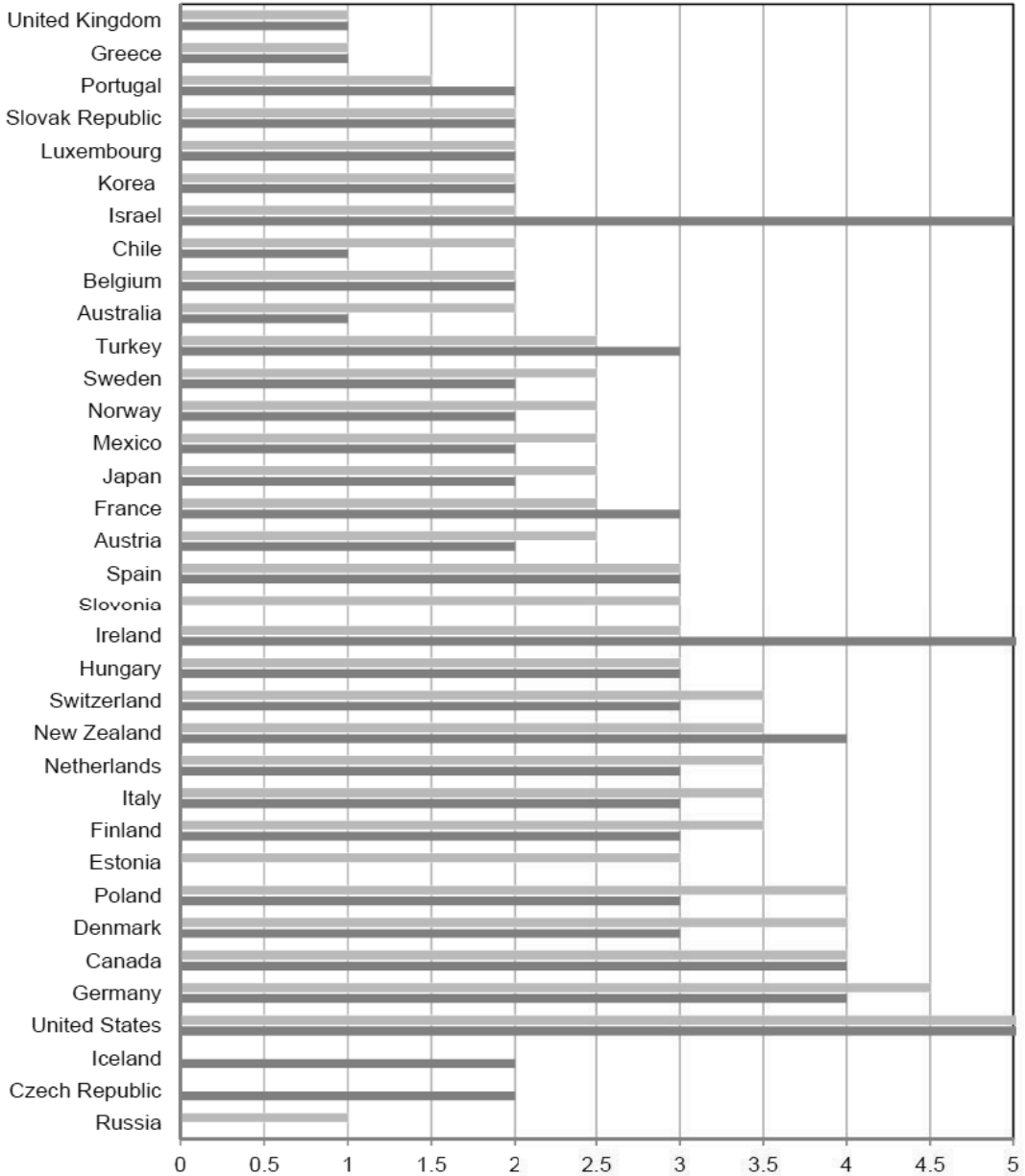
- 입법부 및 위원회는 예산안 승인 전 예산 문서에 대해 충분한 시간 동안 토론할 필요
 - 특히, 입법부 위원회들이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토론, 개정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OECD(2002)의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에서도 입법부의 적절한 검토를 위해 예산초안이 충분히 미리 제출되어야한다고 언급
 - 최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예산 초안이 제출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OECD 회원국 중 61%에 해당하는 국가가 회계연도 시작 최소 3개월 전에 예산안이 제출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을 승인
 - 예산안에 대한 심의기간은 1개월(그리스, 영국)에서 4개월(캐나다, 덴마크, 독일, 폴란드)과 8개월(미국)까지 국가마다 다양
 - OECD 회원국 중 절반 정도가 3개월 이상의 예산 심의기간을 가지며, 14개의 국가가 2개월, 3개의 국가가 1개월의 심의기간을 가짐

[그림 7.9] 입법부의 예산심의 기간(Q6h+i)

■ 2012 ■ 2007

(단위: 개월)



Notes:

1. Czech Republic does not have a law based date for when the Legislature must approve the budget. Iceland did not provide a response to the survey in 2012.
2. USA allows eight months for legislative debate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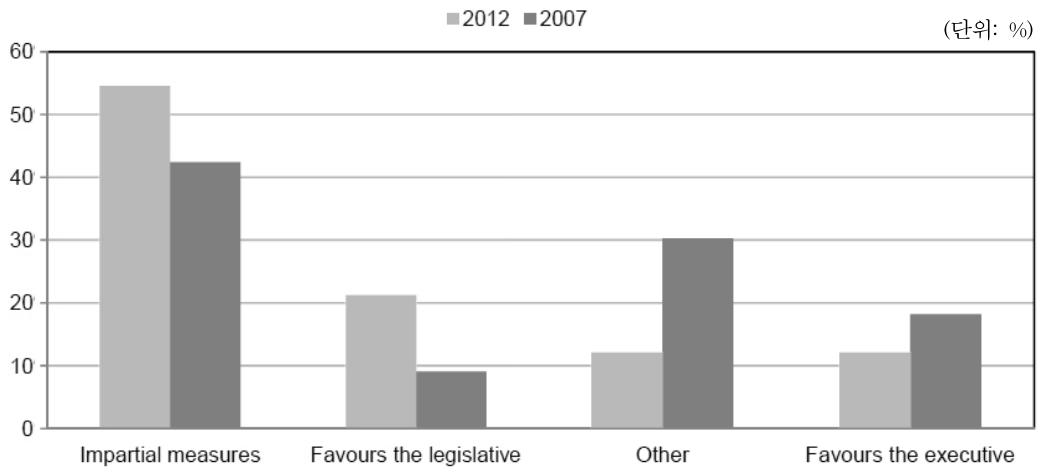
다. Reversionary budgets³⁾(Q.67)

- 많은 국가들이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 승인되지 못할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
 - Reversionary budgets의 세부사항은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조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 비승인 시 잠정적 조치(provisional measures)와 타협방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예산권한에 대한 균형을 도모
- 제안된 예산초안의 전체 혹은 일부를 유효화시킬 수 있는 잠정적 조치는 행정부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
 - 반대로 잠정적 조치를 의회와 협상해야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지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 잠정적 허용조치는 입법부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
 - 한편, 의회와 행정부의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정된 기간 동안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용될 경우, 잠정적 허용조치는 공평(impartial)하다고 간주
- 국가별로 방식상 차이는 있으나, 모든 OECD 회원국들은 예산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
 - 12%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행정부에 유리한 잠정예산제도와 입법부의 예산 수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가짐
 - 칠레, 핀란드, 폴란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체 예산안이 발효
 - 뉴질랜드는 예산안이 잠정적으로 발효되며, 의회는 행정부의 선호에 따라 예산안을 협상해야 함
 - 21%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입법부에 유리한 Reversionary budgets 제도를 보유
 -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는 예산의 통과될 때까지 모든 지출이 금지
 -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미국은 입법부로 하여금 다른 중간적 조치에 대해 표결하도록 규정
 - 호주, 이탈리아, 헝가리, 스웨덴 4개의 국가는 '기타'로 분류

3) Reversionary budgets는 가예산, 준예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호주는 75-80%에 해당하는 예산이 의회승인을 받아 지속되며, 나머지는 중단
- 이탈리아 역시 (잠정)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정부가 섰다운되며 긴급예산이 적용
- 헝가리는 예산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수입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전년예산에 상응하는 지출을 시행
- 스웨덴은 의회가 잠정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승인된 예산의 효력이 인정

[그림 7.10] 예산 비승인시 임시조치의 성격(Q67)



Note: Percentage of participating OECD countries (33 in 2012 and 33 in 2007).

라. 분석역량(Analytical capacity)(Q.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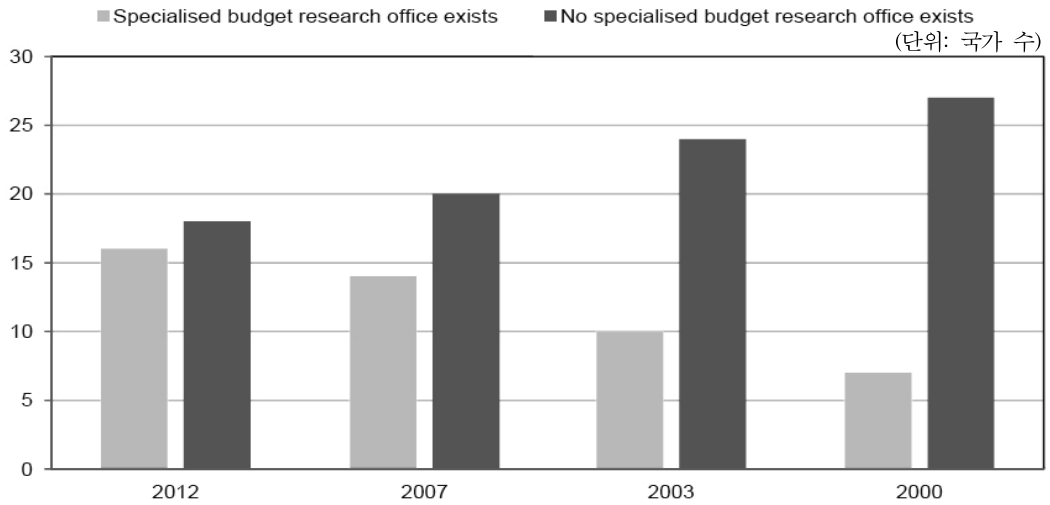
- 입법부가 예산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분석역량이 요구됨
 - 연구역량 강화, 위원회 직원의 적절한 임용, 전문가 고용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입법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량 불균형을 시정
 - 가장 일반적인 입법부의 재원은 전문적 예산분석을 수행하는 위원회 직원으로, 이들 직원수는 국가에 따라 상당히 상이

- 많은 OECD 회원국들이 예산관련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입법활동을 돕는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려는 추세를 보임
 - 의회 내부 혹은 의회연구조직의 일부로 구성되기도 하며,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기도 함
 - 의회소속 조직: 영국의 Scrutiny Unit, 이스라엘의 the Budgetary Control Department in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re, 폴란드의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n the Bureau of Research
 - 프랑스의회와 같이 입법부가 큰 경우 재정위원회를 돕는 대규모의 조직을 운영
 - 독립적 조직: 미국의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한국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ABO), 네덜란드의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CPB)
 - 캐나다의 Parliamentary Budget Officer(PBO)는 법률에 의해 독립적기구로 설립되었지만 의회도서관 조직으로 소속

- 이러한 조직들의 규모, 설립과정 및 핵심역할 등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예산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예산심의에 있어 행정부의 정보독점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의 신뢰성을 향상시킴
 - 주요업무는 행정부의 예산제안 및 추정의 분석, 입법비용의 산출, 경제전망 등
 - 내부 조직인지 외부 조직인지에 상관없이, 이들 조직 대부분은 업무계획 설정에 있어 예산/재정 위원회(Budget/Finance Committee)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이들 조직들의 고유분석 업무와 다른 위원회들 및 위원들을 돕는 일보다도, 예산/금융 위원회의 요구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짐

- 지난 10년 동안 전문적 예산분석 조직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의 경우 조직의 규모 또한 확대
 - 전문화된 예산분석 조직을 가진 국가가 2000년 7개국에서 2003년 10개국, 2007년 14개국으로 증가
 - 2010에서 2012년 사이 호주, 오스트리아 및 그리스 등의 국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
 - 아일랜드와 스페인 등은 전문화된 예산연구 조직의 설립 및 개발이 진행 중

[그림 7.11] 전문적 예산연구 조직의 증가(Q60)



Notes:

1) Since 2007, Australia, Austria, France and Greece have established a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On the other hand, Chile and UK previously reported such offices but responded no such office in the 2012 OECD Budget Survey.

2) All OECD members (34 countries) are included for all the years displayed. Data for Iceland are from 2007. Estonia and Slovenia are registered in 2000-2007 as not having such office, like in 2012.

Source: OECD (2000, 2003, 2007, 2012), OECD International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Database and other research, www.oecd.org/gov/budget/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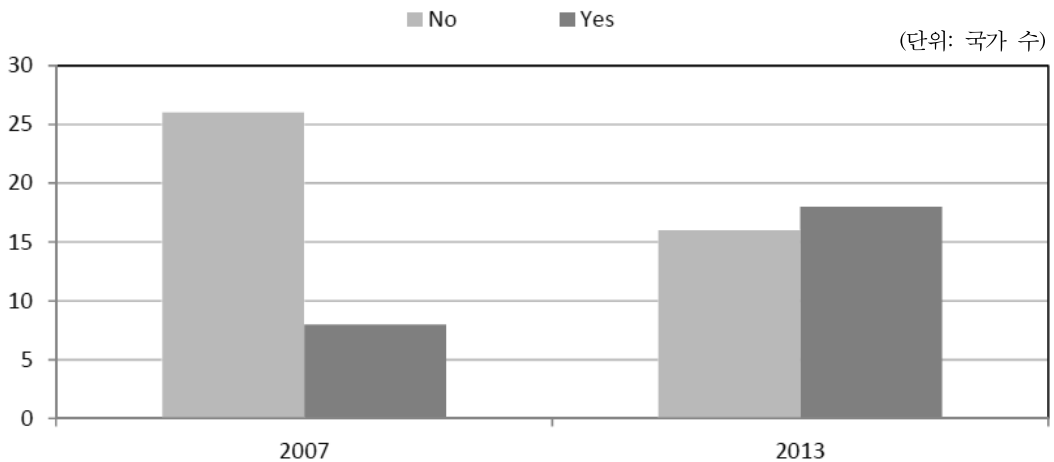
3 독립적 재정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⁴⁾

- 재정성과 평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전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 재정기관(재정위원회 혹은 의회예산처)을 도입하려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 1990년대 중반 경제학계는 재정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의 경험에 착안하여 독립적 재정기관의 도입을 제기
 -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적자와 부채의 급증은 새로운 재정위원회 도입의 동력으로 작용
 - 특히 유로지역에서의 경우, '신재정협약'하에서 독립적 재정기관의 중요성이 확대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독립적 거시경제전망을 토대로 예산안을 작성하고, 독립적 기관에 의해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독
 - 캐나다, 호주 또한 최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과정에 있어 입법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적 재정기관을 설립
 - 조금 더 오래된 기관으로는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벨기에의 High Council of Finance, 네덜란드의 CPB(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가 있음
 - 2013년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18개국)이 독립적 재정기관을 설립했거나 설립 중. 이는 2007년 8개국, 2012년 16개국에 비해 증가한 수준
- 독립적 재정기관의 역할 및 구조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행정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거나 입법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됨
 - 미국 CBO의 예산은 45백만 달러로 가장 큰 수준이며 250명의 조직으로 구성. 아일랜드의 Fiscal Advisory Council은 백만유로 예산으로 단 3명의 인원이 운영
 - 호주, 네덜란드, 영국의 재정기관은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도 예산하에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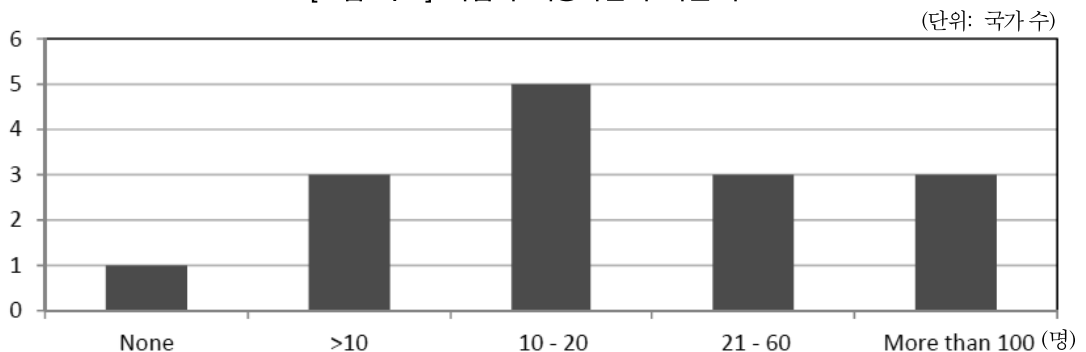
4) The data, collected via a set of questions for in-depth country notes on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beginning in 2011, focuses on institutions in 15 OECD countries (see statistical annex for more information). In preparing the country notes, the OECD Secretariat consulted extensively with officials in the selecte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s well as with parliamentary officials, government officials, academics, and other stakeholders as appropriate. Updates were made for several countries in 2013 and new data is being collected for France, Finland and Italy, and will be collected for any new institutions, but was not complete at the time this publication was being prepared.

- 네덜란드 CPB, 영국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가 발표하는 경제·재정전망은 공식화된 정부 전망치로 발표
- 반면, 미국, 캐나다 재정기관의 전망치는 공식 전망의 비교에만 사용되며, 프랑스는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
- 호주의 독립적 재정기관은 경제·재정에 대한 전망을 수행하지 않음
- 한편, 이들 기관들은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재정준칙과 공식화된 목표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법안 비용 추계 및 주요이슈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
- 네덜란드의 CPB와 호주의 Parliamentary Budget Officer(PBO)는 선거전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분석을 시행

[그림 7.12] 독립적 재정기관 도입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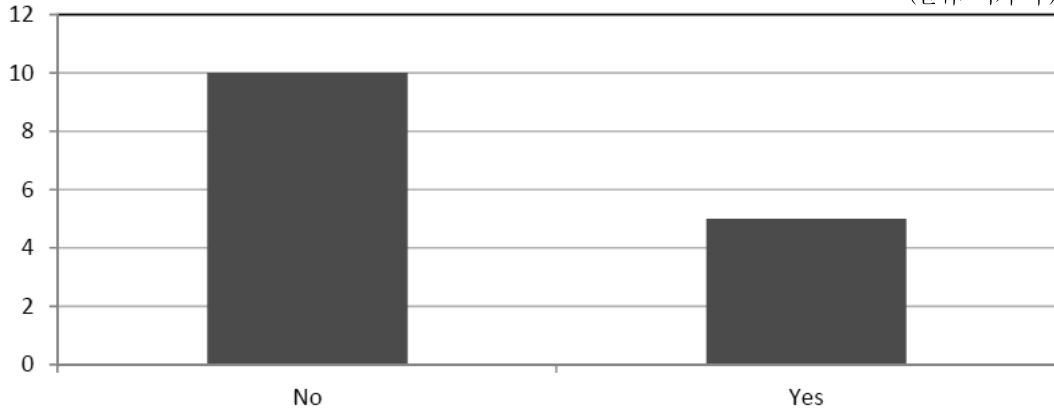


[그림 7.13] 독립적 재정기관의 직원 수



[그림 7.14]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단위: 국가 수)



- 재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실제로 인식되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함⁵⁾
 - OECD의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는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제시
 - 공적과 기술적 역량에 기반한 기관장 임명, 명확히 규정된 임기(선거 주기와 분리된 임기), 분명한 면직 기준 및 절차,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완전한 자유
 - 부여된 보고 및 분석 범위 내에서 자체 업무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 예산선의 분리 및 다년도 예산 체계하에서의 운영
 -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입법적으로 보장(필요시 양해각서나 규약을 통해 보장)
 - 업무 및 운영에 있어 완전한 투명성
- 마지막 요소인 재정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의 투명성은 재정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재정위원회의 본질적 목표와 관련
 - 재정정책 형성에 있어 재정위원회의 영향력은 주로 공청회(public debate)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보를 제공받은 국민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문제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
 -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위원회의 투명한 공표방식과 입법부 및 언론과의 영향경로 형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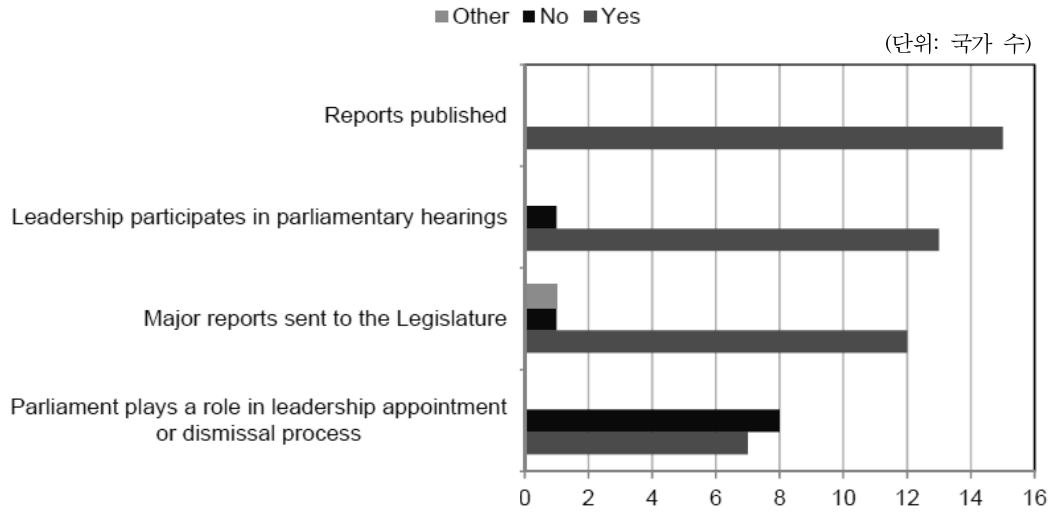
5) The Netherlands CPB's independence within the executive is de facto, not de jure: — independence is not mentioned in its establishing legislation. However, a new decree in 2012 clarifies some aspects of the CPB and other bureaus' independence related to research and methodology.

- OECD 회원국의 모든 재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입법부, 언론, 기타 이해 관계자, 일반대중
에 공개⁶⁾
 - 일반적으로 주요 보고서가 발표될 때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
 - 비교적 대규모인 재정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지정언론을 두거나, 출입기자를 관리하고
질의내용을 전달하며 보고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매체담당자를 둠
 - 일부 기관(미국,한국)은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며, 캐나다의 Office of the Canadian
Parliamentary Budget Officer는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 이해를 위한 교육을 언론
관계자들에게 제공

- 재정위원회 분석은 예산심의(재정정책 목표, 거시경제 체계 및 정책기반, 예산 주요
재정위험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 고려됨
 - 다수 국가들의 재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입법부에 보내거나 관련 의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 입법부 법령에 기반을 둔 재정위원회는 의회위원회와 빈번히 접촉하는 반면, 입법심의에
만 집중적으로 기여하는 위원회도 존재
 - 영국의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청문회를 통해 주요정보를 의회에 제공하
고 의회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
 - 아일랜드의 Fiscal Advisory Council는 ‘재정, 공공지출 개혁을 위한 의회 합동위원회
(Joint Oireachtas Committee for Finance,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가 소집되
기 전 의회에 출석
 - 스웨덴의 Fiscal Policy Council는 의회재정위원회(Riksdag’s Finance Committee)가 주재하
는 공청회에서 정부정책평가의 기초가 되는 FPC보고서에 대해 토론

6) Typically these institutions publish all of their work. Some exceptions exist, for example for the Australian Parliamentary Budget Office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round publishing certain costings.

[그림 7.15] 독립적 재정기관과 입법부와의 관계



참고문헌

- Anderson, B.(2005), “The Value of a Nonpartisan, Independent, Objective Analytic Unit to the Legislative Role in Budget Prepar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Anderson and Minarek(2005), “Design Choices for Fiscal Policy Rul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5/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budget-v5-art25-en>.
- Barnes, S. et al.(2012), “Europe’s New Fiscal Rul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7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777md976b-en>.
- Blöndal, J.R. and J. Kristensen(2002),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budget-v1-art16-en>.
- Blöndal, J.R.(2003a), “Budget Reform in OECD Member Countries: Common Trend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budget-v2-art20-en>.
- Blöndal, J. R. and D. Bergvall(2007), “Budgeting in Austria,”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7/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budget-v7-art14-en>.
- Blöndal J.R, et al.(2008), “Budgeting in Australia,”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8/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budget-v8-art9-en>.
- Burger, Philippe and Ian Hawkesworth(2011), “How to attain value-for-money: Comparing PPP and traditional infrastructure public procurement,”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11/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16812336>.
- D'Ambrosio, G,et al.(2013), *Towards an OECD Composite Indicator, Assessing the Strength of Fiscal Rules and Fiscal Institutions*, MPA Capstone Report, 2013.
- Inman, R.(1996), “Do Balanced Budget Rules Work? US Experience and Possible lessons for the EMU,” NBER Working Paper Series 583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01;2007.

- IMF(2009), “Fiscal Rules –Anchoring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Public Finances,” Fiscal Affairs Department.
- IMF(2012). Fiscal Rules Database, www.imf.org/external/datamapper/FiscalRules/map/map.htm.
- Kim, J. M. and C.-K. Park(2006), “Top-down Budgeting as a Tool for Central Resource Management,”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6/1, OECD Publishing.
- Koen, V. and P. van den Noord(2005), “Fiscal Gimmickry in Europe: One-Off Measures and Creative Accounting,”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17, OECD Publishing, <http://dx.doi.org/doi:10.1787/237714513517>.
- Kopits, G. and S. Symansky(1998), “Fiscal Rules,” IMF Occasional Paper 162.
- Kraan, D.K.(2004), “Off-Budget and Tax Expenditur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4/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budget-v4-art6-en>.
- Kraan, D.K. et al.(2007a), “Budgeting in Turke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7/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16812336>.
- Kraan, D.-K. et al.(2007b), “Budgeting in Hungar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6/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16812336>.
- Mühleisen et al.(2005), “How Do Canadian Budget Forecasts Compare With Those of Other Industrial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5/6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Michela N. et al.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STD/DOC(2005)3.
- OECD(2002),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16812336>.
- _____(2003), “OECD Economic Surveys: Korea,” Volume 2003/5,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kor-2003-en.
- _____(2007), “Fiscal consolidation: lessons from past experiences,”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07/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07-1-40-en.
- _____(2011a), “Budgeting features that strengthen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Results from the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Database,” GOV/PGC/

-
- SBO(2011)11, a draft report presented to the SBO Performance and Results Network, November 2011.
- _____(2012a), “OECD Economic Surveys: Euro Area 201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euz-2012-en.
- _____(2012b), “Budgeting levers, strategic agility and the use of performance budgeting in 2011-12,” GOV/PGC/SBO(2012)10, presented to the 8th Annual Meeting on Performance and Results, November 2012.
- Schaechter, A. et al.(2012).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 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 Schick, A.(2003), “The Role of Fiscal Rules in Budget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3/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16812336>.
- Schick, A.(2010), “Post-Crisis Fiscal Rules: Stabilising Public Finance while Responding to Economic Aftershock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0/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16812336>.

부표(Statical Annex)

[표 A1.1] Actor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ng-term fiscal projections¹

	2012	OECD countries
Central budget authority / finance ministry	18	Australia, Canada, Chile, Denmark, Estonia, Hungary, Ireland, Italy, Mexico, New Zealand, Norway, Poland, Slovak Republic, Slovenia, Sweden, Switzerland, Turkey, USA
President's office	0	
Prime Minister's office	0	
Legislature or legislative body	0	
Other government body	11	Belgium,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reece, Israel, Japan, Korea, Luxembourg, Portugal, Spain ²
Independent body (outside of legislature and executive)	4	Austria, Germany, Netherlands, United Kingdom
Other	0	

Notes:

1. Based on Q. 14a "Which of the following actors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2. In Belgium, Czech Republic, Finland, Greece and Portugal this responsibility is carried out by other departments of Ministry of Finance. In France, Japan and Spain by another ministry or Cabinet Office. The other countries have located this responsibility outside the core ministries.
3. In Russian Federation the CBA is responsible for long-term fiscal projections.

[표 A1.2] Time span and revisions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Frequency of revisions of longterm projections ²	Time span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¹					Total
	Up to 5 years	Between 6-10 years	Between 11-30 years	Between 31-50 years	Other or over 50 years	
Every year	Estonia, France, Greece, Mexico, Poland, Slovak Republic, Spain, Turkey		Chile, Japan	Belgium, Canada, Finland, Hungary, Italy, Portugal, Sweden, United Kingdom	Denmark, USA	20

Frequency of revisions of longterm projections ²	Time span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¹					Total
	Up to 5 years	Between 6-10 years	Between 11-30 years	Between 31-50 years	Other or over 50 years	
Every two years						0
Every three years				Austria, Czech Republic, Ireland, Luxembourg, Slovenia		5
Other		Israel		Australia, Germany,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witzerland		8
Total 2012	8	1	2	20	2	33
2007	1	21	3	25

Notes:

1. Based on Q. 14c "How many years do th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cover/span?"
2. Based on Q.14b. "How often ar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generally revised/updated by this institution?"
3. Based on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OECD Budget Surveys: 31 in 2012 and 33 in 2009. The 200t data are drawn from Government at a Glance 2009, table 17.1.
4. Australia updates the long term fiscal projections (40 years) at intervals of no longer than 5 years.
5. Germany, New Zealand, Norway and Switzerland update the long term fiscal projections at intervals of 4 years (normally).
6. Korea updates the long term fiscal projections every 5 years.
7. Netherlands updates the long term fiscal projections at the start of every new government.
8. Israel has no regular frequency of updating the projections.
9. Denmark's fiscal projections cover the period up to 2100. USA's fiscal projections cover 75 years.
10. Portugal's long-term fiscal projections refer exclusively to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Security.
11. Russian Federation has fiscal projections for 11-30 years and revises the projections every year.

[표 A1.3] Links between the annual budget and the long-term fiscal projections¹

	2012	OECD countries
Yes, a link to the annual budget exists	12	Belgium, Chile, Denmark, Estonia, Greece, Mexico, Netherlands,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Turkey
No link to the annual budget	17	Australia, Austria, Czech Republic, France, Germany, Hungary,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New Zealand, Norway, Sweden, Switzerland, USA
Other	4	Canada, Finland, Poland, United Kingdom ²

Notes:

1. Based on Q.14d "Is it required that the budget be based on long-term fiscal projections?"
2. Canada's long-term forecast is consistent with the medium-term forecast presented in its budgets and mid-year economic and fiscal updates. Finland and Poland make long-term projections consistent with the medium-term framework. United Kingdom bases the budget on OBR's biannual forecasts.
3. In Russian Federation, it is required that the budget be based on long-term fiscal projections.

[표 A1.4] Which of the following actors develop the macroeconomic estimates used in the budget?¹

	2007	2012	Countries
Central budget authority	21	11	Australia, Austria, Hungary, Ireland, Italy, Korea, Mexico, New Zealand, Norway, Poland, Slovak Republic
Ministry of Finance (other departments)		7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Greece, Israel, Portugal, Sweden
President's office		0	
Prime Minister's office		0	
Legislature or legislative body		0	
Other government body	7	11	Belgium, Chile, Denmark, France, Germany, Japan, Slovenia, Spain, Switzerland, Turkey, USA ²³
Independent body (outside of legislature and executive)	3	3	Luxembourg, Netherlands, United Kingdom
Private sector	2	1	Canada
Other	0	0	

Notes:

1. Based on Q.12. "Which of the following actors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croeconomic estimates underlying the budget projections?"

2. The responsibility is located in another ministry in Denmark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the Interior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German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nd Technology), Japan (Cabinet Office), Spain (Economic and Competitiveness Ministry), and Turkey (Ministry of Development).
3. Belgium: Federal Planning Bureau; Chile: the Central Bank; France: Le Direction Generale du Tresor; Slovenia: Institute of Macroeconomic Analysis and Development; Switzerland: A group of experts with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ministries and the Central Bank; USA: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Secretary of the Treasure, OMB.
4. In Russian Federation the CBA is responsible for formulating macroeconomic estimates.

[표 A1.5] Time span of long-term macroeconomic estimates¹

	2012	OECD countries
Up to 5	19	Austria, Chile,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Kore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Turkey
Between 6-10 years	3	Israel, Mexico, USA
Between 11-30 years	2	Japan, New Zealand
Between 31-50 years	8	Australia, Belgium, Canada, Ireland, Luxembourg, Norway, Switzerland, United Kingdom
Over 50 years or other	1	Denmark

Notes:

1. Based on Q. 13 "How many years do the long-term macroeconomic estimates cover/span?"
2. Russian Federation prepares macroeconomic estimates for 11-30 years.

[표 A1.6] Elements considered in long-term fiscal projections and link to the annual budget¹

Country	a. Economic growth rate	b. Unemployment trends	c. Short-term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debt	d. Long-term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debt	e. Exchange rate	f. Fiscal gap projections	g. Effects of significant policy reforms	h. Immigration/emigration flows	i. Demographic changes	j. Health care costs	k. Inter-generational accounting	l. Civil servants' pensions obligations	m. Unfunded pensions liabilities	n. Answer is unknown	o. Other factors/variables
Australia	●	●	●	●	●	●	●	●	●	●		●	●		
Austria	●	●		●											
Belgium	●	●					●	●	●	●		●			
Canada	●	●	●				●	●	●			●	●		
Chile	●	●	●	●	●	●	●		●	●	●	●	●		
Czech Republic	●	●			●		●	●	●	●					
Denmark	●	●	●	●	●	●	●	●	●	●		●	●		
Estonia	●	●				●	●		●	●					
Finland	●	●	●	●	●	●	●	●	●	●		●	●		
France	●	●	●	●	●	●	●	●	●	●		●	●		
Germany	●	●	●	●		●	●	●	●	●		●	●		●
Greece	●	●	●	●	●	●	●			●		●	●		
Hungary	●	●	●	●	●	●	●					●			
Iceland															
Ireland	●	●		●			●	●	●			●			

Country	a. Economic growth rate	b. Unemployment trends	c. Short-term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debt	d. Long-term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debt	e. Exchange rate	f. Fiscal gap projections	g. Effects of significant policy reforms	h. Immigration/emigration flows	i. Demographic changes	j. Health care costs	k. Inter-generational accounting	l. Civil servants' pensions obligations	m. Unfunded pensions liabilities	n. Answer is unknown	o. Other factors/variables
Israel	•	•	•	•	•	•	•		•	•		•			
Italy	•	•	•	•		•	•			•					
Japan	•	•		•	•	•	•		•	•					
Korea	•	•	•	•				•	•	•		•			
Luxembourg	•	•	•	•	•	•	•	•	•	•	•				
Mexico	•	•	•	•	•	•	•	•	•	•	•	•			
Netherlands	•	•	•	•	•	•	•	•	•	•	•	•			
New Zealand	•	•	•	•		•	•	•	•	•		•			
Norway	•	•	•	•					•	•					
Poland	•	•	•	•	•		•		•	•					
Portugal	•	•	•	•	•	•	•		•	•		•			
Slovak Republic	•	•	•	•	•	•	•		•	•		•			
Slovenia	•	•	•	•			•		•			•			
Spain	•	•	•	•	•	•	•		•				•		
Sweden	•	•	•	•	•	•	•	•	•	•	•				

Country	a. Economic growth rate	b. Unemployment trends	c. Short-term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debt	d. Long-term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debt	e. Exchange rate projections	f. Fiscal gap projections	g. Effects of significant policy reforms	h. Immigration/emigration flows	i. Demographic changes	j. Health care costs	k. Inter-generational accounting	l. Civil servants' pensions obligations	m. Unfunded pensions liabilities	n. Answer is unknown	o. Other factors/variables
Switzerland	●		●	●		●	●	●	●	●					
Turkey	●	●	●	●	●	●	●	●	●	●	●		●		
United Kingdom	●	●		●	●	●	●	●	●	●		●	●	●	
United States	●	●	●	●	●	●	●	●	●	●	●	●			
Russian Federation	●	●			●	●			●						●
Total	33	32	26	29	19	24	30	19	29	28	7	24	15	1	1
2007															

Notes:

g. Effects of significant policy reforms (e.g. pensions, health)

i. Demographic changes (excluding migration)- ageing, population growth

n. Answer is unknown (e.g. if produced by independent body and/or treated as classified material)

i. Demographic changes (excluding migration)- ageing, population growth

1. Based on Q.16. "Which of the following are regularly considered/included in th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underlying the budget?" and Q.14d "Is it required that the budget be based on long-term fiscal projections?"

*) Germany includes rate of inflati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male/female).

**) Russian Federation includes "oil and gas sector projections (prices, volumes of export, production); capital investment; real sector statistics; amortization" as other factors affecting long-term fiscal projections.

[표 A1.7] Are sensitivity analysis and independent reviews of the economic assumptions publicly available?

Country	Are sensitivity analyses of fiscal and/or macroeconomic models publicly available?	Are independent reviews/analyses of macroeconomic and/or fiscal assumptions publicly available?
Australia	●	○
Austria	○	●
Belgium	..	●
Canada	●	●
Chile	○	..
Czech Republic	●	●
Denmark	○	○
Estonia	●	○
Finland	○	..
France	●	●
Germany	●	●
Greece
Hungary	○	○
Iceland		
Ireland	●	●
Israel	○	○
Italy	●	●
Japan	●	..
Korea	○	●
Luxembourg	●	●
Mexico	●	..
Netherlands	●	●
New Zealand	●	○
Norway	○	○
Poland	●	○
Portugal	●	●
Slovak Republic	○	●
Slovenia	●	..
Spain	○	●
Sweden	●	●
Switzerland	●	..
Turkey	○	○
United Kingdom	●	●
United States	●	..

Country	Are sensitivity analyses of fiscal and/or macroeconomic models publicly available?	Are independent reviews/analyses of macroeconomic and/or fiscal assumptions publicly available?
Russian Federation	●	●
● = Publicly available	20	16
2007(all or partly)	14	
○ = Not publicly available	11	9
2007	19	
.. = Not applicable	2	8
2007	0	

Notes:

1. Based on Q. 51a, "Please indicate whether the following are made publically available:", row b and c.
2. 2007 data are taken from the publication GOV/PGC/SBO (2011)11, Table 2.2.

[표 A1.8] Risk taken into account for entitlement spending¹

	2007	2012	Countries
All entitlement spending	7	10	Chile, France, Hungary, Israel, Mexico, New Zealand, Norway, Slovak Republic, Spain, Turkey
Above a certain threshold of spending		1	Czech Republic
Other	14	13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Greece, Ireland, Luxembourg, Netherlands, Poland, Portugal, Sweden, United Kingdom
Not taken into account	11	9	Estonia, Finland, Germany, Italy, Japan, Korea, Slovenia, Switzerland, USA

Notes:

1. Based on Q.15a, "To what extent does the budget take into account risks/shocks to entitlement spending?"
2. Based on Q.10/2007, "To what extent are fiscal risks associated with entitlements evaluated in the budget documentation". The response options wer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response options in 2012(10 relies "Only on ad hoc basis" is included in the column "Other" above).
3. Austria and Portugal allocates unreserved funds/variable expenditure; Canada makes a global/general risk adjustment to cover risks/shocks to entitlement spending. Denmark and Sweden refer to the budgeting margin, which is a buffer between the expenditure ceiling and the capped expenditures. In Sweden the budgeting margin should amount to at least 1% of the capped expenditures in the current year, at least 1.5% for year t+1, at least 2% for t+2 and at least 3% for year t+3. This comprises all expenditures except interest on central government debt.

4. Australia notes that risks/shocks are incorporated where they can be predicted. Greece reports that risks ar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cases, while Poland explains that in certain cases risks may be taken into account only to a limited degree, dependent on the particular programme.
5. Belgium, Ireland and Luxembourg evaluate risks on an ad hoc basis.
6. Netherlands and United Kingdom reports that the budget is based on projections provided by CPB and OBR, respectively, the independent institutions. UK refers that the OBR forecasts contain analysis of the key risks surrounding the economic outlook and the fiscal outlook.
7. In Italy, contingency fund and freezings are foreseen as a manner of facing Risks and shocks.
8. In Portugal, contingency fund and freezings are foreseen in the manner of facing shocks and risks.
9. Russian takes risks into account for all entitlements spending.

[表 A1.9] Are there any fiscal rules that place limits on fiscal policy?¹

Country	of which Eurozone ²	No fiscal rules	Expenditure	Budget balance (deficit/ surplus)	Debt	Revenue
Australia			●	●	●	●
Austria	●		●	●●	●	
Belgium	●			●●●	●	
Canada				●		
Chile			●	●		
Czech Republic			●	●●	●	
Denmark			●	●●	●	
Estonia	●		●●	●●	●	
Finland	●		●	●●	●	
France	●		●●	●●	●	●
Germany	●			●●	●	
Greece	●		●	●●	●●	●
Hungary				●●	●●	
Iceland						
Ireland	●		●	●●	●●	
Israel			●	●		
Italy	●			●●●●	●	
Japan			●			
Korea			●			
Luxembourg	●		●	●●	●●	
Mexico				●		
Netherlands	●		●	●●	●	●

Country	of which Eurozone ²	No fiscal rules	Expenditure	Budget balance (deficit/ surplus)	Debt	Revenue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	●●	
Portugal	●		●	●●	●	
Slovak Republic	●			●●	●●	●
Slovenia	●		●	●●	●	
Spain	●		●●	●●	●	
Sweden			●	●●●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	
United States			●		●	
Russian Federation			●●			●
Total number of rules	15	2	24	53	30	5
2007	13		18	28	18	3
Total number of countries 2012		2	21	28	23	5
2007			9	23	18	4

Key: ● = Yes; = No

Notes:

1. Based on Q. 18 "Does the government have in place any fiscal rules that place limits on fiscal policy?"
2. Eurozone: subject to all rules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i.e. an annual budget deficit no higher than 3 percent of GDP (general government); and national gross debt lower than 60 percent of GDP or approaching that value.

[Table A1.10] Fiscal rules adopted in OECD countries - a comprehensive overview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Australia	Balance Rules	f. Other budget balance rule	Permanent	Other	Yes	Other		The rule is a Government commitment as part of the Fiscal Strategy Statement required by 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specified.
	Expenditure Rules	d.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growth rate	Temporary	Other	Yes	None	Discretionary; Mandatory; Extra-budgetary; Public corporations; Social security funds and Interest on debt	The rule is a Government commitment as part of the Fiscal Strategy Statement required by 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Revenue rules	c. The rule imposes an upper limit on the tax-to- GDP ratio	Permanent	Other	Yes	Other		The rule is a Government commitment as part of the Fiscal Strategy Statement required by 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specified.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Austria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No	Other		The Government may not issue further debt if the limit is reached.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Other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Internal Stability Pact (special instrument provided by constitution).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Constitutions / Other	Yes	Entity must implement measures	Discretionary; Mandatory and Interest on debt	Organic budget law
Belgium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Other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nternal Stability Pact (special instrument provided by constitution).
	Balance Rules	b. The rule targets a given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or cyclically-adjusted budget balance	Temporary	Internal rules/policies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Belgium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 Temporary	Internal rules/policies International Treaty	Yes/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ncluding two rules: an EU rule and a national one enshrined in internal policies.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Canada	Balance Rules	a.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in nominal terms	Temporary	Internal rules/policies	Yes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Not applicable
Chile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Temporary	Secondary legislation	Yes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Expenditure Rules	d.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growth rate	Temporary	Secondary legislation	Yes	Entity must implement measures	Discretionary; Extra-budgetary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Czech Republic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None	Discretionary; Mandatory; Extra-budgetary and Interest on debt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Denmark	Expenditure Rules	b.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nd Automatic sanctions	Discretionary and Mandatory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Denmark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stonia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Yes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Yes	Proposal presented to legislature	Mandatory	
	Expenditure Rules	e. The rule targets a specific expenditure to GDP ratio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Yes	Proposal presented to legislature	Discretionary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Finland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y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Finland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b.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Yes	Other	Discretionary and Mandatory	Major mistrust towards the government's fiscal policy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France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and Other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Quasi-automatic sanctions		Including two rules: an EU rule and a national one enshrined in national law which is similar to the EU rule.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No	None	Discretionary and Mandatory	
	Expenditure Rules	b.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No	None	Discretionary; Mandatory and Interest on debt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France	Revenue rules	a. The rule imposes constraints on the allocation of higher-than- expected revenues in good time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Germany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Constitutions Primary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y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Quasi-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Greece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and Other		When primary balance targets are not met, new measures have to be taken in order to reach the targeted number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ncluding two rules: an EU rule and the one set by the Troika (ECB, IMF, and EU).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nd Entity must implement measures	Discretionary; Mandatory; Extra-budgetary; Public corporations; Social security funds and Interest on debt	
	Revenue rules	a. The rule imposes constraints on the allocation of higher-than-expected revenues in good time	Temporary	International treaty	No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Greece	Debt rules	b. The rule targets a specific debt-to-GDP ratio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No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Hungary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Debt rules	b. The rule targets a specific debt-to-GDP ratio	Permanent	Constitutions	Yes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Hungary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reland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Internal rules/policies	Yes	None	Discretionary; Mandatory and Social security funds	
	Debt rules	c. The rule targets a given reduction in the debt-to- GDP ratio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Israel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Expenditure Rules	d.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growth rate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Proposal presented to legislature	Mandatory; Social security funds and Interest on debt	
Italy	Balance Rules	a.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in nominal terms	Permanent	Constitutions	Y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Balance Rules	b. The rule targets a given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or cyclically-adjusted budget balance	Permanent	Constitutions	Y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Constitutions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Italy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Other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Japan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Internal rules/policies	Yes	None	Discretionary and Mandatory	
Korea	Expenditure Rules	f. Other expenditure rule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Yes	None	Discretionary; Mandatory and Interest on debt	
Luxembourg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 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c.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growth rate	Temporary	Internal rules/policies	Yes	None	Discretionary; Mandatory; Extra-budgetar y; Public corporations; Social security funds and Interest on debt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Luxembourg	Debt rules	b. The rule targets a specific debt-to-GDP ratio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ncluding two rules: an EU rule and a national one which is stricter than the EU rule.
Mexico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Netherlands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Expenditure Rules	b.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No	Entity must implement measures and Proposal presented to legislature	Discretionary; Mandatory; Extra-budgetary and Social security funds	
	Revenue rules	d. Other revenue rule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No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Netherlands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Norway	Balance Rules	f. Other budget balance rule	Permanent	Internal rules/policies	Yes	Other		In times of high unemployment, one may spend more than the expected real return on the Fund capital in order to stimulate production and employment. Conversely, it may be appropriate to tighten fiscal policy during periods of high economic activity.
Poland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		Not responded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d.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growth rate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No	None	Discretionary and Mandatory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Poland	Debt rules	c. The rule targets a given reduction in the debt-to- GDP ratio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Yes/ NO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ncluding two rules : an EU rule and a national one enshrined in national Constitutions which Debt rules is similar to the EU rule.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Co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treaty	Yes/ NO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ncluding two rules : an EU rule and a national one enshrined in national Constitutions which Debt rules is similar to the EU rule.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Portugal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No	None	Discretionary and Mandatory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Other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 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Slovak Republic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Revenue rules	d. Other revenue rule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Slovak Republic	Debt rules	b. The rule targets a specific debt-to-GDP ratio	Permanent	Constitutions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Constitutions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Includes two debt rules: an EU debt rule and a national one enshrined in national law which is similar to the EU rule.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Slovenia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Quasi-automatic sanctions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Secondary legislation	No	None	Discretionary; Mandatory and Interest on debt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Spain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Constitutions Primary legislation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Quasi-automatic sanctions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Spain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Constitutions Primary legislation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Expenditure Rules	d. The rule targets a real expenditure growth rate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Discretionary; Mandatory and Social security funds	
	Expenditure Rules	e. The rule targets a specific expenditure to GDP ratio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Discretionary; Mandatory and Social security funds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Constitutions Primary legislation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corrective measures; A proposal with corrective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Sweden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		Not responded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Balance Rules	f. Other budget balance rule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Yes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Entity must implement measures and Proposal presented to legislature	Discretionary; Mandatory; Extra-budgetary and Social security funds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Switzerland	Balance Rules	b. The rule targets a given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or cyclically-adjusted budget balance	Permanent	Constitutions	Yes	There is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nd There are automatic sanctions		
United Kingdom	Balance Rules	c.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in cyclically-adjusted or structural terms	Permanent	Secondary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treaty	Yes/ No	The government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run must implement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two rules : an EU rule and a national one enshrined in national law. The Government sets fiscal policy to ensure that it remains on track to meet the fiscal mandate
	Balance Rules	d. The rule targets a specific budge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Debt rules	c. The rule targets a given reduction in the debt-to- GDP ratio	Permanent	Secondary legislation	Yes/ No	Other		The Government sets fiscal policy to ensure that it remains on track to meet the fiscal mandate
	Debt rules	d. The rule establishes a ceiling for the Government (or a subsector) debt in level or as a % of GDP	Permanent	International treaty	Yes/ No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of SGP		

Country	Rules	Type of rule	Temporary/ permanent?	Legal basis	Flexible during crisis	Enforcement procedures	If expenditure rules, kinds of expenditures:	Comments
United States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Temporary	Primary legislation	Yes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utomatic sanctions	Discretionary	
	Debt rules	a. The rule targets a specific amount of debt in nominal terms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Russian Federation	Expenditure rules	a. The rule targets a nominal expenditure ceiling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None	Discretionary and Mandatory	
	Expenditure rules	e. The rule targets a specific expenditure to GDP ratio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None	Discretionary and Mandatory	
	Revenue rules	a. The rule imposes constraints on the allocation of higher-than-expected revenues in good time	Permanent	Primary legislation	No	Enforcement procedures are not defined ex ante		

[附 A2.1] Levels of ceilings of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

Country	MTEF not in place	Ceiling level			
		Overall/ total expenditure	Other aggregate levels	Organisational level	Other level
Australia		●			
Austria		●	●		
Belgium	●				
Canada			●		
Chile		●			
Czech Republic					●
Denmark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rmany		●	●	●	
Greece				●	
Hungary	●				
Iceland					
Ireland				●	
Israel	●				
Italy		●			
Japan		●			
Korea		●	●		
Luxembourg	●				
Mexico		●			
Netherlands		●	●		
New Zealand		●	●		●
Norway		●			
Poland					●
Portugal		●	●		
Slovak Republic				●	
Slovenia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Russian Federation		●	●	●	

Country	MTEF not in place	Ceiling level			
		Overall/ total expenditure	Other aggregate levels	Organisational level	Other level
OECD	4	17	10	7	3
2007	9	12		4(ministry)	7

Key: ● = Yes; ○ = No

Notes:

1. Based on Q.25 "Does your government have a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in place?" and Q.27a "How are medium-term expenditure ceilings set in the budget?"
2. Data for 2007 is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PGC/SBO (2011)11, Table 1.1.
3. In Poland medium-term expenditure ceilings are set for 22 functional area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a performance budget classification.
4. New Zealand practices a MTEF on line item level in addition to the total and sub-aggregate levels.
5. Luxembourg intends to establish a MTEF in 2013 in order to comply with EU requirements. Investments budgets are currently planned with a time horizon of 3 years and included in the budget proposal submitted to parliament.
6. Norway specifies in their fiscal policy guidelines a limit on use of oil revenue that together with a ceiling for the tax level implies an indirect ceiling for expenditures.
7. Italy notes that starting from 2012, a rule on the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which provides an annual planned expenditure growth rate not higher than that stated by the European benchmark, is considered as an expenditure ceiling.

[표 A2.2] Legal basis, coverage and monitoring of MTEF

Country	Basis ¹	Approval ²	Mandatory expenditures included ³	Monitoring ⁴
Australia	○	●	●	○
Austria	●	●	●	○
Belgium	●			
Canada	○	●	●	●
Chile	○	●	●	○
Czech Republic	●	●	●	○
Denmark	●	●	●	●
Estonia	○	●	●	●
Finland	○	●	●	○
France	●	●	●	●
Germany	○	●	●	●
Greece	●	●	●	○

Country	Basis ¹	Approval ²	Mandatory expenditures included ³	Monitoring ⁴
Hungary				
Iceland				
Ireland	◐	◑	◑	◐
Israel				
Italy	◐	◑	●	◑
Japan	◐	◑	●	●
Korea	◑	◑	●	◑
Luxembourg				
Mexico	◑	◑	●	◑
Netherlands	◑	◑	●	◑
New Zealand	◐	◑	◑	◑
Norway	◐	◑	●	●
Poland	◑	◑	●	◑
Portugal	◑	◑	●	●
Slovak Republic	○	◑	◑	●
Slovenia	●	◑	●	●
Spain	◑	◑	●	●
Sweden	◑	◑	●	◑
Switzerland	◑	◑	●	◑
Turkey	◑	◐	●	◑
United Kingdom	○	●	●	◑
United States	◑	◐	◑	◑
Russian Federation	●	◑	●	◑
OECD	29	29	29	29
●	1	2	25	7
◑	4	15	3	12
◑	11	10	1	3
◐	10	2	0	7
○	3	0	0	0
2007				

Key:

●	Law - estimates	MoF	Yes	No formal monitoring
◑	Law - ceilings	Cabinet	No	Government reports to Parliament
◑	Law - MTEF and ceilings	Legislature	Other	Independent monitoring

●	Strategy/ policy on MTEF/ ceilings	Other		Other
○	Other			

Notes:

1. Based on Q.26.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legal/policy basis for the MTEF?"
2. Based on Q.28. "Generally speaking, who approves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3. Based on Q.29. "Are mandatory expenditures part of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4. Based on Q.30. "How is the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monitored?"

[표 A2.3] Length of medium-term expenditure ceilings¹

Level of ceilings	Length of ceilings/targets (including the budgeted fiscal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6 years or more	Total
Overall/ total expenditures		Chile, Italy, Japan, Spain, Sweden	Australia, Austria, Finland, Germany, Netherlands, New Zealand, Portugal, Slovenia, Switzerland	Korea, Mexico	Norway	17
Other aggregate levels (e.g by program or sector)	New Zealand	France	Austria, Denmark, Germany, Netherlands, Portugal	Canada, Korea	USA	10
Organisational level (e.g. whether the ministry level or other)		Ireland, Slovak Republic, Turkey	Estonia, Germany, United Kingdom	Greece		7
Other level		Czech Republic	New Zealand, Poland			3
Total	1	10	19	5	2	37
2007	0	7	6	5	0	18

Notes:

1. Based on Q.27b. "For each of the medium-term expenditure ceilings selected in Q27a please describe:"
2. The 2007 data is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SBO (2011)11, Table 1.2.
3. Some countries have more than one level of ceilings, notably Austria, Germany,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and Portugal. In such cases only one sub-aggregate level of ceiling is counted per country.
4. New Zealand applies different lengths on various levels of ceilings.
5. Russian Federation uses a three years MTEF.

[표 A3.1] Capital and operating budgets within central government¹

	2007	2012	
	Number	Number	Countries
Capital and operating budgets are integrated	15	11	Belgium, France, Germany, Hungary, Japan, Netherlands, Poland, Slovenia, Sweden, Turkey, USA
Other	3	2	Canada ² , Denmark ³
Separate capital and operating budgets	15	20	Australia, Austria, Chile,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Greece, Ireland, Israel, Italy, Korea, Luxembourg, Mexico,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itzerland, United Kingdom

Notes:

1. Based on Q.34. "Does the CBA require that line ministries separate their capital from operating budget requests?"
2. In Canada, the process to obtain CBA approval for funding requires line ministries to indicate operating and capital costs;
3. In Denmark, cost of capital are incorporated into the operating budget as part of the accrual budgeting system. Major investment projects are appropriated separately.
4. Russian Federation has separate operating and investment budgets.

[표 A3.2] Existence of a dedicated uni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Country	No	Yes, within the Ministry of Finance	Yes, as a separate agency under the Minister of Finance	Yes, with in a line ministry	Yes, as a separate agency under a line ministry	Delegated to line ministries (no MoF unit)	f. Yes, other unit
Australia	●						
Austria	●						
Belgium	●						
Canada			●	●			
Chile				●		●	
Czech Republic		●					
Denmark				●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rmany		●		●			●
Greece							●
Hungary				●		●	
Iceland							
Ireland		●	●				
Israel		●					
Italy	●						
Japan				●		●	
Korea		●	●	●	●		●
Luxembourg	●						
Mexico	●						
Netherlands		●		●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			
Portugal			●				
Slovak Republic	●						
Slovenia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Russian Federation		●		●			●
Total	15	11	4	9	1	4	4

Key: ● = Yes; ○ = No

Notes: 1. Based on Q.40a. "Does the Executive have a dedicated uni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3.3] CBA approval of capital/infrastructure projects of line ministries¹

Country	Yes for all projects	Yes for those projects above a certain threshold	Yes on ad hoc basis	Yes, other	No	Threshold (TIP)
Australia	●	●				30 mill AUD
Austria		●			●	5 mill EUR
Belgium		●			●	5500 EUR
Canada		●				..
Chile	●					
Czech Republic		●				100 mill CZK
Denmark		●				..
Estonia		●				..
Finland				●		
France	●				●	
Germany		●				Varying
Greece					●	
Hungary	●				●	
Iceland						
Ireland			●			
Israel	●					
Italy			●			
Japan					●	
Korea	●					
Luxembourg	●					
Mexi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				..
Norway	●	●				..
Poland	●	●				..
Portugal					●	
Slovak Republic	●	●				665000 EUR
Slovenia					●	
Spain	●	●				..
Sweden		●				..
Switzerland		●			●	Varying
Turkey	●					
United Kingdom		●				Varying
United States					●	
Russian Federation	●					
PPP	8	0	0	0	3	
TIP	0	9	0	0	1	
Both	6	7	2	1	6	
Total	14	16	2	1	11	0

Key: ●= PPP; ●=TIP; ●=Both

Notes: 1. Based on Q.42. "Is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required to approve capital/infrastructure projects of line ministries (even when these projects fall within the existing approved budget envelope of the responsible line ministry/agency)?"

[표 A3.4] Use of an absolute value-for-money analysis(CBA/CEA) of capital/infrastructure projects¹

Country	Yes for all projects	Yes for those projects above a certain threshold	Yes on ad hoc basis	Yes, other	No	Not applicable
Australia	○	○				
Austria				○		○
Belgium						
Canada	○		○			
Chile	●					
Czech Republic			○	○		
Denmark		○		○		
Estonia			○			○
Finland		●				
France	○		○			
Germany	●					
Greece	○		○			
Hungary			○			○
Iceland						
Ireland	●					
Israel		●				
Italy			●			
Japan	○	○				
Korea	○	○				
Luxembourg			●			
Mexi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Portugal	●					
Slovak Republic					○	○
Slovenia	○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Russian Federation	●					
PPP	9	1	1	1	0	4
TIP	0	7	5	2	1	1
Both	8	3	3	1	0	1
Total	17	11	9	4	1	6

Key: ○= PPP; ○=TIP; ●=Both

Notes: 1. Based on Q.43a, "In general, does your government apply an absolute value-for-money analysis (such as a cost-benefit or cost effectiveness analysis) that takes a whole-of-life (net present value) approach to prospective capital projects?"

[丑 A3.5] Use of an relative value-for-money analysis (comparators) of capital/infrastructure projects¹

Country	Yes for all projects	Yes for those projects above a certain threshold	Yes on ad hoc basis	Yes, other	No	Not applicable
Australia	●	●				
Austria					●	●
Belgium	●					
Canada			●			
Chile					●	
Czech Republic				●	●	
Denmark					●	
Estonia			●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
Hungary			●			●
Iceland						
Ireland	●					
Israel		●				
Italy					●	
Japan					●	
Korea		●		●		
Luxembourg			●			
Mexico	●				●	
Netherlands		●				
New Zealand	●				●	
Norway						●
Poland						●
Portugal	●					
Slovak Republic					●	●
Slovenia	●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			
United States			●			
Russian Federation					●	
PPP	6	2	1	1	0	3
TIP	1	1	3	1	5	2
Both	3	2	7	0	5	2
Total	10	5	11	2	10	7

Key: ●= PPP; ○=TIP; ●=Both

Notes: 1. Based on Q.43b. "In general, does your government apply a relative value-for-money analysis (such as public sector comparators) that takes a whole-of-life (net present value) approach to prospective capital projects?"

[표 A3.6] Use of specific tools in value-for-money analysis¹

Country	Internal rate of return	Residual income	Net present value	Payback period	Qualitative expert opinion	Analysis of the capacity /willingness of users to pay	Not applicable
Australia			●		●	●	●
Austria		●	●	●	●	●	●
Belgium							
Canada	○		●	●	●		
Chile	●						
Czech Republic	○		●				
Denmark	●		●				
Estonia	○	●	○		○	○	○
Finland	●			●			
France	○		○		○		○
Germany			●		●		
Greece	○		●				
Hungary			○				○
Iceland							
Ireland							●
Israel			●		●	●	
Italy	○	○	○	○	○	○	○
Japan			●				
Korea	●		●		●		
Luxembourg					●		●
Mexico	●		●		●		
Netherlands	○		●		○		
New Zealand			●		○	○	
Norway			○	○	○	○	○
Poland	●		●	●	●	●	
Portugal	●	●	●	●			
Slovak Republic							
Slovenia	●		●				
Spain	○	●	○			○	
Sweden	●		●	●			
Switzerland							
Turkey	●	●	●	●	●		
United Kingdom	○	○	●		●	●	
United States							
Russian Federation	●		●				
PPP	6	2	4	1	6	5	3
TIP	3	2	4	3	3	3	4
Both	10	3	17	5	8	3	2
Total	16	5	21	8	14	8	6

Key: ○= PPP; ○=TIP; ●=Both

Notes: 1. Based on Q.45. "Which of the following tools are used in the value-for-money analysis?"

[표 A4.1] Central Budget Authority

Country	Australia	Austria	Belgium	Czechia	Denmark	Germany	France	Greece	Hungary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alaysia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States	Russia	OECD total		
Head of CBA 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1 11	1	
Location of CBA 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8 1 0 1 3		
Relations with publi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1 15 0 7 0	
Producing end-of-year repor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0 11 0 2 0	
Producing mid-year repor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1 6 0 3 3	
Producing supplementary budge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5 6 0 1 1	

Country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States	Russia	OECD total
Monitoring performance of ministr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8	
Authorisation of line ministries outlays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6 9	
Testifying before Legisl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1 10	
Developing Executive Budget Propos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7 6	
Negotiating with ministr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7 5	

of CB A³

Country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c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States	Russia	OECD total
Determining ceilings for ministr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Methodology for fiscal projecti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Methodology for macro-economic projecti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Drafting Budget/Circular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key:

●	Ministry of Finance/Economy	Senior civil servant	Sole responsibility of CBA
●	President's Office	Political appointee	
●	Prime Minister's Office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CBA and other institutions
●	Independent agency		
●	Other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	Other	Not a responsibility of CBA
○	CBA is split		Not applicable

Notes:

1. Based on Q.1a. "Where is the function of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CBA) located in your government?"
2. Based on Q.2. "Please indicate whether the head of the CBA is:"
3. Based on Q.3. "In practice, please indicate which of the below activities are responsibilities of the CBA."
4. CBA is split on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Australia)
5. CBA is split on Department of Finance and Treasury Board Secretariat (Canada)
6. CBA is split on Department of Finance 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Ireland)
7. CBA is split on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Russian Federation)
8. Denmark explains that there is not a clearly defined CBA within the Ministry of Finance; therefore there is not as such a head of the CBA other than the Minister of Finance and the Permanent Secretary (senior civil servant).

[표 A4.2] Content of the annual budget memorandum / circular / instruction¹

Country	No such document	Rules for budget process and main forms	Macroeconomic assumptions to be used	Information on government priorities	Spending ceilings/targets
Australia		●			
Austria		●			●
Belgium		●			●
Canada		●			
Chile		●	●		●
Czech Republic		●	●		●
Denmark		●	●	●	●
Estonia		●	●	●	●
Finland		●	●	●	
France		●	●	●	
Germany		●		●	●
Greece		●			●
Hungary		●	●		
Iceland					
Ireland		●	●		●
Israel		●	●	●	
Italy		●			●
Japan		●		●	●
Korea		●	●	●	●
Luxembourg		●	●	●	●
Mexico		●	●		●
Netherlands		●	●	●	●
New Zealand		●			
Norway		●			●
Poland		●			
Portugal		●			
Slovak Republic		●			
Slovenia		●	●	●	●
Spain		●		●	
Sweden		●	●	●	●
Switzerland		●	●		●
Turkey		●			
United Kingdom		●	●	●	

Country	No such document	Rules for budget process and main forms	Macroeconomic assumptions to be used	Information on government priorities	Spending ceilings/targets
United States		●	●	●	●
Russia		●			●
OECD	0	33	18	15	20
2007		31	14	10	17

Key: ● = Yes; ○ = No

Notes:

1. Based on Q.32. "What type of information is contained in the annual budget circular/memorandum issued by the CBA to guide line ministries' preparations of budget proposals/budget estimates?"
2. Canada has established rules and templates for expenditure estimates, but not for the budget.
3. The 2007 data is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SBO (2011)11, Table 3.2.

[표 A4.3] Expenditure ceilings accompanying ministry's initial spending request¹

	2007	2012	Countries(2012)
Total/overall expenditure of the line ministry	12	21	Austri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Germany, Greece,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itzerland
Other aggregate levels (e.g. programme or sector)	15	12	Belgium, Denmark, Germany, Italy, Korea, Luxembourg, New Zealand, Portugal, Slovenia, Sweden, Turkey, United Kingdom
Agency level or other organisational level		4	Chile, Germany, Mexico, Poland
No such limits	6	5	Australia, Canada, France, Hungary, USA

Notes:

1. Based on Q.31. "Does the government impose budget ceilings on the initial spending requests of each line ministry?"
2. The 2007 data are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PGC/SBO (2011)11, Table 3.3.
3. Some countries have more than one level of ceilings, notably Denmark, Germany, Italy, Korea, Luxembourg, Poland and Slovenia.
4. Russian Federation sets ceilings for total/overall expenditure, other aggregates and for agencies.

[A4.4]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ministries in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¹

	2007	2012	Countries
Resolved by the President		2	Chile, USA
Resolved by the Prime Minister	4	5	Australia, France, Greece, Japan, Turkey
Resolved by the cabinet	4	13	Czech Republic, Estonia, Germany,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weden, Switzerland
Resolved by the finance minister	14	7	Denmark, Israel, Italy, Korea, Slovenia, Spain, United Kingdom
The issue is sent to a ministerial committee	3	1	Belgium
Other	8	5	Austria, Canada, Finland, Hungary, Ireland
OECD	33	33	

Notes:

1. Based on Q.33. "During the budget negotiation process, who has the final/ultimate decision making power to resolve/settle disputes?"
2. The 2007 data are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PGC/SBO (2011)11, Table 3.4.
3. In Austria and Hungary disputes are resolved by the (federal) government.
4. In Canada disputes are jointly resolv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Finance.
5. In Finland disputes are resolved by meetings of government parties' chairpersons (e.g. during this parliamentary term the meetings includes prime minister, minister of finance and 4 other ministers)
6. In Ireland disputes are resolved partly by chief executive, partly by cabinet and partly by finance minister.
7. Russian Federation resolves disputes with the President.

[표 A5.1] Number of line item appropriations contained in the budget

Country	Number of line item appropriations in the Executive Budget Proposal		Comments
	2007	2012	
Australia	175	900	Budget Paper 4 (Agency Resourcing) outlines appropriations proposed for the Budget year. The 2012 document is 154 pages long and contains many lines per page, with multiple appropriation items per line. Less than 1000.
Austria	1800	74	
Belgium	394	2124	Budget 2012: 2456 line item appropriations (332 are mentioned only pro memorie)
Canada	200	190	
Chile		7	7 with as many items as needed
Czech Republic	1000	900	The lowest possible detail in the Act on State Budget is budget indicator(divided into line items of budget classification). Each chapter (14 line ministries and 22 other institutions with separate budgets) holds approximately 40 budget indicators but it varies by chapter. Less than 1000.
Denmark	1300	1755	
Estonia		1600	
Finland	476	541	
France	130	180	
Germany	6000	6000	
Greece	700	1019	Around 1,000 line items each for appropriations of expenditures and revenues. (610 expenditures, 409 revenues)
Hungary	900	920	
Iceland	1096		
Ireland	843	800	
Israel	1479	900	Less than 1000.
Italy	1500	168	Expenditure Programs voted by the Parliament
Japan	603	23000	
Korea	90	96	
Luxembourg		4400	
Mexico	110	2100	Four dimensions: Ministry, Budgetary program, Responsible Unit, Chapter of expenditure. More than 2000.
Netherlands	200	122	
New Zealand	800	1000	
Norway	1400	1673	
Poland	200	234	
Portugal	742	46000	

Country	Number of line item appropriations in the Executive Budget Proposal		Comments
	2007	2012	
Slovak Republic	1000	6	2 revenue lines and 4 expenditures lines.
Slovenia	8500	462	
Spain	4593	15749	
Sweden	500	500	
Switzerland	1090	1000	
Turkey	34583	40000	
United Kingdom	1000	40	Only new items in the Budget/Autumn Statement (20 to 40 items depending). In the Supply Estimates voted by Parliament there is a huge level of detail by organisation.
United States	1514	1700	1,042 accounts with discretionary BA; about 1700 spending accounts in the Budget
Russian Federation		12000	
OECD average	2417	4732	

Notes:

1. Based on Q. 50. "50a. How many line item appropriations are contained in the Executive Budget Proposal?"
2. The 2007 data are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PGC/SBO (2011)11, Figure 4.1
3. In Portugal, the number of 2007 survey refers to the number of ent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would be 87500 when calculated by the same criteria of 2012 survey.

[E A5.2] Do agencies receive lump-sum appropriations for operating expenditure?

	2007	2012	Countries
Yes, they receive a lump-sum with no limits	7	6	Australia, Ireland, New Zealand, Norway, Sweden, United Kingdom
Yes, they receive a lump-sum but with sub-limits	8	11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Hungary, Italy, Luxembourg, Portugal, Slovak Republic
Other	8	8	France, Germany, Japan, Netherlands, Poland, Slovenia, Switzerland, United States

Notes: Based on Q.70a. "Generally speaking, do agencies receive lump-sum appropriations for their operating expenditure?"

1. In France, the operators of the government shall be notified of an appropriation which is paid several times over the year.

2. In Japan, if the pre-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is given, line items in the same group (which are policy-oriented; called the group "KOU") might be allowed to be diverted.
3. In the Netherlands, in general the agencies are financed by the commissioner(s) of the agency via a model of price * quantity. However, some (parts of) agencies are financed via lump-sums.
4. In Poland, each agency/executive organisation receives a lump-sum appropriation covering expenditures linked to target im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5. In Slovenia, some agencies receive a lump-sum appropriation covering both operational and capital expenses, with sub-limits on expenditures for salaries.
6. In Switzerland, lump-sum appropriations only exist for MPM-agencies. The budget of MPM-agencies consists typically of two lump-sum appropriations (operating and capital expenditures) and separate line items for transfers (i.e. to states).
7. In the United States, smaller agencies (and accounts) may receive lump-sum with no limits. Large agencies may receive several appropriations for their operating expenses, often with sub limits.
8. Some countries (Chile, Greece, Israel, Korea, Mexico) have reported lump-sum appropriations but marked all options for sub-limits. Japan notes that it practices a certain flexibility on line items in the same group. Those are understood to not practice lump-sum. Austria, Spain and Turkey report no lump-sum appropriations. In Greece, ministries receive dispensable (100%) appropria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for mandatory expenses which are based on contracts and specific commitments or obligation (e.g. payroll, rents and electricity bill). For other expenses, CBA determines th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s during the year.
9. Luxembourg restricts sub-limit appropriations to some of the administrations (mainly secondary schools) and the Etablissements Publics.
10. Russian Federation sets sub-limits on all options.
11. The 2007 data are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PGC/SBO (2011)11, Table 4.3.

[표 A5.3] Which sub-limits are set for lump-sum appropriations for operating expenditure?

	2012	Countries
Limits on wages	9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Hungary, Luxembourg, Slovak Republic
Limits on capital spending	3	Canada, Chile, Italy, Slovak Republic
Limits on travel	1	Canada, Chile
Limits on office expenses	1	Belgium, Chile
Other limits	4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Notes: Based on Q.70b. "As you selected option b above, please indicate which sub-limits are in place"

1. Chile practices limits on training personnel.
2. In Czech Republic, the line ministries receive limits for wages and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educational programmes.
3. In Denmark, a limit on debt is a part of the accrual budgeting system.
4. Estonia practices limits on wages and operating costs.
5. In Finland, only certain expenses can be paid with lump-sum appropriations, such as wages and rents.

[표 A5.4]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reallocate funds within their responsibility

Country	Reallocations not permitted	Yes, permitted up to a certain threshold	Yes, permitted without any limit/threshold	Other type of permission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Australia		●			●	○	○
Austria		●			●	○	○
Belgium		●			○	○	●
Canada			●		○	●	●
Chile				●	●	○	○
Czech Republic		●			●	○	○
Denmark		●			●	●	○
Estonia		●			○	○	○
Finland			●		○	●	○
France		●			●	○	○
Germany				●	●	○	●
Greece		●			●	○	○
Hungary		●			●	●	●
Iceland							
Ireland			●		●	●	○
Israel			●		●	●	○
Italy		●			●	●	●
Japan			●		●	●	○
Korea		●			●	○	○
Luxembourg				●	●	○	○
Mexico			●		●	○	○
Netherlands			●		●	○	○
New Zealand		●			○	●	●
Norway	●						
Poland				●	●	○	●

Country	Reallocations not permitted	Yes, permitted up to a certain threshold	Yes, permitted without any limit/threshold	Other type of permission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Portugal			●		●	○	○
Slovak Republic			●		●	○	○
Slovenia		●			○	○	●
Spain		●			●	○	●
Sweden	●						
Switzerland		●			○	●	○
Turkey		●			●	○	○
United Kingdom			●		○	○	○
United States			●		●	●	○
Russian Federation					●	○	○
Total	2	16	11	4	23	11	9
●=Ex-ante approval					23	7	8
○=Ex-post approval					0	4	1
○=No approval needed					8	20	22

Notes:

1. Based on Q.72a. "Can line ministers re-allocate funds within their own budget envelope?"
2. Based on Q.72b. "Please indicate what institution(s) must grant approval for line ministers to re-allocate funds in their budget envelope?"
3. The 2007 data are retrieved from the publication GOV/PGC/SBO (2011)11, Table 4.1.
4. In Greece, the payroll ceiling cannot be increased and capital expenses cannot be decreased as they are subject to parliamentary authority (ex-ante approval). Reallocation of appropriations between either different areas (major category) of expenses or between different line ministries is permitted with the approval of Minister of Finance.

[표 A5.5] Restrictions for the executive to increase spending after the budget has been approved by the legislature(Q74/76/79/82)

Country	No, not permitted	Yes without a threshold and without requiring any approval	Yes without a threshold but requiring approval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without approval, but above this threshold approval is required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and also requiring approval	Other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Australia	D		O;I			M	●	○	○
Austria				O;I	M;D		●	○	○
Belgium	M;O;I		D				○	●	●
Canada						M;D;O;I	●	●	○
Chile	M;D;O;I								
Czech Republic	M;D			O;I			●	●	●
Denmark	D;O	M	I				●	●	○
Estonia		M				D;O;I	○	○	○
Finland	D;O;I		M				●	○	●
France	M;D;O;I								
Germany						M;D;O;I	●	●	○
Greece				M;D;O;I			●	●	○
Hungary	M		I	D;O			○	●	●
Iceland									
Ireland	M		D;O;I				●	●	○
Israel	M;D;O;I								
Italy					M;D;O;I		●	●	○
Japan			M;D;O;I						
Korea	M;D;O;I								
Luxembourg	D		M;O;I				●	●	○
Mexico	D;O;I	D;O;I	M				●	○	○
Netherlands	D;O;I	M							
New Zealand			M;D;O;I				○	●	●

Country	No, not permitted	Yes without a threshold and without requiring any approval	Yes without a threshold but requiring approval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without approval, but above this threshold approval is required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and also requiring approval	Other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Norway	M;D	O;I							
Poland	M;D;O;I								
Portugal	M					D;O;I	●	○	○
Slovak Republic		I				M;D;O	●	○	●
Slovenia						M;D;O;I	○	○	●
Spain			M;I		D;O		●	●	○
Sweden				M;D;O;I			●	●	○
Switzerland			M;D;O;I				●	●	○
Turkey	O		M;D;I				●	●	○
United Kingdom			D;O;I		M		●	○	○
United States	D;O;I	M							
Russian Federation			I			M;D;O	●	●	○
Total(countries)	18	7	14	5	4	7	25	25	25
●=Ex-ante approval							20	10	7
●=Ex-post approval							0	6	0
○=No approval needed							5	9	18

Key: M = Mandatory, D = Discretionary, O = Operational, I = Investment

Notes:

- Based on Q.74a/76a/79a/82a. "Is an increase in mandatory/discretionary/operational/investment spending by the Executive possible after the budget has been approved by the Legislature?"
- Based on Q.74b/76b/79b/82b. "Please indicate what institution(s) must grant approval in this occurrence"
- In Australia: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by ministry of finance/ economy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operational spending, the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is not needed. If an increase of operational

- spending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4. In Canada: If an increase of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not needed
 5. In Czech Republic: In case of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no approval is needed if the increase occurs within the same program. However, the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is ex-ante if the increase occurs between the programs up to 10% of budgetary amount of the program. And the approval from legislature is ex-ante if the increase occurs between the programs higher than 10% of budgetary amount of the program.
 6. In Estonia income-dependent costs from certain institutions' economic activities may be increased (except mandatory spending) without further approval.
 7. In Germany: If an increase of operational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mandatory, discretionary and investment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not needed. Relates only to unexpected budget overruns in cases of unforeseen and compelling needs that can't wait until the following year. Approval of 5 million Euro and more by the Budget Committee.
 8. In Luxembourg: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9. In Portugal: Approval is only needed for Discretionary and operational expenditure increases. Only permitted in order to support additional spending if a public body has own revenue higher than predicted (budget).
 10. In Slovak Republic increased spending is permitted only if the budget holder reach other savings.
 11. In Slovenia: if there is an increase in one area there has to be decrease in spending in other areas.
 12. In Spain: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If an increase of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not needed.
 13. In Sweden: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post.
 14. In Turkey: If an increase of discretionary and investment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mandatory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not needed.
 15. In United Kingdom: If an increase of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 ante, whereas if an increase of mandato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16. In Russian Federation: After the budget is approved by the legislature and the President, all changes in budget can be made only through a new federal act (Supplementary Budget) presented by the executive and approved by the legislature.

[표 A5.6] Restrictions for the executive to cut spending after the budget has been approved by the legislature (Q75/77780/83)

Country	No, not permitted	Yes without a threshold and without requiring any approval	Yes without a threshold but requiring approval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without approval, but above this threshold approval is required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and also requiring approval	Other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Australia	M		D;O;I				●	●	○
Austria	M	D;O;I							
Belgium	M	D;O;I							
Canada						M;D;O;I	●	●	●
Chile	M;D	O	I				●	○	○
Czech Republic	M;D						●	●	○
Denmark	M	D;O;I				O;I	●	●	○
Estonia	M	D;O;I							
Finland	M;D;O;I								
France				M;D;O;I			●	○	○
Germany	M		O			D;I	●	○	○
Greece			M;D;O;I				●	●	○
Hungary	M		O;I	D			●	●	●
Iceland									
Ireland			M;D;O;I				●	●	○
Israel	M	D;O	I				●	○	○
Italy	M		D		O;I		●	○	○
Japan							○	○	○
Korea	M		M;D;O;I				○	○	○
Luxembourg	M	D;O;I				D;O;I	○	○	○
Mexico		M;D;O;I							

Country	No, not permitted	Yes without a threshold and without requiring any approval	Yes without a threshold but requiring approval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without approval above this threshold is required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and also requiring approval	Other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Netherlands	M;D;O;I								
New Zealand			M;D;O;I				○	●	●
Norway	M;D;O;I								
Poland		D;O;I	M				○	●	○
Portugal	M	D;O;I							
Slovak Republic		M;D;O;I							
Slovenia						M;D;O;I	●	○	●
Spain		M;D;O;I							
Sweden	M	D;O;I							
Switzerland	M;D;O;I								
Turkey	M	D;I	○				●	○	○
United Kingdom	M;D;I		○				●	○	○
United States	M;D;O;I								
Russian Federation			I			M;D;O	●	●	○
Total(countries)	23	14	14	2	1	4	18	18	18
●=Ex-ante approval							14	7	4
○=Ex-post approval							0	3	0
○=No approval needed							4	8	14

Key: M = Mandatory, D = Discretionary, O = Operational, I = Investment

Notes:

1. Based on Q.75a/77a/80a/83a. "Does the Executive have the authority to cut/cancel/rescind mandatory/discretionary/operational/investment spending once the budget has been approved by the Legislature?"
2. Based on Q.75b/77b/80b/83b. "Please indicate what institution(s) must grant approval in this occurrence"
3. In Canada: If a cut of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by ministry of finance/ economy is ex- ante, whereas if a cut of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is not needed. If a cut of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 ante, whereas if a cut of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If a cut of discretionary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not needed.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economy, legislature and Treasury may be need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change.
4. In Czech Republic, the government can freeze the discretionary spending if the revenue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projected amount in the approved budget. However, the freeze of the discretionary spending can be eliminated if the revenue recovers to the level of projection.
5. In Germany: Regarding the cut in discretionary and investment spending,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federal ministry/ministries, rule that commitments or expenditure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
6. In Greece: In the cut of mandatory spending, the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or legislature is ex-ante in most cases. The cut of investment spending needs ex-post approval of legislature whereas certain categories of capital/investment expenses (provision of capital mobile assets, military constructions, provisions and mobile assets) cannot be decreased as they are subject to parliamentary authority (ex-ante approval of legislation). In a cut of discretionary and operational spending (except obligatory expenses based on contracts, commitments and law), there are no restrictions for the executive.
7. In Hungary: If a cut of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by ministry of finance/ economy is ex- ante, whereas if a cut of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 economy is not needed.
8. In Korea there is no specific law governing the cancellation of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appropriations.
9. In Japan: If a cut of mandatory spending, the approval by legislature is both ex- ante and ex- post, whereas if a cut of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post.
10. In Slovenia the Government can restrain the execution of the budget for limited period if economic assumption change to great extent.
11. In Russian Federation: If a cut of mandatory and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 ante, whereas if a cut of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Table A5.7]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discretionary,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within their responsibility (Q78/81/84)

Country	No, carry over not permitted	Yes without a threshold and without requiring any approval	Yes without a threshold but requiring approval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without approval, but above this threshold approval is required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and also requiring approval	Other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Australia						D; O; I	●	●	○
Austria		D; O; I							
Belgium	D; O; I								
Canada				O; I	D		●	●	●
Chile	D; O; I								
Czech Republic		D; O; I							
Denmark		D; O; I							
Estonia			I		D; O		●	○	○
Finland						D; O; I	○	○	○
France				D; O; I			●	○	○
Germany						D; O; I	●	○	○
Greece	D; O; I								
Hungary			D; O; I				○	○	●
Iceland									
Ireland	D; O				I		●	●	○
Israel		D	O; I				●	○	○
Italy	D; O				I		●	○	○

Country	No, carry over not permitted	Yes without a threshold and without requiring any approval	Yes without a threshold but requiring approval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but above this threshold approval is required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and also requiring approval	Other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Japan			D; O; I				●	●	○
Korea						D; O; I	○	○	○
Luxembourg	D; O					I	○	○	○
Mexico	D; O; I								
Netherlands					D; O; I		●	○	○
New Zealand					D; O; I		○	●	●
Norway					D; O; I		●	○	○
Poland						D; O; I	●	●	●
Portugal			D; O; I				●	○	○
Slovak Republic	O	I				D	●	○	●
Slovenia						D; O; I	○	○	●
Spain					D; O; I		●	○	○
Sweden				D; O; I			●	○	○
Switzerland			D; O; I				●	○	○
Turkey	O					D; I	●	●	●
United Kingdom					D; O; I		●	○	○
United States						D; O; I	○	○	○

Country	No, carry over not permitted	Yes without a threshold and without requiring any approval	Yes without a threshold but requiring approval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but above this threshold approval is required	Yes up to a certain threshold and also requiring approval	Other	Approval of Ministry of Finance/Economy	Approval of legislature	Other type of approval
Russian Federation					D; O; I		●	○	○
Total (countries)	9	5	6	3	9	10	26	26	26
●=Ex-ante approval							19	6	7
◐=Ex-post approval							0	3	0
○=No approval needed							7	17	19

Key: D= Discretionary, O= Operational, I= Investment

Notes:

1. Based on Q.78a/81a/84a. "For discretionary/operational/investment spending, can line ministers carry over unused funds or appropriations from one year to another?".
2. Based on Q.78b/81b/84b. "Please indicate what institution(s) must grant approval in this occurrence?"
3. In Australia: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ante, whereas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operational or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4. In Austria: The carry over is possible without any approval, the USE of unused funds has to be approved by MoF.
5. In Czech Republic the carry-over is possible without approval if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program which is specified in the organic budget law does not change. However,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cabinet) is ex-ante for the carry-over of the operational spending crossing over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program.

6. In Finland: If the item is a transferable appropriation, carry over is possible without approval.
7. In Korea: Items specified in the law may be carried over. The amount contracted but not disbursed within the year for unavoidable reason can be carried over. Ex-post report to MoF and National Audit Office.
8. In Luxembourg: Most of the investment spendings are managed via funds where unused funds are kept from one year to another.
9. In Switzerland: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of other (the cabinet) is ex-ante, whereas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operational and investment spending, such approval is not needed.
10. In Turkey: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discretionary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ante, whereas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post.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discretionary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ex-ante, whereas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investment spending, other type of approval is not needed.
11. In USA: If the legislature provides multi-year (vs annual) availability, carry-over is permitted without approval.
12. In Russian Federation: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operational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ex-ante, whereas if restrictions for ministers to carry over unused funds on discretionary or investment spending, the approval of legislature is not needed.

[E A5.8] Is it possible for ministries/agencies to borrow against future appropriations?

	Operating expenditure	Investment expenditure
Australia	○	○
Austria	○	○
Belgium	○	○
Canada	○	○
Chile	○	○
Czech Republic	○	○
Denmark	●	○
Estonia	○	○
Finland	○	○
France	○	○
Germany	●	●
Greece	○	○
Hungary	○	●
Iceland		
Ireland	○	○
Israel	○	○
Italy	○	○
Japan	○	○
Korea	○	○
Luxembourg	○	●
Mexico	○	○
Netherlands	○	○
New Zealand	●	●
Norway	○	○
Poland	○	○
Portugal	○	○
Slovak Republic	○	○
Slovenia	○	○
Spain	○	○
Sweden	●	●
Switzerland	○	○
Turkey	○	○
United Kingdom	○	○
United States	○	○
Russian Federation	●	●
● = Yes, without any limit/ threshold	0	0
2007	0	0
● = Yes, up to certain threshold	4	5
2007	7	8
○ = Not permitted	29	28
2007	25	24

Note: Based on Q.73. "For operating and investment expenditures, can the line ministries or agencies overspend in one year and compensate by underspending in the following year (e.g. borrow against future appropriations)?"

[표 A7.1] Are the economic assumptions underlying the budget and the methodology used to establish them published/publicly available?¹

Country	Are the methodology and the economic assumptions for establishing fiscal projections publicly available?
Australia	●
Austria	●
Belgium	●
Canada	●
Chile	●
Czech Republic	●
Denmark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Hungary	●
Iceland	
Ireland	●
Israel	●
Italy	●
Japan	●
Korea	○
Luxembourg	●
Mexi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Portugal	○
Slovak Republic	○
Slovenia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Russian Federation	●
● = Publicly available	27
2007 (all or partly)	21
○ = Not publicly available	6
2007	12
.. = Not applicable	0
2007	0

Note:

1. Based on Q.51a, "51b. Please indicate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is selected budgetary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row a,

[표 A7.2] Public available budget documents

Country	Pre-budget report	Budget proposal	Citizens budget
Australia	○	●	●
Austria	○	●	●
Belgium	○	●	○
Canada	○	●	●
Chile	●	●	●
Czech Republic	○	●	○
Denmark	○	●	○
Estonia	●	●	●
Finland	○	●	●
France	●	●	◐
Germany	○	●	○
Greece	●	●	○
Hungary	◐	●	○
Iceland			
Ireland	●	●	○
Israel	●	●	●
Italy	○	●	●
Japan	●	●	●
Korea	○	●	●
Luxembourg	●	●	○
Mexico	●	●	●
Netherlands	○	●	●
New Zealand	●	●	●
Norway	○	●	●
Poland	○	●	○
Portugal	●	●	○
Slovak Republic	○	●	○
Slovenia	◐	●	○
Spain	◐	●	○
Sweden	●	●	●
Switzerland	○	●	○
Turkey	●	●	◐
United Kingdom	●	○	○
United States	○	●	○
Russian Federation	●	●	●
● = Publicly available 2007	14	32	15
◐ = Not publicly available 2007	3	0	2
○ = Not applicable 2007	16	1	16

Note:

1. Based on Q.51a, "Please indicate whether the following are made publically available:", row e, f and l.

[표 A7.3] Elements included in budget documents presented to the legislature¹

Country	Medium-term fiscal policy objectives	Macro economic assumptions	Budget prioritie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plan (all revenues/ expenditures, off budget expenditures and extra budgetary funds)	financial plan encompassing all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all levels of government (including regional and local)	Comprehensive table of tax expenditures	Non-financial performance targets	Medium-term perspective on total revenue & expenditure	Long-term perspective on total revenue and expenditure (10+ years)	Clearly defined appropriations for legislature vote	Linkage of appropriations to administrative units	Text of legislation of policies proposed in budget
Australia	●	●	●	●	○	●	●	●	○	●	●	○
Austria	●	●	●	○	○	○	●	●	○	●	●	●
Belgium	●	●	●	○	○	●	○	○	●	●	●	○
Canada	●	●	●	○	○	●	●	●	○	●	●	○
Chile	●	●	●	○	○	○	●	●	○	●	●	●
Czech Republic	●	●	●	●	●	●	○	●	○	●	●	●
Denmark	○	○	○	○	○	○	○	○	○	○	○	●
Estonia	●	●	●	●	●	●	●	●	○	●	●	●
Finland	●	●	●	●	○	●	●	○	○	●	●	●
France	●	●	●	○	○	●	●	●	○	●	●	○
Germany	●	●	●	○	○	○	○	●	○	●	○	○
Greece	●	●	●	●	●	●	●	●	○	●	●	○
Hungary	●	●	●	○	○	●	○	●	○	●	●	●
Iceland												
Ireland	●	●	●	●	○	●	●	●	○	●	●	○
Israel	●	●	●	○	○	●	○	○	○	○	●	●
Italy	○	○	●	●	○	●	●	○	○	●	○	●
Japan	●	●	●	○	○	●	●	●	●	●	●	●

Country	Medium-term fiscal policy objectives	Macro economic assumptions	Budget prioritie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plan (all revenues/ expenditures, off budget expenditures and extra budgetary funds)	financial plan encompassing all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all levels of government (including regional and local)	Comprehensive table of tax expenditures	Non-financial performance targets	Medium-term perspective on total revenue & expenditure	Long-term perspective on total revenue and expenditure (10+ years)	Clearly defined appropriations for legislature vote	Linkage of appropriations to administrative units	Text of legislation of policies proposed in budget
Korea	●	●	●	○	○	●	●	●	○	●	●	○
Luxembourg	●	●	●	●	●	○	○	○	○	●	●	●
Mexico	●	●	●	●	●	○	●	●	●	●	●	●
Netherlands	●	●	●	●	○	●	●	●	○	○	○	○
New Zealand	●	●	●	○	○	●	●	●	●	●	●	○
Norway	●	●	●	○	●	○	●	○	○	●	●	●
Poland	●	●	●	●	○	○	●	●	○	○	○	○
Portugal	●	●	●	○	○	●	○	●	○	●	●	●
Slovak Republic	●	●	●	●	●	●	●	●	○	●	●	○
Slovenia	●	●	○	○	●	○	●	●	○	●	●	○
Spain	●	○	○	○	○	●	●	○	○	●	●	●
Sweden	●	●	●	●	○	●	●	●	●	●	●	●
Switzerland	●	●	●	●	○	○	●	●	○	●	●	○
Turkey	●	●	●	●	●	●	●	●	●	●	●	●
United Kingdom	●	●	●	○	○	●	○	●	●	●	●	●
United States	●	●	●	●	○	●	●	●	●	●	●	●
Russian	●	●	●	●	○	●	●	●	○	●	●	●

Country	Medium-term fiscal policy objectives	Macro economic assumptions	Budget prioritie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plan (all revenues, expenditures, off budget expenditures and extra budgetary funds)	financial plan encompassing all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all levels of government (including regional and local)	Comprehensive table of tax expenditures	Non-financial performance targets	Medium-term perspective on total revenue & expenditure	Long-term perspective on total revenue and expenditure (10+ years)	Clearly defined appropriations for legislature vote	Linkage of appropriations to administrative units	Text of legislation of policies proposed in budget
Federation												
Total OECD	31	30	31	16	9	23	24	26	8	29	28	19
2007	28	30	30				16	23		24	26	8

Key: ● = Yes; ○ = No

Note:

1. Based on Q.61. "In the presentation of central Government budget documents to the Legislature, which of the following elements are included?"

[표 A7.4] Expenditure items considered as contingent liabilities and included in the budget(Q39a-b)

Country	Loan guarantees	Law suits pend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inancial Initiatives	Environmental degradation	Obligations arising from natural disasters	Financial failure (insurance)	Other guarantees	Other
Australia	Yes	Yes						Yes	
Austria	Yes	Yes						Yes	
Belgium									
Canada	Yes	Yes			Yes		Yes		Yes
Chile	Yes	No					No	No	
Czech Republic	Yes							Yes	
Denmark	No		No						
Estonia	Yes	Yes		Yes			Yes	Yes	
Finland	Yes			Yes				Yes	
France	Yes	No						Yes	Yes
Germany	Yes								
Greece	Yes	No							
Hungary	No							No	
Iceland									
Ireland									
Israel	Yes	Yes	Yes						
Italy	Yes	Yes	No		Yes	Yes	No		
Japan	Yes	No				Yes	Yes		
Korea	No								
Luxembourg	Yes		Yes						
Mexico		No	Yes	Yes	Yes	Yes	Yes	Yes	
Netherlands	Yes							Yes	
New Zealand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Poland	Yes	Yes	No			Yes		Yes	
Portugal	Yes	No	No					No	
Slovak Republic		No							
Slovenia	Yes								
Spain									
Sweden	Yes						Yes		
Switzerland	Yes	Yes						No	Yes
Turkey	Yes		Yes						
United Kingdom	Yes	Yes					Yes	Yes	
United States		No			No		No		No
Russia									
OECD	26	18	8	4	5	5	10	15	4
Yes, included	23	10	4	4	4	5	7	11	3
No, Not included	3	8	4	0	1	0	3	4	1

Notes:

1. Based on Q.39a "Which of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contingent liabilities?" and Q.39b "For each of the selected types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Q39a, indicate whether they require legislative authorization and whether they are included in the budget documentation."
2. The 2007 data does not include 'Financial initiatives', 'Obligation arising from natural disasters' and 'Financial failure' in the answer choices; for 30 countries.

[표 A7.5] OECD countries that issue a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mid-year report (Q6)

Country	Mid-year report	Year-end report
Australia	●	●
Austria	●	●
Belgium	○	●
Canada	●	●
Chile	●	●
Czech Republic	●	●
Denmark	●	●
Estonia	●	●
Finland	○	●
France	●	●
Germany	○	●
Greece	●	●
Hungary	●	●
Iceland		
Ireland	●	●
Israel	○	●
Italy	●	●
Japan	○	●
Korea	○	●
Luxembourg	●	●
Mexico	●	●
Netherlands	●	●
New Zealand	●	●
Norway	●	●
Poland	●	●
Portugal	○	●
Slovak Republic	●	●
Slovenia	●	●
Spain	○	●
Sweden	●	●
Switzerland	●	●
Turkey	●	●
United Kingdom	●	●
United States	●	●
Russia	○	●
OECD		
● Issue a report	25	33
○ No report exists	8	0

Notes:

1. Based on Q.6k, "When does the central/federal government issue a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mid-year report?"
2. Based on Q.6m, "When does the central/federal government issue a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end-of-year report?"

[표 A7.6] What are the formal powers of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budget proposed by the executive?

Country	Amendment power
Australia	○
Austria	●
Belgium	●
Canada	○
Chile	◐
Czech Republic	◐
Denmark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Hungary	●
Iceland	
Ireland	◐
Israel	◐
Italy	◐
Japan	●
Korea	○
Luxembourg	●
Mexi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Portugal	●
Slovak Republic	●
Slovenia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Russia	○
OECD	
● Unrestricted powers	17
◐ Within executive's aggregates (i.e. no net changes)	8
◑ Cut existing items only	2
◒ Approve or reject	2
○ Other	4

Notes: Based on Q.64. "What are the formal powers of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budget proposed by the Executive?"

1. Australia: By convention, the Legislature approves the annual appropriation bills without amendment. It has unrestricted powers to amend new policies proposed by government, which are outlined in separate appropriation legislation.
2. Canada: The Legislature may ask for certain changes in the budget bill. The Executive may either accept or refuse the proposed changes. A Budget/Estimate vote that does not pass the legislature would be considered a vote of non-confidence, and could result in the dissolution of Parliament and a general election.
3. France: The Parliament can neither diminish the expenditures nor aggravate the balance. It can, however, reduce one part of public revenues by increasing another. It cannot in any way increase public expenditure (needs to pledge at the executive).
4. Korea: The legislature can increase expenditure only if the executive consents.
5. Russia: The Legislature may make amendments within the budgetary framework. Total expenditures and surplus/deficit can be changed only after Government approval.

[표 A7.7] Is a vote on the budget considered a vote of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Country	Confidence vote
Australia	●
Austria	○
Belgium	●
Canada	●
Chile	○
Czech Republic	○
Denmark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Hungary	○
Iceland	
Ireland	●
Israel	..
Italy	●
Japan	○
Korea	○
Luxembourg	●
Mexi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Portugal	○
Slovak Republic	○
Slovenia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Russia	○
OECD	32
● Yes	15
○ No	16
◐ Other	1

Note: Based on Q.66. "Notwithstanding the formal powers of the Legislature to modify the budget, is a vote on the budget considered a vote of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표 A7.8] Time available for legislative debate of the government's budget proposal (Q6)

Country	2012 No. of months budget presented before start of FY	2012 No. of months approved before start of fiscal year	2012 No. of months for legislative debate	2007
Australia	2	0	2	1
Austria	2,5	0	2,5	2
Belgium	2,5	0,5	2	2
Canada	1	-3	4	4
Chile	3	1	2	1
Czech Republic	4,5	2
Denmark	4	0	4	3
Estonia	3,5	0	3,5	
Finland	3,5	0	3,5	3
France	3	0,5	2,5	3
Germany	4,5	0	4,5	4
Greece	1	0	1	1
Hungary	3	0	3	3
Iceland				2
Ireland	0,5	-2,5	3	13
Israel	2	0	2	5
Italy	3,5	0	3,5	3
Japan	2,5	0	2,5	2
Korea	3	1	2	2
Luxembourg	3	1	2	2
Mexico	4	1,5	2,5	2
Netherlands	3,5	0	3,5	3
New Zealand	1,5	-2	3,5	4
Norway	3	0,5	2,5	2
Poland	3	-1	4	3
Portugal	2,5	1	1,5	2
Slovak Republic	2,5	0,5	2	2
Slovenia	3	0	3	
Spain	3	0	3	3
Sweden	3	0,5	2,5	2
Switzerland	4	0,5	3,5	3
Turkey	2,5	0	2,5	3
United Kingdom	0,5	-0,5	1	1
United States	8	0	8	8
Russia	3	2	1	
OECD average			2,9	3,0
3 months or more before start of FY/for legislative debate	20		15	
Less than 3 months before start of FY/for legislative debate	13		17	

Notes:

1. Based on Q.6.h. "When is the Executive Budget Proposal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submitted to the Legislature?" and Q.6.i. "By which date must the Legislature approve the budget?"

2. A negative number in the column "No. of months approved before start of fiscal year" indicates that the budget is approved after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3. In the Czech Republic, the law sets no date for when the Legislature must approve the budget. According to the organic budget law the last year's budget takes effect on an interim basis if the budget is not approved by the Legislature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표 A7.9] Do the provisional procedures if the budget is not approved by the legislature before the start of fiscal year favour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ure?

	2007	2012	
		Number	Country
Favours the executive	6	4	Finland, New Zealand, Poland
Impartial measures	14	18	Austria, Belgium,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rance, Germany, Greece, Israel,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Turkey, United Kingdom
Favours the legislature	3	7	Canada, Ireland, Japan, Mexico, Norway, Switzerland
Other	8	4	Australia, Hungary, Italy, Sweden
None	2	..	

Key: Favours executive captures the following options from the OECD Survey "executives proposal takes effect" and "executive proposal takes effect in the interim period"; Impartial measures captures "Last year's budget takes effect on an interim basis"; Favours legislature captures "Expenditure without legislature approval are not allowed" and "Interim measures voted by the legislature"; Other captures "Government shuts down, emergency budget applies until (interim) agreement is reached" and None captures "Other".

Notes:

Based on Q.67. "If the budget is not approved by the Legislature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which of the following OECD Internet Survey System describes the consequences?"

1. Australia: 75-80 per cent of the Budget has ongoing legislative approval and will continue. The remainder that does not have approval will cease.
2. Hungary: If the Parliament has not adopted the budget by the beginning of the calendar year, the Government shall be authorised to collect the revenues determined in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ppropriations set out in the budget law for the previous year, and make the expenditures as commensurate.
3. In Italy, government shuts down, emergency budget applies until (interim) agreement is reached.
4. Sweden: the Legislature decides about each appropriation to the extent needed until the budget is approved. If the Legislature hasn't decided about an appropriation then the last budget remains in force.
5. Russia favours impartial procedures.

[표 A7.10] Existence of a specialised budget research unit attached to the legislature

Country	Are there a specialised budget research office/unit attached to the Legislature?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staff
Australia	●	24
Austria	●	3
Belgium	○	
Canada	●	14
Chile	○	
Czech Republic	○	
Denmark	○	
Estonia	○	
Finland	○	
France	●	40
Germany	○	
Greece	●	7
Hungary	●	3
Iceland	○	
Ireland	○	
Israel	●	30
Italy	●	35
Japan	●	21
Korea	●	125
Luxembourg	○	
Mexico	●	59
Netherlands	●	11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3
Portugal	●	5
Slovak Republic	○	
Slovenia	○	
Spain	○	
Sweden	●	45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Russia	○	

Country	Are there a specialised budget research office/unit attached to the Legislature?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staff
OECD		
● = Yes, there is a specialised budget research office/unit	16	28,3
○ = No	18	
2007		
● = Yes, there is a specialised budget research office/unit	14	58,5
○ = No	18	

Key: ● = Yes; ○ = No

Notes:

1. Based on Q.60a, "Is there a specialised budget research office/unit attached to the Legislature to conduct analyses of the budget?" and Q.60b, "Please estimate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staff employed by this office/unit"
2. Since 2007, Australia, Austria, France and Greece have established a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In addition, Chile and USA previously have reported such offices and are included in the table even if these countries did not respond to the 2012 OECD Budget Survey.
3. The new Parliamentary budget research units in Australia and Austria are planning to have 30 and 8 staff respectively.
4. Finland and Norway have a very limited staff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on budget matters (respectively 1 and 3 staff).
5. Greece established its Parliamentary budget research unit in June 2011, but is reported to have interrupted its operations because several staff resigned.

[표 A7.11]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Country	Institution name	Established	Annual budget	Is funding commitment multiannual?	Number of secretariat staff	Are any staff seconded from another institution?
Australia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1	AUD 2,4M over four years with additional short-term funding during election period	●	Recruitment of 30-35 staff ongoing	○
Austria	Government Debt Committee (GDC)	1970	Data not available	○	3	●
Belgium	High Council of Finance (HCF)	1936	Data not available	○	14	●
Canada	Parliamentary Budget Officer(PBO)	2008	CAD 2,8M	○	15	○
Denmark	Economic Council	1962	DKK 23,5M	○	30	○
Ireland	Fiscal Advisory Council	2011	EUR 0.8M (FY2013)	○	3	●
Korea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2003	USD 12,7M	○	125	○
Mexico	Centro de Estudios de las Finanzas Públicas (CEFP)	1998	50,9M pesos (FY2009)	○	59	○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1945	EUR 13,5M	●	117	○
Portugal	Conselho das Finanças Públicas (CFP)	2011	EUR 2,65M (FY 2013)	○	Recruitment of 15-20 staff ongoing	●
Slovak Republic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CBR)	2012	EUR 2M (FY 2013)	○	Recruitment of 15-20 staff ongoing	○

Country	Institution name	Established	Annual budget	Is funding commitment multiannual?	Number of secretariat staff	Are any staff seconded from another institution?
Slovenia	Fiscal Council	2009	EUR 100,000 (FY 2012)	○	None	●
Sweden	Fiscal Policy Council (FPC)	2007	SEK 7.55M	○	5	○
United Kingdom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	2010	GBP 1.75M	●	17	○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1974	USD 45.2M	○	250	○
Total countries				15		15
● = Yes				3		5
○ = No				12		10

Note: Data on the annual budget is for FY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table.

Updates were made for several countries in 2013 and new data is being collected for France, Finland and Italy, and will be collected for any new institutions, but was not complete at the time this publication was being prepared

[표 A7.12]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Country	Institution name	Reports published	Fiscal council's key reports sent to the legislature	Leadership of fiscal council participates in parliamentary hearings	Parliament plays a role in appointment or dismissal process for leadership of the fiscal council
Australia	Parliamentary Budget Office(PBO)	●	●	●	●
Austria	Government Debt Committee(GDC)	●	◐	●	○
Belgium	High Council of Finance(HCF)	●	○	○	○
Canada	Parliamentary Budget Officer(PBO)	●	●	●	○
Denmark	Economic Council	●	●	●	○
Ireland	Fiscal Advisory Council	●	●	●	●
Korea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	●	●	●
Mexico	Centro de Estudios e las Finanzas Públicas (CEFP)	●	●	●	●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	●	○
Portugal	Conselho das Finanças Públicas(CFP)	●	●	●	○
Slovak Republic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CBR)	●	●	●	●

Country	Institution name	Reports published	Fiscal council's key reports sent to the legislature	Leadership of fiscal council participates in parliamentary hearings	Parliament plays a role in appointment or dismissal process for leadership of the fiscal council
Slovenia	Fiscal Council	●			○
Sweden	Fiscal Policy Council(FPC)	●	●	●	○
United Kingdom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	●	●	●	●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	●	●	●
Total countries		15	15	15	15
● = Yes		15	12	13	7
○ = No		0	1	1	8
◐ = Other		0	1	0	0
Data not available		0	1	1	0

Note: Data on reports sent to the legislature and participation in parliamentary hearings not available for Slovenia, although, according to its Rules of Procedure, the Slovenian Fiscal Council sends the minutes of their meetings to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Finance and Monetary Policy. In Austria, the Government Debt Committee's report is forwarded to the National Council by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While the very new Slovak Republic's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will almost certainly participate in hearings of the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they had not yet been asked to do so when the country note was being prepare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CBR has already received a request from a parliamentary caucus to provide an opinion on a legislative proposal. While parliamentary committees in Belgium could invite the High Council on Finance Chairman to testify, in practice this is exceedingly rare.